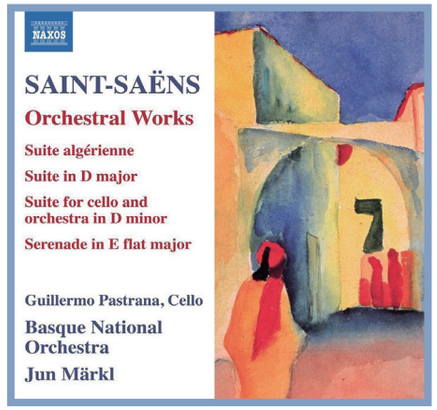


생상스: 관현악 모음곡 & 세레나데 작품집

길레르모 파스트라나(첼로), 바스크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윤 메르클(지휘)

생상스 작품 세계의 미니어처

윤 메르클은 바스크 국립 오케스트라과 함께 '교향시'(8.573745)에 이어 다시 한 번 생상스의 관현악 작품을 조명한다. 북 아프리카의 풍광이 당당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로 표현된 '알제리 모음곡', 오르간(하모늄),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에 대한 작곡가의 각별한 관심이 배어 있는 '모음곡 D장조(Op.60)', '모음곡 d단조(Op.49)', '세레나데 내림 마장조(Op.15)'는 '생상스 작품 세계의 미니어처'라 해도 좋을 법하다. 전작의 생동감과 더불어 명징한 음향과 화사한 색채감은 한층 산뜻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감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8573732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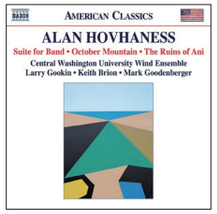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호아킨 홈즈: 독주 기타와 기타 듀오를 위한 작품 전집
알렉스 가로베 & 호세 안토니오 에스코바르(기타)
기타의 새로운 잠재력과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
8573855 **[추천음반]**

베네수엘라의 기타 음악 작품집
니르세 곤살레스(기타)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우수와 정열이 교차하는 서정, 베네수엘라 기타 음악의 정수
8573631 **[추천음반]**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소나타(Op. 13) & 24개의 전주곡(Op. 34) – '바이올린과 피아노 편곡 버전'
세르게이 도가딘(바이올린), 니콜라이 토카레프(피아노)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쇼스타코비치의 짜릿한 영감
8573753 **[추천음반]**



호바네스: 관악 밴드를 위한 모음곡
센트럴 워싱턴 대학 관악 앙상블(연주), 키스 브라이언 & 마크 구덴버거 & 래리 구킨(지휘)
관악기의 그윽한 여운 속에 떠오르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8559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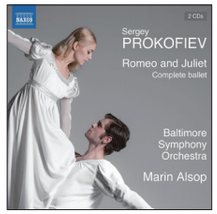
베토벤: 플루트 작품 1집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코다마 미쯔오(바순), 세자키 아스카(바이올린), 코미네 코이치(비올라)
'기억의 습작', 색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 본 시절 베토벤의 작품들
8573569

멕시코 기타음악 작품집
세실리오 페레라(기타)
봄의 첫 자락, 아지랑이를 연상시키는 산뜻한 연주
8573674

카라예프: 교향곡 1번 & 바이올린 협주곡
잔나 갠덜맨(바이올린),키예프 비르투오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쇼스타코비치의 색채로 표현한 코카서스의 웅장한 풍광
8573722

마르티누: 가곡 5집
야나 흐로초바(메조 소프라노), 조르지오 쿠클(피아노)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재치, 마르티누 가곡의 숨겨진 보석
8573823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관현악 버전 발췌)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원곡의 유장하고도 넘실거리는 흐름과 너른 스케일이 집약되어 있는 편곡의 묘미
8573839



프로코피예프: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4막 전곡, 1939년 개정판)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지휘)
선굵은 색채, 작품의 서사적인 면모에 주목한 연주
8573534–35 [2CDs]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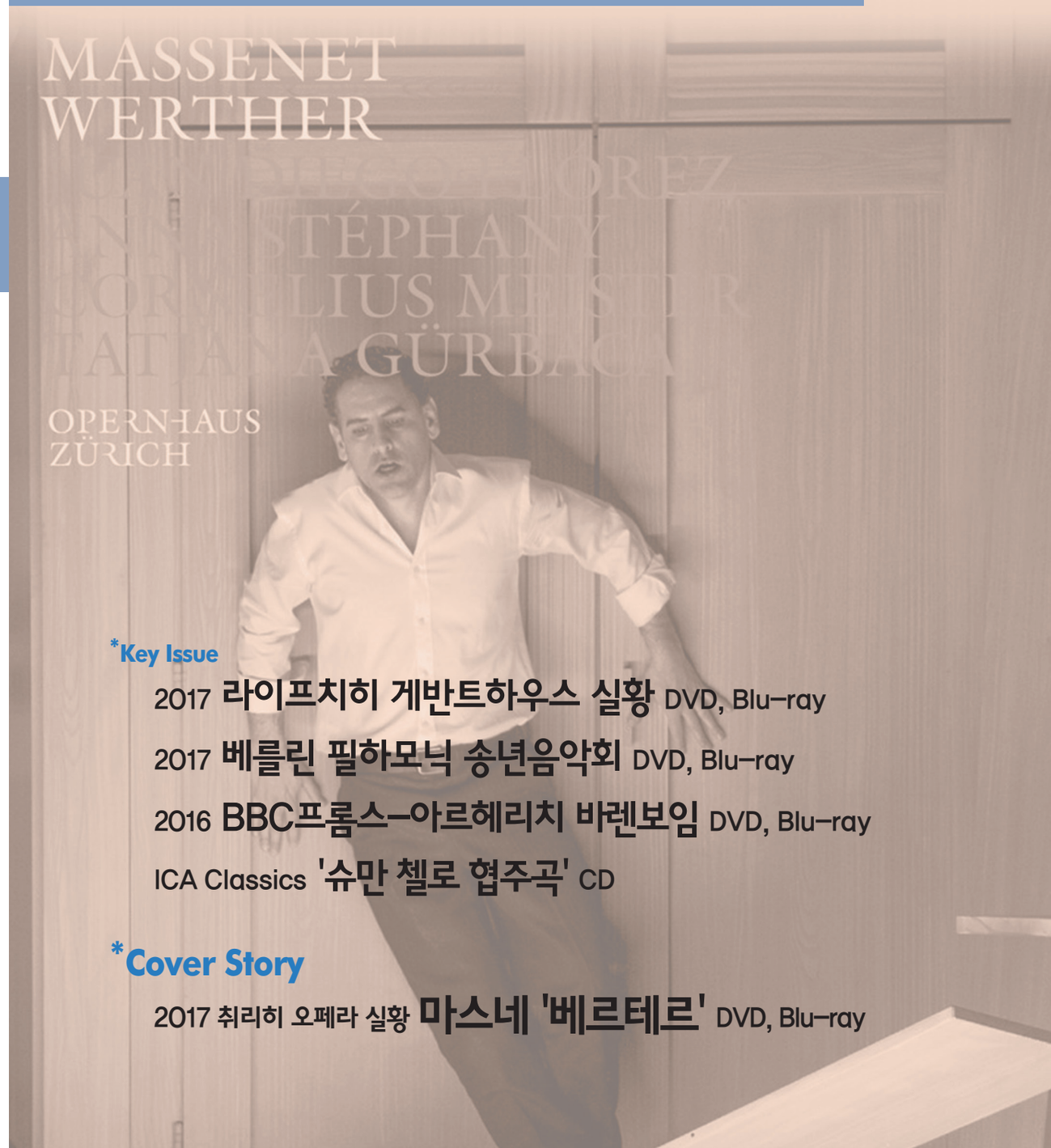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5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5호 | April 2018



*Key Issue

2017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DVD, Blu-ray

2017 **베를린 필하모닉 송년음악회** DVD, Blu-ray

2016 **BBC프롬스-아르헤리치 바렌보임** DVD, Blu-ray

ICA Classics **'슈만 첼로 협주곡'** CD

*Cover Story

2017 취리히 오페라 실황 **마스네 '베르테르'** DVD, Blu-ray

Key Issue

2017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DVD, Blu-ray 3
2017 베를린 필하모닉 송년음악회 DVD, Blu-ray 4
2016 BBC프롬스-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DVD, Blu-ray 5
ICA Classics '슈만 첼로 협주곡' CD 52-53

Cover Story

2017 취리히 오페라 실황-마스네 '베르테르' DVD, Blu-ray ... 6-7

Coming Soon

수사네 룬뎅(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LP 7

CD

Accentus 8
Arco Diva 8-9
Aurora 9-11
Austrian Gramophone 11
Berliner Philharmoniker 12
BR Klassik 13
Capella de Ministrers 14
Capriccio 14-15
Cedille 15
Dacapo 16
Divox 16
Dynamic 17
Gothic 17
Gramola 18-19
Grand Piano 19-20
IBS Classical 21
J.S.Bachstiftung 21
KKV 22-25
LPO 26
Naxos 26-42
Ondine 42-43
Orlando 43
Paladino 44
RCO Live 44
Resonus 45
Silk Road 46
Solo Musica 47
Sono Luminus 47
Steinway & Sons 48
Tactus 48
Toccata Classics 49
VOX 49-51

DVD & Blu-ray

Accentus 54-55
BelAir 56-57
C Major 58-60
Dynamic 61-64
EuroArts 65-77
EPC 78
Naxos 79-80
OpusArte 81-82

LP

Accentus **[LP]** 83
Aurora **[LP]** 83
KKV **[LP]** 84-85
Silk Road **[LP]** 8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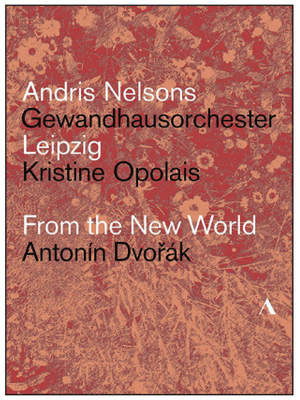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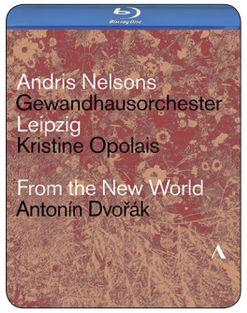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라이프치히의 새 바람이자 젊은 이정표, 안드리스 넬슨스! 2017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2005~16년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를 이끌었던 샤이에 이어 안드리스 넬슨스는 2017/18 시즌부터 LGO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샤이의 팬들에게 넬슨스의 존재는 살짝 못 미덥겠지만, 2017년 5월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을 보면 넬슨스의 젊음과 해석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넬슨스의 부인인 오폴라이스는 니콜 키드먼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자태는 물론 그리 힘들이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뽑아내는 발성으로 '루살카'의 주요 아리아를 소화하고, 넬슨스는 '신세계' 교향곡에서 놀라운 감촉의 선율을 뽑아낸다. 라이프치히에 부는 새로운 변화!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지하는 이는 영상 속에서 열광하는 관객들이다. 한글 자막, 33쪽 부클릿에는 '신세계로부터'에 관한 해설(독 · 영 · 불어)이 수록.



Accentus ACC20419 [DVD]



ACC10419 [Blu-ray]

2017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드보르자크 '루살카 중-아리아', '신세계' 교향곡 [한글자막]
안드리스 넬슨스(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소프라노)

[보조자료]

늦은 나이에 잡은 지휘봉이지만, 안드리스 넬슨스만큼 승승장구한 지휘자가 있을까? 24세에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 29세의 젊은 나이로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12대 음악감독으로 지명된 그는 2015년, 세계 최고(最古)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로부터 2005~16년에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한 리카르도 샤이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넬슨스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보스턴 심포니와 유럽에서 가장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표 오케스트라 두 곳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셈이다.

넬슨스는 2017/18 시즌부터 LGO와 합을 맞추고 있다. 그의 연주는 올해(2018년) 2월에 국내에도 생중계되면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O의 팬들에게 넬슨스는 샤이의 무게와 정통을 이어받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지휘자로 취급된다. 이 영상물은 넬슨스와 LGO의 미래로 다가가는 이정표와도 같다. 2017년 5월, 라이프이치 게반트하우스에 오른 LGO 실황으로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와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담은 영상물이다. 넬슨스는 드보르자크의 연주회용 서곡 '오텔로'로 막을 연다. 이윽고 넬슨스의 부인인 소프라노 오폴라이스가 함께 하여 오페라 '루살카' 중 '달의 노래',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른다.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자태, 그리 힘들이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뽑아내는 발성을 보여주는 그녀의 힘과 넬슨스의 지휘력이 탁월하게 맞물려 들어간다. '루살카' 중 '폴로네이즈' 연주 후에 다시 등장한 오폴라이스는 스메타나 '달리보르' 중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와 '루살카' 중 '그건 소용 없어' 등을 부른다. 성악가는 퇴장했지만, 2부를 장식하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에서 넬슨스는 레이어에 서려 있는 멜로디의 감촉을 자아낸다. 넬슨스의 편안한 연주가 샤이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다소 밋밋하게 다가갈테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영상 속에서 열광하는 관객들이다. 넬슨스는 드보르자크의 슬라브무곡 2번 Op.72로 관객들에게 보답한다. 한글 자막을 갖췄으며, 33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신세계로부터'에 관한 해설(독 · 영 · 불어)이 수록되어 있다.

래틀과 베를린 필이 함께 하는 '마지막' 송년콘서트 2017 베를린 필하모닉 송년음악회 가곡 DVD, Blu-ray

2017년 12월 31일, 베를린 필의 송년 콘서트 실황으로, 런던 심포니로 둥지를 옮기는 래틀이 선사하는 베를린 필의 마지막 송년 콘서트이기도 하다. 베를린의 화려한 야경이 영상의 문을 열고, 드보르자크, 스트라빈스키, R.슈트라우스 가곡, 번스타인, 쇼스타코비치, 브람스의 명곡들이 차례로 연주된다. 헨델과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진 디도나토는 명확한 독일어 발음과 낭만적인 접근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번스타인을 노래할 때는 모던한 감각의 소리를 선사한다. 공연장은 신년을 맞이하는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연주를 마치고 꽃을 선물 받은 래틀은 객석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가장 뒷좌석에 위치한 메르켈 총리에게 선사하고 포옹을 나눈다.

EuroArts 2067488 [DVD]

2067484 [Blu-ray]

2017 베를린 필하모닉 송년음악회 가곡 [한글자막]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이스 디도나토(메조소프라노)

[보조자료]

2017년 12월 31일, 베를린 필하모닉홀의 송년콘서트 실황이다. 베를린의 야경과 눈 덮힌 거리의 풍경이 영상물의 막을 연다.

런던으로 둥지를 옮기는 래틀의 마지막 송년콘서트을 보러온 관객들로 객석의 빈 좌석은 찾아볼 수 없다. 래틀은 드보르자크 카니발 서곡 Op.62, 스트라빈스키 '뮤즈를 이끄는 아폴론'으로 문을 연다.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는 R.슈트라우스의 가곡 '헌정' '자장가' '어머니의 놀이(Muttertändelei)' '세 사람의 동방박사'를 선사한다. 가곡 '아침'을 함께 하는 노아 벤딕스-발글레이(악장)의 바이올린선율과 디도나토의 고운 목소리는 2017년의 마지막 밤을 더욱 진하게 물들인다. 헨델과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진 디도나토는 명확한 독일어 발음과 낭만적인 접근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2018년이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임을 의식해서인지 '온 더 타운'의 '세 춤의 에피소드'를 연주하고, 재등장한 디도나토가 '펜실베니아 도로 1600번지' 중 '집을 잘 부탁해'를 선사한다.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인상적이다. 쇼스타코비치 '황금시대' 모음곡,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72-2, 브람스 '헝가리 무곡' 1번이 이어지며 베를린은 2018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다.

카메라는 파란색으로 물들인 무대와 관객석을 자주 비추며 공연장에 맴도는 설렘의 기운을 포착해낸다. 연주 후 꽃을 선물 받은 래틀은 그 꽃을 들고 무대 뒤로 성큼 성큼 걸어간다. 그러고 나서 관객석 뒷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한 메르켈 총리에게 선사하고 포옹을 나눈다.

오디오 옵션은 PCM 스트레오/마스터 오디오 5.0으로 선택가능하며, 성악곡에는 영 · 독 · 일어와 한국어 자막이 지원된다.

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리스트와 바그너. 거장이 연주하는 거장의 명작 2016 BBC프롬스 – 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DVD, Blu-ray

2016년 8월 BBC프롬스 실황으로, 외르크 비트만(1973~) '콘 브리오'로 문을 열고,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대형홀의 열기를 확 달군다. 아르헤리치는 아바도/런던 심포니와 함께 했던 젊음을 떠올리는가 하면, 노년의 여유도 자랑한다. 앙코르로 바렌보임과 듀오로 슈베르트 론도 D951를 선보인다. 예정에도 없던 위대한 연주에 13분 동안 젖어든다. 2부는 '탄호이저' '신들의 황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로엔그린'의 서곡 · 전주곡이다. 바그너는 골수 바그네리안답게 복잡한 구조에서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전달한다. 젊은 악단도 천변만화하는 극적 전개와 지휘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고해상도 영상(1080i)과 PCM스테레오/마스터오디오 5.0의 오디오 옵션으로 만나는 현장에서 생생함이 느껴진다.

EuroArts 2097058 [DVD]

2097054 [Blu-ray]

2016 BBC프롬스 – 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피아노),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보조자료]

2016년 8월, 로열 앨버트홀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바렌보임이 등장한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연주"라는 호평을 받은 공연의 막을 클라리네티스트 · 작곡가인 외르크 비트만(1973~) '콘 브리오'로 문을 연다. 바렌보임만의 실험정신이 빛을 발하는 선곡이자 연주다.

일생의 대부분이 전성기라 평가 받는 바렌보임과 아르헤리치는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함께 한다. 4악장 구성, 악장 간의 휴지 없이 전개된다. 아르헤리치는 아바도/런던 심포니와 함께 했던 전설적인 음반 속의 젊음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노년의 여유가 돋보인다. 바렌보임은 자신의 피아노를 다루듯 청년 악단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아르헤리치를 완벽히 보필한다. 앙코르인 슈베르트 론도 D951에서 바렌보임과 아르헤리치의 듀오 여주는 우리를 예정에도 없던 위대한 연주로 초대한다. 2부는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신들의 황혼' 중 '지그프리트의 장송행진곡',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1막 전주곡과 3막 전주곡, '로엔그린' 3막 전주곡이다.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바그너 연주를 강행할 만큼 바렌보임은 골수 바그네리안이자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다. 복잡한 악보에서 음악적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천재성이 그 바탕이라 할 것인데, 이 연주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천변만화하는 바그너의 극적 전개와 천재의 지휘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젊은 악단의 음악성도 돋보인다.

BBC프롬스의 실황 영상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고해상도 영상(1080i)과 PCM스테레오/마스터 오디오 5.0의 오디오 옵션으로 만나는 영상물은 역시 남다른 감동을 준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과 달리 아나운서의 해설도 없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진정한 베르테르,
후안 디에고의 눈물과 목소리
2017 취리히 오페라 실황 마스네 '베르테르'(한글자막)

2017년 4월 취리히 오페라극장 실황으로 주인공은 당연히 베르테르 역의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이다. 3막 아리아 '봄의 숨겨이여, 왜 나를 깨웠는가?'는 그가 지닌 프랑스 레퍼토리 중 최고의 병기다. 애나 스테파니는 베르테르의 광기에 의해 흔들리는 샤를로트의 심정과 표정을 실감나게 그려낸다. 불안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마스크는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선사한다. 코렐리우스 마이스터의 지휘는 진중한 울림의 기둥을 세우고, 주인공들의 눈물은 그 기둥을 타고 관객석을 적신다. 귀르바카(연출)와 그륀베르크(무대미술)의 무대는 작으면서도 사랑에 관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는 슬픔의 성소가 된다. 해설지(45쪽 구성)에는 플로레스, 연출가, 무대미술가의 인터뷰(영 · 불 · 독어)가 수록.

ACC20427 [DVD]

ACC10427 [Blu-ray]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베르테르), 애나 스테파니(샤를로트),
멜리사 프티(소피), 코넬리우스 마이스터(지휘),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취리히 오페라극장 합창단,
타티아나 귀르바카(연출), 무대미술(클라우스 그륀베르크)

[보조자료]

시인 베르테르는 약혼자 알베르가 있는 샤를로트를 사랑한다. 결국 샤를로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견디지 못한 그는 그녀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면서도 흔들리는 샤를로트. 결국 그녀는 만류하고 베르테르는 알베르의 권총으로 자결한다. '베르테르'는 1892년 빈 국립오페라극장 초연 이후, 1893년에 프랑스어로 개작되었다. 마스네의 작품에는 대개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유독 주인공이 남성인데다가, 상대역이 정숙한 여성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결말에 이르러 여주인공들이 죽는 것과 달리, 죽음이 베르테르를 향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2017년 4월 취리히 오페라극장에 오른 이 프로덕션의 주인공은 당연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3막의 아리아 '봄의 숨겨이여, 왜 나를 깨웠는가?'는 그가 지닌 프랑스 레퍼토리 중 최고의 병기다. 이 한 곡에, 그는 사랑을 안고 죽음에 다다르는 베르테르의 복잡한 심정을 담아낸다. 메조소프라노 애나 스테파니는 베르테르의 광기에 의해 흔들리는 샤를로트의 심정과 표정을 실감나게 그려낸다. 불안과 눈물에 젖은 그녀의 마스크는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선사한다.

지휘자 코넬리우스 마이스터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며, 2010년부터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RSO)의 수석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주인공들의 비극에는 마이스터가 이끌어내는 두텁고 진중한 관현악의 울림이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는 마스네로부터 바그너적 감각과 음악적 샘물을 퍼올린다.

1774년에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를 출간했고, 1893년 마스네는 오페라 '베르테르'를 발표했다. 이 프로덕션의 연출가 타티아나 귀르바카는 작품의 소품과 배경을 20세기 감각으로 포장했다. 귀르바카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극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2007년부터 매년 역작이라 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내놓고 있다. 베르디 '아이다'(2014/취리히 오페라),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2016/앤트워프 오페라)과 '로엔그린'(2016/에센 알토 극장) 등이 최근의 대표작. 클라우스 그륀베르크(무대미술)가 디자인한 무대는 '라 보엠'의 다락방을 연상시킬 정도로 좁고도 아늑하다. 그러면서 베르테르의 광적인 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 출구 없는 좁은 방이 되어, 작품의 긴장도를 높인다. 해설지(45쪽 구성)에는 후안 디에로 플로레스, 연출가 귀르바카, 무대미술가 그륀베르크의 상세한 인터뷰(영 · 불 · 독어)가 수록되어 있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Coming Soon

www.aulosmedia.com

AMLP003

Susanne Lundeng: Jeg Ser Deg Søte Lam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Susanne Lundeng(vocal, fiddle), Kristin Skaare(trekkspill),
Finn Sletten(percussion), Stan Poplin(bass),
Havay Bendiksen(guitar), Bjorn Andor(synthesizer)

신비스런 노르웨이 전통 음악의 파수꾼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주인공 [수사네 룬뎅] 베스트 컬렉션.

Accentus www.accentus.com

ACC30429
브루크너: 장엄미사, 마니피카트, 탄툼 에르고 등
빈켈(소프라노), 함센(메조소프라노), 콜헤프(테너), 미텔하머(바리톤), RIAS 실내합창단,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우카스 보로비츠(지휘)
성 플로리안 성당 시절을 대표하는 지고지순의 종교적 아름다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안톤 브루크너는 1845년부터 약 10년간 성 플로리안 성당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직했으며, 약 41곡의 성가를 남겼다. 그 중 1854년에 작곡된 〈장엄미사〉는 장대한 규모를 가진 작품으로, 성 플로리안 성당 시절에 작곡된 곡 중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음반은 이 작품 사이에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로버트 퓌러, 요제프 아이블러, 요한 겐스바허의 작품들을 수록하여 19세기 초엽 라틴어 성가의 전면적인 모습을 들려준다. 독창진과 합창단의 아름다운 미성은 브루크너의 화음이 가진 최상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Arcodiva www.arcodiva.cz

UP0178 **[추천음반]**
유모레스크: 비올라와 첼로의 이중주
크리스티나 피알라(비올라), 페트르 누초프스키(첼로)
베토벤을 필두로 비올라와 체코의 첼로의 이중주곡을 소개한 개성 넘치는 음반
비올라와 첼로의 이중주는 매우 흔치 않은 앙상블이다. 하지만 베토벤의 재치 있는 '두 개의 안경 오블리가토가 있는 이중주'는 이 색다른 조합을 도전하게 한다. 이 음반은 이 작품을 필두로 비올라와 첼로의 이중주곡을 수록했다. 피알로바와 누초프스키는 여러 콩쿠르를 석권하고 체코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연주자들로, 베토벤과 드보르작의 유명한 '유모레스크'를 편곡하여 수록했다. 또한 로만 하스, 페트르 피알라, 아담 스쿠말 등 체코 작곡가의 작품들은 낭만적이고 독특한 리듬감이 있으며, 오늘날의 감성으로 개성이 넘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UP0195
슈만: 피아노 작품 1집 – '교향적 연습곡(Op.13)', '인터메초(간주곡, Op.4)'
마리나 샘슨–프리마첸코(피아노)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필터'보다는 작품 본연의 엄격함이 돋보이는 연주
1994년 피에르 랑티에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리나 샘슨–프리마첸코는 대중에게 익숙한 작품들 이외에도 195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닥터 지바고》의 작가로 알려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를 비롯해 마르티누, 바인베르크 등의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는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출시된 슈만의 피아노 작품 시리즈 첫 번째 음반에는 '간주곡(Op.4)'과 '교향적 연습곡(Op.13)'이 수록되었다.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필터'와 작품 본연의 엄격한 성격 중 그녀는 후자에 치중한 연주를 보여준다. 바흐에 대한 슈만 자신의 해석이 담긴 '간주곡'에서 연주자의 명료한 터치는 빛을 발한다.

UP0196
슈만: 피아노 작품 2집 – '사육제(Op.9)', '어린이 정경(Op.15)', '꽃의 소품, (Op.19)', '아라베스크(Op.18)'
마리나 샘슨–프리마첸코(피아노)
슈만 특유의 낭만 – 자유로운 감성이 돋보이는 터치
'사육제(Op.9)', '어린이 정경(Op.15)', '꽃의 소품(Op.19)', '아라베스크(Op.18)'가 수록된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리나 샘슨–프리마첸코의 슈만 피아노 작품 시리즈 두 번째 음반이다. 그녀는 1집(ArcoDiva, UP0195)의 '엄격함'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슈만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을 보여준다. 명료한 터치, 재치 있는 흐름이 묻어나는 반향의 조화는 인생의 '봄'을 대하는 슈만의 속내를 보여주는 듯하다. 한 사람의 연주자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감탄하게 되는 음반이다. '교향적 연습곡'과 '간주곡'이 수록된 1집과 짝을 이루어 감상할 것을 권한다.

Aurora www.aurora.ws

CDS175SA **[SACD]**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PAGANINI'S VIOLIN)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귀하디귀한 명기 1742년산 과르네리로 파가니니 최고의 연주자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연주한 베스트음반.
선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로 최고의 파가니니 연주가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프란체스카티 편곡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비단결보다도 더 질감이 좋을 것 같은 톤으로 연주해준다. 나탄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가니니아나', 요제프 수크의 '사랑의 노래'도 가슴을 녹인다.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는 아카르도의 신기에 가까운 바이올린 기교를 만끽하게 한다. 요하힘이 편곡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엘가의 '카프리스', 라벨의 '하바네라 형식의 소품', 드뷔시의 '달빛'등도 명기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

1. Tartini-Francescatti / Variations on a theme by Corelli 03'16"
2. Nathan Milstein / Paganiniana for slol violin 07'50"
3. Josef Suk / Love Song Op.7 No.1 06'33"
4. Pablo de Sarasate / Introduction and Tarantella 04'58"
5. Chopin-Sarasate / Nocturne Op.9 No.2 (dedicated to his friend Aime' Gros) 05'07"
6. Johannes Brahms-Joachim / Hungarian dance No.7 02'14"
7. Edward Elgar / a Capricieuse (dedicated to his friend Fred Ward) 04'17"
8. Moszkowski-Sarasate / Guitarre Op.45 No.2 03'32"
9. De Falla-Kochanski / Pantomime (from Amor Brujo) 03'24"
10. William Kroll / Banjo and Fiddle 02'52"
11. Shostakovich / Two Preludes (Op.34 No.10 and Op.34 No.15) 03'13"
12. Maurice Ravel / Piece en forme de Habanera 02'56"
13. Arthur Benjamin / Jamaican Rumba (dedicated to Jascha Heifetz) 01'49"
14. Jeno Hubay Zefir (Op.30 No.5)
15. Claude Debussy / Clair de Lune (transcription for violin and piano by A. Roelens) 04'49"

16-18
Karol Szymanowski /
- Paganin's Caprice No.20 for violin & piano, Op.40 03'14"
- Paganin's Caprice No.21 for violin & piano, Op.40 02'44"
- Paganin's Caprice No.24 for violin & piano, Op.40 08'03"

KING 1005 SA [SACD]
게리 카가 연주하는 오페라 아리아들 "BASSO CANTABILE"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먼 루이스(피아노)
익숙한 오페라에 수록된 명아리아들을 생명감있게 연주
#1.푸치니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2.벨리니 '정결한 여신', #4.푸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6.생상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7.플로토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9.헨델 '라르고', #10.도니제티 '남몰래 흘리는 눈물', #13.'별은 빛나건만' 등 익숙한 오페라에 수록된 명아리아들을 게리카는 한음, 한음 생명감 있게 노래해주고 있다.

[수록곡]

1-1. Puccini: Tosca - Viss d`arte, Viss d`amore
1-2. Bellini: Norma - Casta Diva
1-3. Verdi: La Forza Del Destino - Pace, Pace Mio Dio
1-4. Puccini: Gianni Schicchi - O Mio Babbino Caro
1-5. Mozart: Le Nozze di Figaro - Dove Sono I Bei Momenti
1-6. Saint-Saens: Samson et Dalila - Mon Coeur s`ouvre a Ta Voix
1-7. Flotow: Martha - Die letzte Rose (The last Rose of Summer)
1-8. Bizet: Carmen - Je Dis Que Rien Ne M`epouvante
1-9. Handel: Serse - Ombra Mai Fu
1-10. Donizetti: L`elisir d`amore - Una Furtiva lagrima
1-11. Bizet: Les Pecheurs de Perles - Romance
1-12. Puccni: Turandot - Nessun Dorma
1-13. Tosca - E Lucevan Le Stelle
1-14. Verdi: Don Carlo - Dormiro Sol Nel Manto Mio Regal
1-15. Bellni/ Bottesini: Fantasie Sonnambula
1-16. Mozart: Die Zauberflote - In Diesen Heil`gen Hallen

KING 1006 SA [SACD]
게리 카가 연주하는 일본 노래집 2_ GARY KARR plays Japanese songs 2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몬 루이스(오르간, 피아노)
'꽃'이라는 제목의 일본 노래집 1집에 이은, 일본 노래집 2집.
제1집이 서정가나 동요 계통의 음악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제2집은 왕년의 대히트곡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원곡도 물론 유명하지만, 게리 카에 의해 콘트라베이스 곡으로 다시 태어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편곡판들이 전해주는 새로운 감동의 두께도 만만치 않다. 오디오파일용 필청 음반.

[수록곡]

1-1. Poesy Of Early Spring
1-2. Hasty Barber
1-3. Flowers Of Citrus Trifoliate
1-4. Picking Tea Leaves
1-5. Summer Has Come
1-6. Song Of Thistle
1-7. A Kind Of Carpenter's Telling Shell
1-8. Mountain Smoke Trails
1-9. An Old Castle
1-10. Autumn In A Small Village
1-11. Loving Seven-year-old Baby Crow
1-12. Having Been Scolded
1-13. Plover
1-14. Snowfall On The Streets
1-15. Look At The Stars Above
1-16. Walk With Your Face Up
1-17. After Having Left Tosa, The Southern Country
1-18. My Happiness Is Here To Stay
1-19. Song Of Dawn
1-20. My Dear Home Village
1-21. Song Of Gondola

Austrian Gramophone

www.austriangramophone.com

AUSTRIAN GRAMOPHONE

AG0006
슈베르트: 소나타 21번, 슈만: 크라이슬러리아나
리차드 옴로드(피아노)
거대한 에너지로 남다른 음향을 만들어내는 옴로드의 환상적인 음악세계
리차드 옴로드는 19세의 나이로 리즈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후 루빈스타인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현재 그는 왕립 노던 음악원의 피아노 교수이다. 그의 연주는 피아노의 깊은 속에서부터 공명이 울려나오며, 각 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조화를 이루어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슈만의 〈크라이슬러리아나〉는 각 소곡들의 성격들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격정에 휩싸인 슈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은 오히려 가벼운 터치로 방황하는 슈베르트를 그린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 150073 [5 SACD]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집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Hybrid

시벨리우스의 신비로운 음악어법을 온전히 개화시키다.
–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역사상 첫 번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집 녹음 –
사이먼 래틀은 얀 시벨리우스에 대해 "당대에 가장 경이로운 독창성을 가진 작곡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음악에는 독특한 음악어법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기인하는 많은 아름다움들이 그의 7개의 교향곡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낭랑하게 울려퍼지는 따스함만큼이나 절제된 북유럽 민속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의 음악에는 컨셉에 있어서의 대범함까지 겸비하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음악적인 발견의 여행을 만끽할 수 있기도 하다. 2015년 작곡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여 청중과 평론가들에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환호와 극찬을 받았다.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사이먼 래틀은 시벨리우스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베를리너 자이퉁은 리뷰를 실으며 "오케스트라는 엄격하면서도 신랄한 힘을 발산하여 이들 시벨리우스 음악에 중요한 방점을 찍어주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이먼 래틀은 어린 시절부터 얀 시벨리우스 음악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10세의 소년 래틀은 생전 처음으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을 듣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벼락을 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베를린 필하모니커 또한 작곡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로서 1902년 작곡가의 지휘로 그의 교향곡 연주회를 가졌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을 좋아하여 레코딩을 남겼지만 전곡 녹음을 남기진 못했던 바, 사이먼 래틀이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함께 2010년 교향곡 3번을 연주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벨리우스 전곡 사이클을 연주, 녹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게 되었다.

베를린의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이 시벨리우스 사이클과의 만남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음반을 통해 이 시벨리우스 기념해의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음반구성]

[DISC 1] 1-4 SYMPHONY NO.1 [37:39]

[DISC 2] 1-4 SYMPHONY NO.2 [43:12]

[DISC 3] 1-3 SYMPHONY NO.3 [28:17]
4-7 SYMPHONY NO.4 [36:50]

[DISC 4] 1-3 SYMPHONY NO.5 [30:32]

[DISC 5] 1-4 SYMPHONY NO.6 [29:13]
5-8 SYMPHONY NO.7 [21:48]

BR Klassik

www.br-klassik.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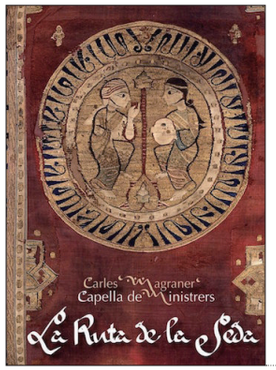
900154 **[추천음반]**
라흐마니노프: 종, 교향적 무곡
파블로프스카야(소프라노), 돌고프(테너), 마르코프(바리톤),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얀손스(지휘)
섬세하고 선명한 색채감으로 근대 유럽의 정취를 담은 화사한 사운드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협주곡과 교향곡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음악원 학생시절부터 오페라를 쓰는 등 사람의 목소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인성을 위한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종〉이다. '교향시'라고 부제가 적혀있지만 세 명의 독창자와 합창이 등장하는 대규모 작품이며, 가사는 에드가 앨런 포의 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러시아어로 재구성했다. 마리스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섬세하고 선명한 색채감으로 화사한 근대 유럽의 정취를 담았다. 〈교향적 무곡〉 또한 무희의 세련된 제스처를 그리듯 역동적이다.

900157
마리스 얀손스의 초상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밀월, 바이에른과 얀손스가 들려주는 교향곡의 시작과 현재
마리스 얀손스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해오고 있다. 얀손스와 이 관현악단이 내놓은 이 박스 앨범에 타이틀을 붙인다면 '교향곡의 시작부터 현재까지'가 적당할 것이다. 고전의 시작 하이든의 〈교향곡 88번〉과 고전의 완성 베토벤의 〈교향곡 4번〉, 고전의 부활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독일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말러의 〈교향곡 9번〉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그리고 현대의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교향곡〉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으로 이어져 교향곡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다.

900318
변장한 아리아
안나 보니타티부스(소프라노), 뮌헨 방송교향악단, 코라도 로바리스(지휘)
바로크부터 벨칸토, 영화까지 섭렵한 지극히 아름다운 목소리
이탈리아 정상급 오페라 가수 안나 보니타티부스의 이 음반은 남자의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만 선별했다. 헨델 〈라다미스토〉, 비발디 〈파르나체〉, 글루크 〈오르페와 유리디스〉, 벨리니 〈카플렛가와 몬테규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등 남성의 역할이지만 여성의 음역으로 쓰인 작품이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라벨 〈아이와 마법〉과 같이 어린이 배역인 경우, 그리고 만치니의 영화음악 〈빅터/빅토리아〉와 같이 스토리상 남자로 변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바로크부터 벨칸토, 영화까지 섭렵한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아름답다.

Capella de Ministrers

www.capelladeministrers.com



Carles Magraner
CAPELLA DE MINISTRERS

CDM1743 [2CDs]

중세 실크로드 음악 모음곡집 '라 론하 데 라 세다(La Ruta de la Seda)'

카를레스 마그라너(예술감독), 앙상블 카펠라 드 미니스트러스

음반을 트는 순간, 실크로드의 전설로 떠난다!

요요마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나 실크로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마니아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갈 음반이다.
첼로 · 비올라 다 감바 전문 연주자 카를레스 마그라너가 이끄는 고음악앙상블 카펠라 드 미니스트러스는 유럽의 고음악을 담은 전문 음반 40여종을 발매한 단체다. 앨범의 제목인 '라 론하 데 라 세다(La Ruta de la Seda)'는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명으로 실크로드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음악들을 2장의 CD에 담고 있다. 음악마다 이란 · 중국 · 인도 · 페르시아 · 터키 · 이집트 · 스페인 · 이탈리아 · 그리스 · 오스만 · 테살로니키 · 프랑스 등지에서 전래된 시와 음률들이 녹아 있다.
124쪽의 해설지(터키어 · 스페인어 · 영어 · 프랑스어)에는 곡목 해설, 가사 그리고 마그라너가 직접 쓴 노트가 수록되어 있다. 실크로드 음악의 이면을 담은 한편의 역사서 같다.

Capriccio

www.capriccio.at

DIGITAL CAPRICCIO D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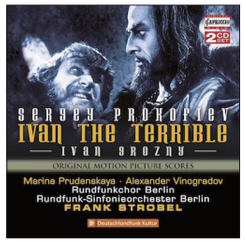
C5300

프란츠 & 칼 도플러: 플루트 음악 전곡 6집

클라우디 아리마니, 야노시 발린트, 구도 시게노리, 막상스 라리외(플루트) 등

플루트 특유의 화려한 음색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들로 가득한 음악의 포푸리

도플러 형제는 헝가리계로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하며 플루트로 19세기 유럽을 호령했다. 이 음반은 그들의 플루트 음악 전집 중 6번째 앨범으로, 뛰어난 기교와 고음 위주의 선율, 밝은 분위기로 플루트 특유의 화려한 음색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화려한 왈츠〉는 두 대의 플루트의 절묘한 화음의 극치를 들려주며, 〈사랑의 노래〉는 기교의 매력을 전한다. 네 대의 혼이만드는 풍부한 화음을 배경으로 연주하는 〈숲의 새〉는 동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환상적이다. 이외에도 베버의 〈마탄의 사수〉 등 오페라 환상곡도 포함되어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5311 [2CDs]

프로코피에프: 이반 뇌제 (영화음악 전곡)

마리나 프루덴스카야(알토), 알렉산드르 비노그라도프(베이스), 베를린 방송합창단,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프랑크 슈트로벨(지휘)

영화의 플롯을 오롯이 전달하는 120분의 음악 대장정

프로코피에프의 오라토리오 〈이반 뇌제〉는 본래 예이젠시테인의 영화 '이반 그로즈니'의 영화음악이었다. 예이젠시테인은 16세기 중반 '차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반 4세를 소재로 삼부작을 만들고자 했지만, 2부까지 제작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1부는 1944년 생전에 개봉되었지만, 2부는 감독과 작곡가가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 1958년이 되어서야 개봉되었다. 이 음반은 이 두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프로코피에프의 모든 음악을 모은 최초의 녹음으로, 약 2시간에 이르는 장대한 음악은 이 영화의 플롯을 오롯이 전달하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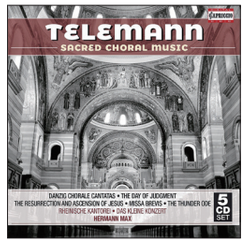
C5332 [2FOR1]

도흐나니: 겨울의 춤, 다섯 개의 유모레스크, 네 개의 광시곡 등

소피아 귤바다모바(피아노)

리스트적인 감각과 브람스적인 무게감에 더해진 도흐나니만의 환상적 세계

헝가리 출신의 에른스트 폰 도흐나니는 고국에서 음악을 공부한 후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나치를 피해 미국에서 여생을 보냈던 거장이었다. 그의 음악은 헝가리의 민속적인 요소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며, 리스트와 브람스의 큰 영향을 받아 유럽 후기낭만의 정서가 가득하며 매우 세련되어있다. 그의 피아노 작품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러한 그의 낭만적 음악세계를 충실히 전달한다. 피아노를 다루는 리스트적인 감각과 음악적 내용에 대한 브람스적인 무게감이 훌륭히 어우러져 있으며, 여기에 도흐나니만의 환상적 세계가 더해져있다.



C7215 [5CDs] – SPECIAL PRICE

텔레만: 종교음악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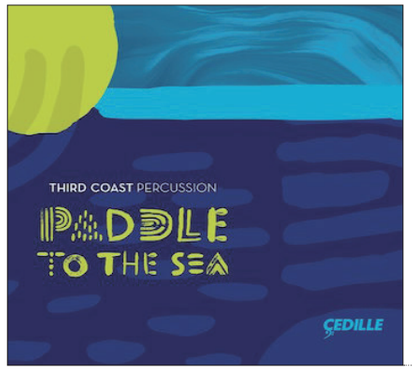
바바라 슐리크 & 베로니카 빈터(소프라노), 빌프리트 요헨스(테너), 클라우스 메르텐스(베이스), 라인 교회 합창단(합창), 다스 클라이네 콘체르트(연주), 헤르만 막스(지휘)

영감의 화수분, 텔레만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종교음악 작품

기악 작품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장르에 걸쳐 엄청난 수의 작품을 남겼던 텔레만의 면모는 종교음악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텔레만 스페셜리스트 헤르만 막스는 텔레만 작품 세계에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종교음악 작품들을 5장의 음반에 갈무리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전개, 편안하면서도 극적인 반향, 종교음악 특유의 경건한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록 작품들은 영감의 화수분, 텔레만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아이콘, '릴리와 코렐리를 능가하는 명예와 찬사'를 누렸다던 말을 실감할 수 있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EDILLE

CDR 9000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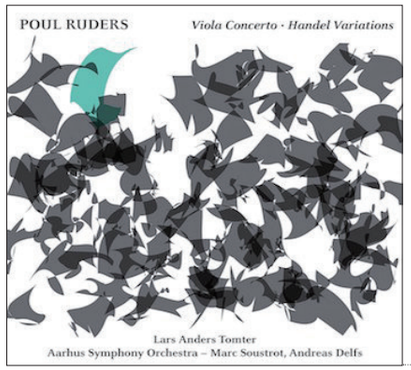
글래스: 아마존의 강 / 드러크먼: 물의 성질의 반영 등

서드 코스트 퍼커션

타악기의 아름다운 음색의 향연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넓은 표현력

'서드 코스트 퍼커션'은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미국 정상의 4인조 타악기 앙상블이다. 이들은 이 음반에 필립 글래스의 '아마존의 강'과 제이콥 드러크먼의 '물의 성질의 반영', 자작곡 '바다로 노 젓기' 등을 수록했다. 드러크먼은 물 자체를 탐구한다면, 글래스는 아마존의 주요 강들을, 서드 코스트 퍼커션은 바다로 확대된다. 글래스는 반복구조의 특징에 타악기의 음색이 가미되어 새로운 곡으로 탄생되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작곡가인 드러크먼은 영롱한 음색의 향연이 매우 아름답다. '바다로 노 젓기'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력에 감탄하게 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Dacapo www.dacapo-records.dk



8226149

루데르스: 비올라 협주곡, 헨델 변주곡

라르스 톰테르(비올라), 아르후스 심포니, 마르크 수스트로(지휘), 안드레아스 델프스(지휘)

다양한 제스쳐와 화려한 음색으로 펼치는 궁극의 음악적 향연

덴마크 작곡가 포울 루데르스는 오페라, 교향곡부터 실내악, 독주곡까지 다양한 규모의 작품들을 쓰고 있으며, 비발디, 헨델 등의 패러디부터 현대적인 스타일까지 양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 음반은 '비올라 협주곡'과 '헨델 변주곡'으로 이러한 그의 특징을 대변한다. '비올라 협주곡'은 전통적인 3악장 구성에 담은 현대적 감성과 탄탄한 음악적 시나리오로 한 편의 드라마를 펼친다. '헨델 변주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 중 '부레'를 제시한 후 무려 90개의 변주를 들려준다. 다양한 제스쳐와 화려한 음색으로 궁극의 음악적 향연으로 이끈다. **[세계 최초 녹음]**

Divox www.divox.com

CDX-21702

루스티하우저: 테네브레 / 기거: 페르트 엠 흐루

파울 기거(바이올린), 힐리어드 앙상블, 콜레기움 보칼레, 타블라터 콘체르트코어

공간 전체를 환상적이고 색다른 분위기로 만드는 파울 기거의 마력

파울 기거는 남다른 창조력으로 언제나 색다른 음악을 선보이는 선구적인 음악가이다. ECM의 음반들로 큰 명성을 얻은 그는, DIVOX의 이 음반으로 그 명성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스위스의 작곡가 루스티하우저의 〈테네브레〉를 첫 곡으로 수록했다. 그는 음악교사이자 작곡가, 지휘자로서, 공간의 환상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매력적인 사운드를 선보인다. 기거의 〈페르트 엠 흐루〉는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 등장하는 문구로, '영혼이 가득한 광명에서 나타나다'라는 의미이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기거의 자유로운 표현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Dynamic www.dynamic.it

CDS7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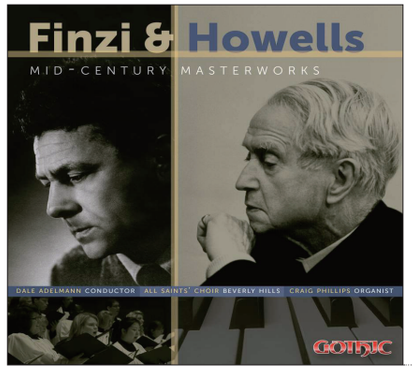
파가니니: 종교적인 서주와 종소리 론도, 소나타와 변주, 마법사, 고동 등

마리오 호센(바이올린), 비엔나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마틴 커쉬바움(지휘)

최고의 파가니니 전문가가 세계최초로 선보이는 파가니니의 숨은 명곡

최고의 파가니니 전문가인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오 호센은 그의 숨어있는 명곡을 찾아 이 음반에서 선보인다. '종교적인 서주와 종소리 론도'를 세계 최초로 녹음했으며, '마법사', '지나치게 슬프지 않게', '고동'의 초판 또한 세계최초 녹음이다. 이 작품들은 파가니니의 작품답게 최상의 기교를 요구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선율을 갖고 있어서 더없는 감상의 즐거움을 준다. '종교적인 서주와 종소리 론도'은 멀리서 수도사의 노래가 들리는 듯한 짧은 서주가 매우 특이하며 인상적이며, 론도 부분은 유명한 '라 캄파넬라'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49307

핀지: 보아라, 온전하신 최후의 희생제물 / 하웰스: 레퀴엠, 테 데움, 유빌라테 데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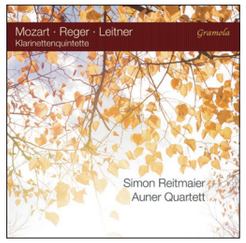
비버리 힐스 올 세인트 합창단, 데일 아델만(지휘), 크레이그 필립스(오르간)

오늘날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마력적인 영국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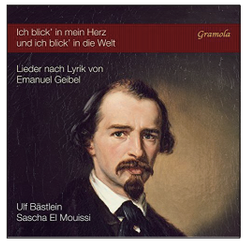
영국음악은 합창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세기의 합창작품들은 오늘날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이 음반이 소개하는 영국 합창음악의 거장 제럴드 핀지와 허버트 하웰스의 작품들은 그 중심에 있다. 핀지의 〈하나님께서 오르시다〉와 〈달고 거룩한 연회에 환영합니다〉, 〈보아라, 온전하신 최후의 희생제물〉은 그만의 감각적인 불협화음에 담긴 강렬한 호소를 접할 수 있다. 하웰스의 〈레퀴엠〉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신성한 멜로디와 평안한 화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은은한 진동을 일으킨다.

Gramola www.gramola.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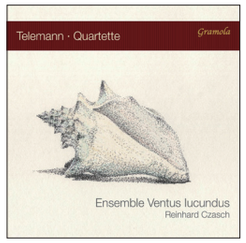
99142
바흐: 푸가의 기법과 즉흥의 기법
오스트리아 아트 강(연주)
"짜릿한 전율 – 바흐 작품의 현대적 변용과 무궁무진한 가능성
오스트리아 출신의 연주자 4명으로 구성된 오스트리안 아트 강은 바흐의 '푸가의 기법'을 '즉흥연주'로 선보인다. 연주자들은 클래식과 재즈 등 각자 활동하는 분야의 상이성을 '정교하고 치밀한' 즉흥의 향연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바흐의 헤안(전통의 현대적 변용). 바흐의 미완성 작품 '푸가의 비법'에 내재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음반으로 손색이 없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다채로운 인상은 짜릿한 전율을 안겨준다. 적극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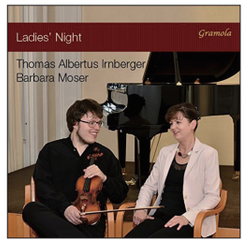
99123
모차르트 & 막스 레거 & 페르디난트 라이트너: 클라리넷 오중주
지몬 라이트마이너(클라리넷), 아우너 현악 사중주단(연주)
모차르트의 생동하는 영감을 재해석한 작품들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내는 놀라운 능력". 힐데스마이어가 지적한 모차르트의 생동하는 영감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바흐 못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본 음반에는 모차르트의 대표작, '클라리넷 오중주(K.581)'와 이를 재해석한 막스 레거와 라이트너의 클라리넷 오중주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메타모포시스(변형)'라는 부제가 붙은 라이트너의 작품은 막스 레거의 작품만큼이나 모차르트의 번뜩이는 영감이 살아 있어 놀라움을 안겨준다. 작품의 핵심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지몬 라이트마이너와 아우너 현악 사중주단의 산뜻한 연주가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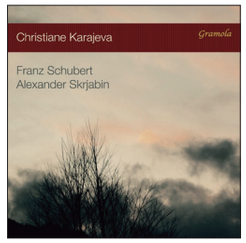
99136
에마누엘 가이벨의 시에 붙인 가곡
울프 베슈타인(베이스바리톤), 사샤 엘 무이시(피아노)
낭만문학에 깃들어있는 사랑과 격정, 그리고 애틋한 슬픔과 희망의 노래
에마누엘 가이벨은 19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다. 그는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와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의 궁정의 후원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문학가로 활동했다. 당대 뛰어난 작곡가들은 그의 시에 음악을 붙였으며, 오늘날 19세기 가곡의 작시로서 작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음반은 가이벨의 시에 붙인 멘델스존과 슈만, 브루크너, 브람스, 그리그, 볼프, 레거 등 중요한 낭만음악 작곡가들의 노래를 수록했다. 베슈타인은 낭만문학과 이 음악에 깃들어있는 사랑과 격정, 그리고 애틋한 슬픔과 희망의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99152
텔레만: 사중주 작품집
벤투스 유쿤두스 앙상블(연주)
자작나무 숲을 타고 다가오는 산뜻한 봄내음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의 플루티스트인 리하르트 차쉬가 2009년 결성한 벤투스 유군투스 앙상블은 첼레만의 자유로운 열정을 그들의 첫 음반에 담았다. 《식탁음악》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사중주 G장조(TWV 43:G2)' 등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연주자들은 산뜻하고 고아한 연주로 작곡 당시 함부르크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텔레만의 창조적인 영감을 드러낸다. 자작나무 숲 사이로 다가오는 봄내음. 통주저음을 타고 흐르는 목관의 온기어린 반향은 '산뜻한 바람(혹은 유쾌한 입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칭(벤투스 유군투스)을 닮았다.



99153
여성 작곡가의 밤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바르바라 모저(피아노)
유럽 여러 나라 여성 작곡가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선율
낭만시대까지도 여성 작곡가는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러 여성 작곡가는 음악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음반에서 이 역사적 시기에 활동했던 이름과 그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이중 유일한 고전시대 작곡가인 파라디스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8번'의 주인공으로서 오페라, 칸타타, 관현악곡을 발표했던 인물이며, 에이미 비치는 '보스턴 6인조'의 일원으로서 미국 낭만음악이 거장으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르보, 비아르도, 륀트겐, 페야체비치 등 유럽 여러 나라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의 작품들이 가득하다.



99158
스크리아빈: 전주곡(Op.11) &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8번(D.894)
크리스티안 카라예바(피아노)
연주자 음악 여정을 가름하는 두 작품
빈 출신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카라예바는 그녀의 음악 인생을 가름하는 도시로 빈과 모스크바를 꼽는다. 본 음반은 두 도시에서 펼쳐진 그녀의 음악 여정을 담고 있다. '명징한 연주'가 인상적인 스크리아빈의 '전주곡'은 레프 나우모프와의 추억을, 음악과 함께 해 온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D.894)은 빌헬름 켐프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다. 기쁨과 슬픔, 고독과 위안의 여정. 연주자의 분신인 음악과의 대화는 겨울을 보듬는 봄의 손길마냥 고즈넉한 반향 속에 메아리치고 있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42
비아나 다 모타: 환상소곡, 뵈클린에 의한 두 개의 피아노 소곡, 포르투갈 랩소디
조앙 코스타 페레이라(피아노)
쇼팽의 피아니즘과 리스트의 낭만성, 그리고 포르투갈의 산뜻한 정서의 결합
비아나 다 모타는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상투메 프린시페 출신으로, 어린 시절 포르투갈로 이주하여 후기 낭만시대 포르투갈의 중요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에서 리스트와 한스 폰 뷜로로부터 공부했으며, 부소니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의 피아노 음악은 쇼팽의 피아니즘을 바탕으로 리스트의 낭만성을 가득 담고 있으며, 여기에 드뷔시의 인상주의가 약간 가미되어있다. 초기작인 〈환상소곡〉은 슈만의 영향도 보이며, 〈다섯 개의 포르투갈 랩소디〉에서는 '파두' 등 포르투갈의 이미지로 산뜻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46

프라도: 카르타스 셀레스테스 9, 10, 12, 14번

알레이손 스코펠(피아노)

피아노로 펼쳐지는 별들의 환상적인 리듬과 사운드

알메이다 프라도는 브라질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과르네리, 불랑제, 메시앙, 리게티, 루카스 포스 등 최고의 거장들로부터 작곡을 공부했다. 별자리와 별들을 주제로 하는 열여덟 곡의 '천체 목록' 시리즈는 그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신비한 화음과 독특한 공명으로 환상적인 소리 공간을 만든다. 이 음반에는 9번은 브라질의 사계절 하늘과 백조자리, 오리온자리, 처녀자리, 뱀주인자리를, 10번은 비둘기자리, 페가수스자리, 구상성단, 이리자리, 불사조자리, 12번은 카시오페이아자리, 14번은 마차부자리와 용골자리 등 별들의 노래를 들려준다.

GP773

앤서니 버저스: 신경질 부리는 전자 키보드 곡집

스테판 긴스버그(피아노)

바흐의 모방부터 낭만적 선율, 현대적 화음, 재즈 스타일까지 폭넓은 스펙트럼

앤서니 버저스는 영국의 작곡가이자 저명한 저술가이며, 소설가이다. 그는 1985년 바흐 탄생 300주년을 맞아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에 대한 오마주로 〈신경질 부리는 전자 키보드 곡집〉을 작곡했다. 이 곡은 바흐의 곡처럼 각 조성대로 24개의 전주곡과 24개의 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흐의 모방부터 낭만적 선율, 현대적 화음, 재즈 스타일이 가미된 음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스테판 긴스버그는 파울 바두라-스코다의 제자로서, 오늘날의 음악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정상급 피아니스트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35

코젤루흐: 건반 소나타 전곡 11집 (42~46번)

켐프 잉글리시(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작곡가 생전에 제작된 악기로 재현하는 고전시대의 풍류

체코 출신의 레오폴트 코젤루흐는 빈에서 모차르트와 견주었을 만큼 큰 명성을 얻었다. 코젤루흐 건반 소나타 전곡 11집의 수록곡은 42~46번으로, 번호 순서와는 달리 44~46번은 20대 중후반이었던 1770년대에 작곡되었으며, 42, 43번은 19세기 초 만년의 작품이다. 44~46번은 당시 유행했던 로코코 스타일의 우아한 기품이 있으며 1785년에 제작된 하프시코드로 연주한다. 42, 43번은 1815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를 사용하는데, 특히 43번의 2악장은 종이를 놓아 윙윙 소리를 내는 바순 스톱 기능을 가진 무릎 레버를 사용하여 독특한 효과를 낸다. **[세계 최초 녹음]**

GP762

사티: 별들의 아들들, 젊은 아가씨의 명예로 노르망디의 기사들이 베푸는 축제

니콜라스 호르바트(피아노)

사티 특유의 간단한 선율과 바그너 풍의 두터운 화음이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

에릭 사티는 평생 궁핍했지만 기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심지어 종교 활동도 남달랐다. 작가인 조세팽 팔라댕이 '장미†십자회'를 창립할 때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것이다. 팔라댕의 대본에 붙인 〈별들의 아들들〉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미†십자회'의 행사에서 연주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곡은 〈짐노페디〉와 같은 단순한 음악을 작곡하던 사티가 바그너에 관심을 갖던 때로, 특유의 간단한 선율과 두터운 화음의 여운이 어우러져있다. 살라베르 2016년판의 첫 녹음이다. 〈노르망디의 기사들의 축제〉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화음의 연속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67

베르사: 피아노 작품 전곡 1집

고란 필리펙(피아노)

고전과 쇼팽, 리스트,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토속적 제스쳐가 어우러진 근대의 거장

블라고예 베르사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크로아티아의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에는 동유럽 특유의 토속적 제스쳐가 들어있지만, 크로아티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고전 스타일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쇼팽을 연상시키는 멜랑콜리와 리스트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열정이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26세 초기작인 〈피아노 소나타 2번〉은 이러한 스타일의 완숙한 경지를 들려주며, 희망찬 젊은 날의 초상이 아로새겨져 있다. 반면에 53세의 작품인 〈옛 길에서〉는 그의 특징이 여전하면서도 남다른 거장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IBS Classical

www.IBS Classical.es

IBS–13201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스페인 국립 청소년 관현악단, 조지 펠리바니안(지휘)

우리시대의 음악적 감수성으로 표현된 창조적 음악가의 새로운 시각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은 내면적인 성찰보다는 당시 격동의 상황에 대한 보고이다. 긍정적인 주제와 물러섬 없는 진행 등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냉전의 어두움이 걷힌 지도 수십년이 지난 현재 그의 음악을 대하는 방식은 보다 개성적이며 다양해지는 것이 옳다. 프랑스 출신의 미국 지휘자인 펠리바니안과 스페인 국립 청소년 관현악단 또한 이 시대적 작품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은 분명 우리시대의 음악적 감수성이며, 이 연주는 창조적 음악가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IBS162017

오늘날 스페인의 바이올린 음악

알레한드르 부스타만테(바이올린)

스페인 특유의 선명한 멜로디와 춤을 연상시키는 감각적 리듬의 성찬

스페인 음악이라면 기타와 플라멩코가 떠오를 정도로 유럽 클래식 음악에서 스페인은 동떨어져 보이지만, 오늘날 이베리아의 음악예술은 전성기이다. 부스타만테는 마드리드와 살라만카에서 가르치고 있는 스페인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는 스페인 음악의 상징적인 존재인 로돌포 알프테르부터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헤수스 토레스, 그리고 1983년생 마리아 호세 아레나스까지 8명의 스페인 작곡가의 바이올린 예술을 집약적으로 들려준다. 스페인 특유의 선명한 멜로디와 춤을 연상시키는 감각적 리듬이 가득한 풍성한 음악적 성찬이다.

J.S.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B617

바흐: 칸타타 21집

장크트 갈렌 바흐 재단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 갈렌 바흐 재단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신의 가호와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순간

루돌프 루츠와 장크트 갈렌 바흐재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하는 바흐 칸타타 21집에는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들 2곡('내 주는 강한 성이요, BWV.80',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방패이시니라, BWV.79')과 더불어 '꾸밈없는 마음(BWV.24)'이 수록되었다. 순전한 믿음, 신의 가호와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순간을 담고 있는 작품들의 면모는 '개혁'을 뜻하는 사자성어 '해현경장(解弦更張)'을 떠오르게 한다. 소박하고 고즈넉하지만 확신 가득한 연주는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으로 비롯된 종교개혁의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부족함 없어 보인다.

KKV

www.kkv.no

FXCD 402

Susanne Lundeng / Et Steg Ut(A Step Out)

수산네 룬뎅(바이올린), 엥게고르 현악 4중주

현악 4중주와 함께 깊이를 더한 수산네 룬뎅의 음악세계

북구의 아름다운 서정을 바이올린 선율에 담으며 세계의 찬사를 받아 온 수산네 룬뎅의 최근작품. 자신의 바이올린과 현악 4중주와의 협연이라는 특별한 음악적 콘셉트 속에 노르웨이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한 영감 가득한 선율들을 담고 있다. 우수 어린 선율 속에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수산네 룬뎅의 노래가 담긴 'Verdensveier(세계의 길)'을 비롯해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곡들을 만날 수 있으며, 오슬로의 한 교회에서 녹음된 음질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선명한 퀄리티로 살아 있는 스트링의 어쿠스틱과 함께 수산네 룬뎅이 추구하는 깊은 음악세계에 오롯이 빠져들 수 있게 한다.

FXCD 410

Kristin Fjellseth / Keeper of the Keys

순수와 환상이 교차하는 북유럽 포크의 감성

노르웨이 출신의 크리스틴 피옐세트는 북유럽 여러 무대에서 오랜 세월 동안 활동해 온 베테랑 싱어송라이터이다. 모던 포크음악의 담백함에 뿌리를 두면서 일렉트릭 사운드의 다양한 시도를 곁들이기도 하는 크리스틴 피옐세트의 노래들은 브리티쉬 포크의 순수함과 북유럽 특유의 몽환이 교차하는 독특한 개성을 보여 준다. 'Dark Clouds', 'Shine', 'Water Colored Melodies' 등 크리스틴 피옐세트의 쓸쓸함이 깃든 음색과 어쿠스틱 기타가 조화를 이루는 곡들이 잔잔한 감성을 전하며, 한 편의 북유럽 신화를 들려주는 듯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Mermaids'도 빼놓을 수 없는 트랙이다.

FXCD 411

Lisa Dillan & Asbjørn Lerheim / Change of Habit

리사 딜란(보컬), 부게 베셀토프트(피아노), 토드 구스타브센(피아노) 外

북유럽 재즈의 정갈함으로 해석한 엘비스 프레슬리

노르웨이 재즈씬의 주목받는 보컬리스트 리사 딜란과 기타리스트 아스뵈른 레르헤임의 엘비스 프레슬리 헌정 두 번째 작품. 전작 [Love Me Tender]에서 엘비스와 함께 했던 노장 세션맨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에 반해 이번 앨범에는 북유럽 일렉트로 재즈의 명인들이 참여해 엘비스의 명곡들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해석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엘비스 음악 고유의 로큰롤과 팝 발라드의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리사 딜란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의 오리지널리티와 북유럽 재즈의 정갈함으로 맑게 물들인 뛰어난 트랙들을 담고 있다. 기타와 피아노의 투명한 연주에 리사 딜란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더해진 'Any Day Now'는 음반의 백미!

FXCD 419 **[2CDs]**

오슬로 대성당 합창단 / Livet Vant(Life Victorious)

오슬로 대성당 합창단, 테르예 크밤(지휘) 外

부활절, 예수 승천일, 성령 강림절을 위한 성가

노르웨이의 명가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의 밀레니엄 성가 시리즈 중의 한 편으로 부활절과 예수 승천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위한 성가를 담고 있는 음반이다. 잘 알려진 성가들과 함께 노르웨이 민속음악의 선율을 차용한 곡, 루터교의 성가, 현대에 작곡된 곡들까지 포함된 총 27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르간 주자이자 오슬로의 합창음악을 이끌어 온 테르예 크밤이 지휘하는 오슬로 대성당 합창단은 오르간의 장중한 연주를 배경으로 아름답고 깊은 울림이 담긴 하모니를 만들어 내며 성스러운 감동을 전한다.

FXCD 420

Andreas Utnem / Night Hymns

북유럽 성가에 대한 재즈 피아니스트의 명상

안드레아스 우트넴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국내 재즈팬들에게는 색소폰 주자 트릭베 세임과의 연주를 통해 알려진 인물이다. 오슬로의 한 교회에서 하우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하는 그는 이번 앨범에서 잘 알려진 북유럽 성가들을 솔로 연주로 담아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스웨덴의 유명한 성가 'Bred Dina Vida Vingar(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를 비롯해 'Påskemorgen Slukker Sorgen(부활절 아침)', 'Den Blomstertid nå Kommer(꽃의 시절이 다가오네)' 등을 차분한 즉흥연주로 풀어내고 있다. 종교적인 색채나 재즈적인 터치보다는 명상적이고 평화로운 뉴에이지 풍의 해석이 편안함을 선사한다.

FXCD 421

Ida Maria / Scandalize My Name

여성 록커가 전하는 흑인 영가의 새로운 감동

영화 "Spy"의 삽입곡 'Cold Blooded'와 같은 박력 넘치는 매력의 록 넘버로 알려진 노르웨이의 여성 록커 이다 마리아가 명문 레이블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에서 발표한 이색적인 앨범. 미국 흑인 영가의 명곡들이 이다 마리아의 음악적 카리스마와 개성 있는 목소리로 담겨 있다. 흑인 영가가 지닌 전통적인 찬송가의 분위기를 빼고 기타와 건반, 퍼커션이 함께 하는 담백한 연주를 배경으로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이다 마리아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톱 연주가 가미 된 곡들이 이색적인 느낌을 더 하며, 편곡의 묘미가 살아 있는 가운데 이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빛나는 'Fix Me Jesus', 'Deep River', 'Down to the River'등이 인상적인 감동을 전한다.

FXCD 428

Solfrid Molland / Forvandling

유럽음악 전통의 현대적 재구성,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

솔프리드 몰란드는 유럽의 다양한 음악전통을 자신의 음악세계에서 표현하는 아티스트다. 특히 집시 음악가들과 버스킹 여행을 했을 정도로 집시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낮고 깊은 음색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한다. 트럼펫, 피들, 기타, 베이스가 함께 한 몰입도 높은 연주와 솔프리드 몰란드의 목소리에 담긴 농도 짙은 정서가 어느 장르에도 국한 시킬 수 없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아랑후에스 협주곡' 2악장의 선율을 빌려 온 인트로와 샹송 명곡 'Ne Me Quitte Pas'를 떠오르게 하는 보컬라인을 지닌 첫 곡을 시작으로 'Brist(단점)', 'Ørnen(독수리)', 'Forvandling(변화)' 등 인상적인 곡들로 가득 차 있다. 북유럽의 서정에 매력을 느끼는 월드뮤직 애호가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작품!

FXCD 430

Svalbard Kirkes Trio / Det Blå Loftet(The Blue Loft)

스발바르에서 전하는 흥미로운 뉘앙스의 노래들

북극해와 노르웨이해 사이에 있는 노르웨이령의 군도 스발바르 제도에서 만들어진 이 앨범은 특별한 의미와 흥미로운 음악을 담고 있다. 앨범 제목 Det Blå Loftet(푸른 천장)은 북극을 상징하며, 스발바르 지역의 사제인 레이프 마네 헬게센이 리드하는 보컬 팀 Svalbard Kirkes Trio(스발바르 교회 트리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문제를 노래하고 있다. 이들의 순박하고 꾸밈없는 선율의 노래 뒤로 해먼드 오르간, 트럼펫, 튜바, 기타, 밴조, 퍼커션 등 독특한 편성의 연주가 전개 된다. 'Isen Smelter(얼음이 녹고 있어요)', 'På Blå Loftet(푸른 천장에서)' 등은 곡에 담긴 메시지와 함께 음악적 흥미로움을 자극한다.

FXCD 432

Solveig Slettahjell / Poetisk Tale(Poetic Speech)

물기 머금은 목소리와 북유럽 풍광을 지닌 사운드의 아름다운 조화

비음 섞인 촉촉한 미성으로 풍부한 감성을 담아 노래하는 노르웨이의 재즈 디바 솔베이 슬레타옐의 2016년 앨범.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세 명의 노르웨이 작가가 쓴 시를 가사로 한 곡들을 노래하고 있다. 북유럽 일렉트로 재즈씬에서 유니크한 연주로 각광받고 있는 기타리스트 에이빈 오르셋을 비롯한 재즈 뮤지션들과 베르타보 현악 4중주단이 참여한 독특한 편성으로 마치 북유럽의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풍광을 대하는 듯한 매우 특별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한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첫 트랙 'Ord i en våkennatt(촉촉한 밤의 말들)'을 시작으로 물기를 머금은 솔베이 슬레타옐의 목소리가 마지막 트랙까지 깊은 매력을 전한다.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음악적 내용의 탁월함이 빛나는 추천 앨범!

FXCD 433

Bjørn Anders Hermundstad / Syng Min Sorg og Gråt Min Glede

유작 앨범에 담은 인생에 대한 진솔한 고백

뮤직 & 코미디 듀오의 멤버로 활동하다 2016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노르웨이의 가수 비외른 안데르스 헤르문츠타의 유작 앨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완성해 낸 이 음반에는 그의 많은 음악 친구들이 참여했으며,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했다고 한다. 듀오 활동 시절의 유머러스한 음악과 달리 비외른 안데르스 헤르문츠타는 이 음반에서 인생의 지혜와 슬픔, 이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진지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Naken(벌거벗은)', 'La Lyset Skinne på Deg(그대에게 빛을)' 등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의 담담한 심정이 느껴지며, 'Avskjed(안녕히)'는 쓸쓸함이 깃든 앨범의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담고 있다.

FXCD 434

Marthe Wang / Ut Og Se Noe Annet

노르웨이 팝 최고의 기대주가 선보이는 풋풋한 매력

2017년 노르웨이 팝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마르테 방의 데뷔 앨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던 싱글 곡 'Til Deg(너를 위해)'를 비롯해 자신의 매력을 십분 발휘한 트랙들을 담아 같은 해 노르웨이의 그래미 어워즈로 불리는 Spellemannprisen의 포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어쿠스틱하고 모던한 포크 스타일이 중심을 이루는 풋풋한 분위기 속에 트럼펫이 연출하는 가벼운 재즈 터치가 앨범의 분위기에 품격을 더한다. 마르테 방의 친근하고 상큼한 스타일이 마음을 끄는 'Følg meg(날 따라와)', 'Ukjent Venn(이름모를 친구)', 'Din sang(너의 노래)' 등 높은 음악성을 겸비한 북유럽 팝의 면모를 드러내는 매력적인 음반이다.

FXCD 436

Vrang / Sæter Soul

석 대의 피들로 엮어 낸 아름다운 북구의 선율

세 명의 피들 주자로 이루어진 노르웨이의 포크 그룹 브랑. 이들은 노르웨이의 전통 피들인 하르당에르 피들(Hardanger Fiddle) 연주자들이다. 하르당에르 피들은 노르웨이 남서쪽에서 써오던 악기로 일반적인 피들과는 달리 넉 줄의 공명현을 포함한 8현 악기로 연주법이나 음색도 약간 다르다. 이외에도 브랑의 멤버들은 리라, 만돌린 등을 함께 연주하며 첼로와 퍼커션 주자를 초대해 단정하고도 야생화 같은 아름다움이 담긴 트래디셔널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여성 멤버의 맑은 보컬이 함께 하는 트랙에서는 북유럽의 동화를 들려주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전하기도 한다. 전통악기에 관심을 가진 월드뮤직 애호가들의 추천음반!

FXCD 441

Øyvind Kristiansen / Messe under Regnbuen-Jakob Messe V

현대음악의 다양한 요소가 녹아든 새로운 표현의 미사곡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레이블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에서 발표한 이색적인 미사곡. Messe under Regnbuen(Mass under the Rainbow)는 레이블의 사장이자 프로듀서인 에릭 힐레스타의 텍스트와 작곡가 외이빈 크리스티안센의 작품으로 노르웨이 교회의 새로운 예배 전통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어온 "야곱 미사곡"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기존 미사곡의 엄숙하고 종교적인 음악 내용과는 달리 재즈를 비롯한 현대음악의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다. 외이빈 크리스티안센의 키보드를 중심으로 한 연주를 배경으로 많은 가수들의 솔로와 합창이 맑고 따뜻한 분위기의 선율을 노래하는 새로운 표현의 미사곡이다.

FXCD 442

Randi Tytingvåg Trio / Roots & Wings

사랑스러운 개성을 지닌 매력적인 노르웨이 포크음악

노르웨이의 개성 있는 싱어송라이터 란디 티팅보이를 중심으로 한 이 트리오의 음악은 맑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올드 패셔너블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밴조와 기타가 중심을 이루는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곡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란디 티팅보이의 목소리는 때론 풋풋하고 담백한 매력으로, 때론 농도 짙은 정서가 담긴 매혹을 전하며 귀를 즐겁게 한다. 일반적인 피들과 달리 넉 줄의 공명현을 포함해 여덟 개의 현을 가진 노르웨이의 전통악기 하르당에르 피들(Hardanger Fiddle) 연주자가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즈, 블루스, 포크, 컨추리 등 다양한 음악요소들을 깔끔하게 녹여내 감상의 맛을 더한다. 포크 마니아들의 추천음반!

FXCD 274

Juleglø̂ggen (크리스마스 뱅쇼)

프로데 알내스(기타), 아릴드 안데르센(베이스), 스티안 카르스텐센(아코디언)

노르웨이 거장들이 들려주는 낭만적인 재즈 크리스마스

북유럽 재즈를 이끌어 온 최고의 베이스 주자 아릴드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기타리스트 프로데 알내스와 아코디언 주자 스티안 카르스텐센으로 구성된 이 독특한 트리오는 이미 [Sommerbrisen], [Høstsløv] 등의 앨범으로 북구의 서정을 아름답게 전한 바 있다. 이 음반에 담긴 크리스마스 음악들은 앨범의 제목 크리스마스 뱅쇼처럼 온기 가득한 낭만을 담고 있다. 아릴드 안데르센의 따뜻하고도 묵직한 베이스 라인을 중심으로 아코디언과 기타가 만들어가는 친근한 선율들은 퓨전 재즈나 하드 밥 재즈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음악들과는 완전히 다른 맛을 선사한다.

FXCD 438

Ljom / Stundom

독특한 뉘앙스를 지닌 노르웨이의 포크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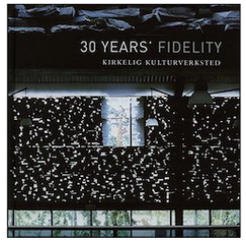
리욤은 노르웨이 중부 스노사(Snåsa) 지방 출신의 5인조 포크 그룹이다. 명문 레이블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에서 발표하는 이들의 두 번째 앨범은 세 명의 스노사 출신 음악가와 시인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그들의 시와 곡을 리욤의 개성으로 해석한 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뛰어난 가창력과 들꽃 같은 감성을 겸비한 여성 보컬을 중심으로 기타, 클라리넷, 첼로, 아코디언 등을 연주하며 독특한 뉘앙스의 포크 스타일을 보여 준다. 'Haust(가을)', 'Voggevise(자장가)' 등 쓸쓸한 감성을 지닌 곡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개성 있는 포크록 스타일의 'Einsleg i Vill Skog(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숲)', 'Juninatt(6월의 밤)'등이 리욤만의 매력을 전한다.

FXCD 439

Magnus Grønneberg / Tårnhøye Bølger(Towering Waves)

록 발라드로 재해석한 노르웨이 성가

노르웨이의 인기 록 밴드 CC Cowboys의 보컬리스트 망누스 그뢰네베리가 노래한 노르웨이 성가를 담은 앨범이다. 10개의 수록곡은 모두 노르웨이의 클래식 작곡가이자 교회 음악가인 에일 호블란(1924–2013)이 작곡한 잘 알려진 성가다. 록에서부터 월드뮤직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여온 노르웨이의 거장 블루스 기타리스트 크누트 레이에르스루드가 참여한 밴드의 연주로 블루스 필링이 가미된 록 발라드 스타일의 새로운 해석을 선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교회 음악가의 작품과 록 스타의 만남을 통해 북유럽 음악의 흥미로운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FXCD 285

Kirkelig Kulturverksted 30주년 기념앨범

카리 브렘네스, 시그바르트 닥슬란, 스크룩 합창단 外

북유럽의 정서를 담아낸 장인정신,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

1974년 설립해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전해 온 북유럽 최고의 독립 레이블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의 30주년 기념 음반! 힐켈리흐 쿨투르베르크스테는 북유럽 트래디셔널 포크부터 재즈, 클래식, 팝, 그리고 독특한 문화권의 음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아 왔다. 레코딩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통해 표현하는 하이 퀄리티의 음질과 북구의 정서를 표현하는 뛰어난 음악성을 담보한 프로듀싱, 여기에 화려함 보다는 음악에 대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장인정신까지 겸비한 레이블로 찬사를 받아 왔다. 카리 브렘네스, 시그바르트 닥슬란, 아릴드 안데르센, 합창단 스크룩 등 레이블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트랙을 담고 있다.

FXCD 425

Maria Solheim & Silje Sirnes Winje / Kaptein Snabelbæsj og Hjertetyven

어른들을 위한 개성만점의 어린이 음악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마리아 솔헤임과 실예 시르네스 빈예가 함께 한 개성만점의 앨범. 어린이를 위한 음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음악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추구했다는 실예 시르네스 빈예의 말처럼 60년대 팝부터 컨템포러리 팝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에 어린이를 위한 테마를 섞어 흥미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어린이 기부를 위해 발표했던 싱글 'Stjerna(별)'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다운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아 앨범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여주기도 한다.

LPO www.lpo.org.uk

LPO–0102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알도 치콜리니(피아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닉 네제–세겡(지휘)

피아노의 세계적인 거장 치콜리니의 남다른 무게감과 서정적 아름다움의 극치

피아노의 세계적인 거장 알도 치콜리니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녹음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은 모차르트의 몇 되지 않는 단조 작품으로, 낭만적 감수성을 깊이 담고 있는 명곡이다. 〈돈 지오바니〉를 연상시키는 악센트와 물러설 줄 모르는 선율은 남다른 비장미를 담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러시아의 종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품으로, 치콜리니의 남다른 무게감이 피아노의 저음을 더욱 강렬하게 들리게 한다. 이에 대조되는 서정적인 멜로디는 더없이 아름답다.

LPO–0103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지휘)

전쟁의 참상을 처절하게 표현한 매우 보기 드문 연주

나치 군대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침공했을 때 결사적으로 방어했던 이 전투에서, 쇼스타코비치는 소방대원으로서 참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 차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초유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서유럽은 전쟁에 대해 소설 속의 혹은 게임 속의 환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쿠르트 마주어와, 쇼스타코비치의 전쟁교향곡인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를 소련 밖에서 초연한 LPO는 늦추지 않는 템포로 긴박함을 극도로 끌어올리며 전쟁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원곡의 메시지를 처절하게 드러내는 연주는 찾아보기 어렵다.

Naxos www.naxos.com

★ 2018년 1월 추천음반 – 바이올린 연주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습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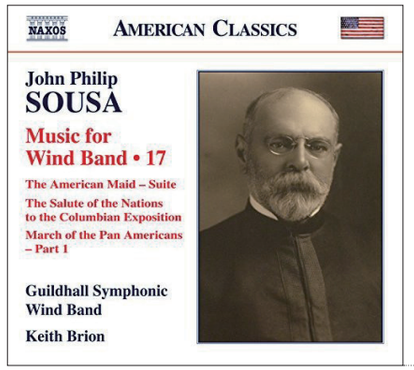
8573801

프리드리히 자이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1–5번

정혜진(바이올린), 워렌 리(피아노)

악기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별한 교감

독주자와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약했던 독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프리드리히 자이츠는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음반에는 자이츠가 1901년 이전에 작곡한 그의 대표작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1–5번)'이 수록되어 있다. 자유롭고 따뜻하며 순박한 감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슈베르트의 작품('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8.573579)에 이어 정혜진과 워렌 리는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추었다. 여유롭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연주자들의 교감은 악기의 '기본'을 담고 있는 작품의 본령을 아우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을 듯하다.



8559811

수자: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 17집

길드홀 심포닉 윈드 밴드(연주), 케이스 브리온(지휘)

낭만 그리고 열정과 기백을 갖춘 수자의 작품들

'행진곡의 왕' 수자는 행진곡 이외에도 '오페레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수자의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을 조명하는 시리즈 17번째 음반에는 관악의 활기와 윤기 머금은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수자의 오페레타 두 작품('어메리칸 메이드' & '밀수업자들')이 수록되어 눈길을 끈다. 금주법 시행기 시대의 모순을 풍자한 'A Mingling of the Wets and the Drys'의 재치에 이어 '시카고 만국박람회, 국기에 대한 경례'와 '판 아메리칸 행진곡'은 수자의 본령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낭만 그리고 열정과 기백을 갖춘 수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 '판 아메리칸 행진곡'(7–19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59819

평화와 찬양을 위한 노래들

뉴욕 비르투오소 싱어즈 & 퀸스 컬리지 합창단 & 보컬 앙상블(합창), 존 베임스 & 해럴드 로젠바움 & 브라이트 셩(지휘)

영원한 평화를 향한 오롯한 외침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퀸즈 칼리지 아론 코플랜드음대(Aaron Copland School of Music) 출신 작곡가 혹은 교수였던 이들이 학교의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선보인 작품들과 연주가 수록되어 있는 음반이다. 히브리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중국어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찬양(3개 작품)과 평화(1개 작품)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있거나 평안 또는 평화를 상기시키는 분위기(11개 작품)를 띠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노래하고 있지만 영원한 평화를 향한 오롯한 외침만큼은 언어를 뛰어넘어 감상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마땅히 찬양해야 할 주님)'(1번 트랙), '칭하이성 민요 2곡'(5–6번 트랙)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32–34 [3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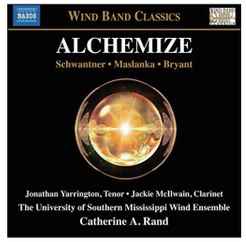
윌리엄 볼컴: 피아노 독주 작품집

크리스토퍼 파인하우스 · 에스텔라 올레프스키 · 우슬라 오펜스 · 크리스코퍼 데일러(피아노)

윌리엄 볼컴 작품 세계의 축약판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 윌리엄 볼컴의 피아노 독주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1988년 작곡가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대표작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연습곡'을 비롯해 3장의 음반에 걸쳐 수록된 피아노 작품들은 1950년대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래그타임과 아방가르드적인 색채를 비롯해 찰스 아이브스의 맥을 잇는 윌리엄 볼콤의 작품 세계를 축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나누어 연주하는 방대한 작품들은 2개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모두 세계 최초 녹음이라 더욱 뜻 깊다.

***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연습곡'(cd2, 1–12번 트랙), '브루클린 다지(The Brooklyn Dodge, cd3 7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87

연금술 –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집

재키 매킬웨인(클라리넷), 조너선 예링턴(테너), 서던 미시시피 대학 윈드 앙상블(연주), 캐서린 A. 랜드(지휘)

데이비드 마스란카 추모 헌정 음반

미국의 현대 음악 그 중에서도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무한의 잔영(Aftertones of Infinity)》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조지프 슈원트너는 《광도(Luminosity, 항성의 밝기 정도를 표시하는 등급)》(2015년 작품)에서 빛의 밝기에 따른 인상을 소리로 드러내고 있으며, 데이비드 마스란카는 《호산나》(2015년 작품)에서 바흐의 작품을 바탕으로 미니멀리즘을 비롯한 다양한 작곡 기법을 융합하고 있다. 스티븐 브라이언트가 그의 연작《고요한 공간에서의 연금술》(2000년도 작품) 중 '모든 내 꿈의 논리'에서 보여주는 관악과 타악의 정묘한 울림은 음반의 제목인 '연금술'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본 음반은 올해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마스란카를 추모하는 뜻을 담고 있다.

8573618

나르뷰타이테: 보트 &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 강둑–강–심포니

요비타 바스케비치우테(메조 소프라노), 토마스 파빌리오니스(테너), 리투아니아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크리스토퍼 린든–지(지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의식의 흐름, 영원의 시간

'철의 장막' 뒤편 침묵의 저항 속에서 형성된 내적 자아에 대한 탐구를 작품 세계에 투영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현대음악 작곡가 나르뷰타이테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그녀는 내면의 흐름을 배의 다양한 이미지에 빗댄 '보트(La barca)'를 필두로 릴케의 〈기수 크리스토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 '영원의 시간'을 주제로 작곡한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에 이어 그녀의 네 번째 교향곡 '강둑–강–심포니'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정신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신비롭고 명상적인 분위기 속에 담아내고 있다. 순간이 영원이 되는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고 싶다면 감상을 추천한다.

***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2번 트랙), '강둑–강–심포니'(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45

생상스: 교향시

릴 국립 관현악단(연주), 윤 메르클(지휘)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생동감, 산뜻한 서정미

낙소스 레이블의 화제작 소스트로와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생상스 관현악 작품 시리즈'만큼이나 기대감을 높이는 음반이 출시되었다. 윤 메르클과 릴 국립 관현악단은 너무나도 유명한 '죽음의 무도'와 프랑스 작곡가 최초의 교향시 '옴팔레의 물레' 등 생상스의 또 다른 역작인 '교향시' 전곡을 음반에 담았다. '바그너 서곡'(8.573414)의 산뜻하고 풋풋한 색채, '드뷔시 시리즈'(8.509002)의 디테일,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와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서 보여준 윤기 흐르는 박력과 날렵한 제스처를 더한 윤 메르클의 해석은 생동감 넘치는 서정미를 내뿜고 있다. 적극 추천한다.

8573779

알베니즈: 피아노 작품 8집

미구엘 앙헬 R. 라이즈(피아노)

스페인 민속음악과 쇼팽의 색채가 도드라지는 알베니즈 초기 피아노 작품들

알베니즈 피아노 작품 8집에는 알베니즈의 초기작, 그 중에서도 1884년에서부터 1887년 사이에 완성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작품들은 스페인 민속음악의 요소에 살롱 음악의 분위기, 쇼팽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뉴에트 g단조'(5번 트랙), '마요르카의 뱃노래'(6번 트랙), '카탈루냐의 뱃노래'(9번 트랙)의 서정은 쇼팽과 닮아 있으며, '스페인 광시곡'(12번 트랙, 피아노 버전)의 마지막 대목은 그라나도스를 연상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스페인 음악 스페셜리스트인 미구엘 앙헬 R. 라이즈의 깔끔한 연주 역시 인상적이다.

8573782

지몬 마이어: 미제레레 g단조 &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위한 리타니아(연송, 連頌)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 & 윤재원(소프라노), 테레자 홀츠하우저(알토), 로베르트 젤리어 & 마르쿠스 쉐퍼(테너), 비르길 미쇼크 & 옌스 하만(베이스), 지몬 마이어 합창단 & 바이에른 주립 오페라극장 합창단(합창),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 콘체르토 드 바수스(연주), 프란츠 호우크(지휘)

지몬 마이어 일생의 황금기, 베르가모 시절을 여는 종교음악 작품들

일생 동안 약70편의 오페라와 600편의 종교음악 작품을 남긴 지몬 마이어의 또 다른 역작들을 세계 최초 녹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음반이다. 1802년 지몬 마이어는 베니스에서 얻은 명성과 함께 베르가모의 산타마리아 대성당 음악감독을 맡으며 일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프란츠 호우크는 이 시기 지몬 마이어가 작곡한 두 작품(미제레레 g단조 &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위한 리타니아)을 음반에 담았다. 겸허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 탄식의 짙은 여운을 머금은 선율은 전작 '스타바트 마테르'(8.573781) 만큼이나 감동적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88

아르네센: 합창음악 작품집

베릴 팬슬로우 & 사라 미첼 & 줄리안 도웰 & 웬디 수 그로버 & 크리스티아나 설린스(소프라노), 존 건서(소프라노 색소폰), 앨리샤 릭스비(소프라노 & 피아노), 칸토라이(합창), 조엘 린제마(지휘)

영원을 향한 고요한 일렁임, 무지개 너머의 평온

2016년 백악관에서 연주된 '요람찬송(Cradle Hymn)'의 주인공,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현대 음악 작곡가 아르네센은 콜로라도에 근거지를 둔 보컬 앙상블 칸토라이(예술감독 : 조엘 린제마)와 함께 지난 7년간 작곡된 그의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양(The Lamb)', '잠든 (아기) 예수(Dormi, Jesu)' 등 잘 알려진 작품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음반에 수록된 7편의 작품들은 영원을 향한 고요한 일렁임 속에 무지개 너머 평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깃털의 연약하고 섬세한 인상, 작곡에 대한 아르네센의 생각에 공감할 만한 음반이다. 적극 추천하고 싶다. *** '오 거룩한 잔치여'(3번 트랙), '어린이 노래'(4번 트랙), '내가 네게 남겨줄 선물'(5번 트랙), '만들기 또는 무너뜨리기'(7번 트랙), '자비의 예수'(10번 트랙), '영원'(11번 트랙), '우리가 쉴 곳'(12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91

영국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

클레어 호윅(바이올린),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그랜트 르웰린(지휘)

엘가와 월튼에 가려진 근현대 영국 작곡가 3인의 바이올린 협주곡

영국 작곡가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떠올릴 때 우리는 엘가와 월튼의 작품을 가장 먼저 꼽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 혹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에는 이들 작품만큼이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바이올린 협주곡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음반에는 이를 증명하는 세사람(폴 패터슨, 케네스 레이튼, 고든 제이콥)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들은 실내악 앙상블처럼 간결한 느낌을 주지만 각각 하프의 우아함(패터슨), 질풍노도의 열정과 수렴의 아치(레이튼), 기교와 음영을 갖춘 색감(제이콥)이라는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12월 낙소스 신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음반이다. 적극 추천한다.

8573792

후안 페레즈 플로리스탄: 피아노 리사이틀

후안 페레즈 플로리스탄(피아노)

후안 페레즈 플로리스탄,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2015년 베를린 스타인웨이 국제 콩쿠르 1위와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의 피아니스트 후안 페레즈 플로리스탄의 리사이틀 음반이다. 런던 위그모어홀을 비롯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본 음반에서 선택한 작품들은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멀리 있는 연인에게' 그리고 슈만의 '환상곡'이다. 연주자는 기교와 서정을 두루 갖춘 작품의 면모를 풍부한 표정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데, 리스트가 편곡한 '멀리 있는 연인에게'에서 보여주는 몽환적이고 애틋한 느낌은 풋풋하면서도 뭉클하다.

8573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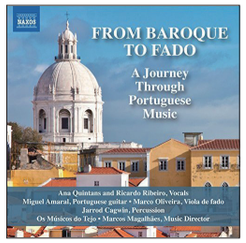
세체니: 오케스트라를 위한 춤곡 전집

MÁV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발레리아 차니(지휘)

슈트라우스 일가를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왈츠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의 외교관이었던 세체니는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음반에는 1850년대 상트 페테스부르크 시절 세체니가 작곡한 18개의 춤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 그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만났으며,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그의 작품을 빈에 소개하기도 했다. 6개의 그룹으로 나뉜 18개의 폴카와 마주르카는 감상과 무도회를 위한 용도로 구분된다. 언뜻 슈트라우스 일가의 왈츠를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색채는 당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작곡가 세체니와 슈트라우스 일가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신년 맞이 음반으로도 좋을 법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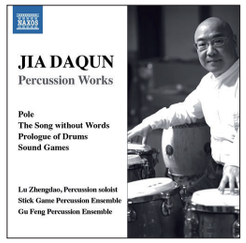


8573875
포르투갈 음악 여행: 바로크에서부터 파두에 이르기까지
아나 퀸탄스(소프라노), 리카르도 리베이로(보컬), 미구엘 아마랄(포르투갈 기타), 마르코 올리베리아(비올라 데 파두), 자로드 캐그윈(타악기), 오스 무지코스 도 테조(연주), 마르코스 마갈량이스(지휘)

파두와 바로크의 절묘한 교차, 찬란한 우수
마르코스 마갈량이스는 소프라노 아나 퀸탄스와 파두 싱어 라카르도 리베이로의 목소리로 중세 포르투갈 서정 가요인 '칸티가'와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파두'의 절묘한 교차를 선보인다. 13세기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있는 음악들에는 유럽과 아랍 문화가 교차했던 이베리아 반도의 독특한 색채가 담겨있다. 음악에 담긴 찬란한 우수와 관객의 반향, 이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음향 모두 만족스러운 음반이다.
(2016년 12월 포트투갈 리스본 굴벵키안 재단 그란데 아우디토리오 실황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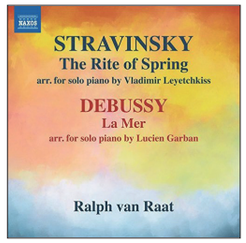
8579019
라몬 파우스: 피아노 작품집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즈(피아노)

빛과 그림자 사이, 백일몽의 아련함
'비올라 작품집(8.573602)'에 이어 라몬 파우스의 음악 어법이 담긴 피아노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비올라 작품집'이 비올라와 피아노의 밀고 당기기 그리고 어울림과 삐걱거림이 빚는 색다른 음향을 보여줬다면 음반에 수록된 라몬 파우스의 피아노 작품들은 '빛과 그림자 사이, 백일몽의 아련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꿈》(1990) 중에서 고흐와 '아를의 다리와 빨래하는 여인들'을 테마로 하고 있는 5번째 에피소드 '까마귀'의 영감을 표현한 '아를의 피아노'(2번 트랙)는 음반의 백미라 하겠다.



8579028
지아 다췬(賈達群): 타악기 작품집
루 정다오(呂政道, 타악기 독주), 스틱 게임 타악기 앙상블 & 구펑(鼓風) 타악기 앙상블(타악기)

중국과 서양 그리고 일본 전통 음악이 융합된 색채, 타악기의 경쾌한 향연
중국 정부가 선정한 20세기 중국의 클래식, 'Flavour of Bashu(蜀韻, 파촉[巴蜀]의 정취)'(1995년 작품)로 유명한 지아 다췬의 타악기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중국과 서양의 색채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타악기의 장중하고도 거침없는 향연, 일본 전통 음악과의 이색적인 만남이 담긴 '무언의 노래(The Song without Words)'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타악기 연주자 루 정다오를 비롯한 연주자들은 '소리의 경주(Sound Games)'에 어울릴 법한 경쾌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음반은 상해 음악원 설립 90주년 기념이기도 하다.



8573576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블라드미르 레예치키스 편곡 버전) & 드뷔시: 바다(루시엥 가르방 편곡버전)
랄프 반 라트(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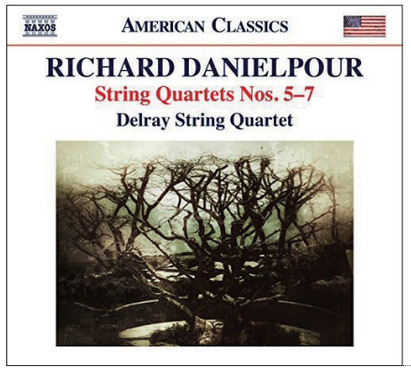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편곡
야성미 넘치는 시선으로 '봄'을 바라보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자연 그대로의 인상을 정밀하면서도 품위 있게 표현한 드뷔시의 '바다'. 언뜻 마티스와 모네의 그림을 떠오르게 하는 두 작품의 상이한 색채를 한 대의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이다. 스트라빈스키에게 인정받았던 블라드미르 레예치키스, 생상스와 라벨의 작품 등에서 탁월한 편곡 능력을 보였던 루시엥 가르방의 편곡. 원곡의 정밀함과 스케일 모두를 살린 편곡은 랄프 반 라트의 명료한 연주 속에서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여운을 선사한다.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8573604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20집
아르템 야진스키(피아노)

화려한 색채감, 또랑또랑한 터치가 선사하는 신선한 매력
스카를라티가 스페인 궁정에서 봉직하는 동안 작곡한 555곡의 건반 소나타들은 대부분 그의 사후 발굴되어 오늘날 불멸의 걸작으로 남아있다.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를 조명하는 시리즈 20집에는 특히, 반복과 도약, 리듬감이 인상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지안 바티스타 비오티 국제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아르템 야진스키는 또랑또랑한 터치로 스카를라티의 생동하는 영감을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화려한 색채감 속에 드러나는 작품의 신선한 매력, 특히 '봄'의 인상을 머금고 있는 'K.319'(9번 트랙)가 압권이다.

8573677
호아킨 투리나: 피아노 작품 13집
조르디 마소(피아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의식의 흐름
호아킨 투리나의 피아노 작품 13집에는 작곡가의 각별한 애정이 배어있는 걸작, '산루카르데바라메다'를 비롯해 잃어버린 딸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는 '삼부작', 미완성 작품인 '성모 마리아의 일곱 가지 슬픔'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933년에서부터 34년 사이에 작곡된 '삼부작' 마지막 악장은 대중가요와 바그너, 베토벤, 림스키 코르사코프, 쇼팽의 음악을 인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카탈루냐 출신 피아니스트 조르디 마소는 걸작과 미완성 작품의 감탄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본 음반에서 특유의 명료한 연주로 2004년부터 시작한 투리나 피아노 음악 전곡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의식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8559845
대니얼 푸어: 현악사중주 5–7번
힐라 플리트만(소프라노), 딜레이 현악 사중주단(연주)

인생의 분기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의식의 흐름
미국의 작곡가 대니얼 푸어의 현악 사중주 5–7번은 인생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현악 사중주 5번(새로운 삶을 찾아서)'의 자아 성찰, '현악 사중주 6번(이별)'의 상실과 죽음에 이어 '현악 사중주 7번(위로의 〈시편〉)'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신에게 안기는 인상을 담고 있다. 단테의《신곡》(5번)과 이별과 관련된 베토벤 · 말러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6번), 성경(〈이사야〉, 〈누가복음〉)의 구절(7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의 색채는 힐라 플리트만의 음성이 담긴 마지막 트랙에서 절정을 이룬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30 **[추천음반]**
낭만주의 시대 비올라 소나타 작품집
토가오 히요리(비올라), 릴트 그레고리안(피아노)

낭만주의 시대 비올라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한 작품들
오늘날 힌데미트와 바르톡 등의 작품들을 통해 악기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이전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도 비올라의 가능성에 주목한 작품들이 있었다. 특히, 본 음반에 수록된 온슬로와 멘델스존, 칼리보다의 작품들은 친숙미와 악기의 매력 모두를 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뭇결을 연상시키는 자연미, 토가와 히요리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연주 속에서 드러나는 비올라의 새로운 인상은 언뜻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에서 맴도는 것처럼 다가오는 선입견을 바꾸기에 충분할 듯싶다.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8573679
퍼시 그레인저: 관악기를 위한 작품 1집
왕립 노르웨이 해군 악대(연주), 비야르테 엥게세트(지휘)

우아함과 경건함, 절제미와 위트를 아우른 관악기의 진정한 매력
'컨트리 가든'과 '해변의 몰리'로 유명한 퍼시 그레인저의 관악기 작품을 조명하는 시리즈 1집이다. 앞서 언급한 두 작품 이외에도 '양치기의 건초', '언덕의 노래' 등 그의 대표작들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바흐의 '오 사람아, 너희의 죄를 크게 슬퍼할지니(BWV.622)'와 윌리엄 로스의 '6성부 판타지와 아리아'는 단연 돋보인다. 수자의 '관악 밴드를 위한 시리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왕립 노르웨이 해군 악대의 연주는 부드러움을 머금은 우아함과 경건함, 절제미와 위트까지 아우르고 있다. 관악기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반으로 손색이 없다.

8573728
루이지 레니아니: 기타 작품집
마르첼로 판토니(기타)

파가니니로 부터 인정받은 레니아니의 진정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음반
기타 독주 버전으로 편곡한 로시니의 오페라, 루이지 레니아니의 '로시니 변주곡'(8.573721)이 수록된 전작에 이어 마르첼로 판토니는 레니아니의 기타 작품들을 조명한다. 세계 최초 녹음으로 수록된 레니아니의 작품들 중에서도 '변주가 딸린 지진(Terremoto con Variazioni)'의 너른 스케일, '그랑 카프리치오'의 화려함은 파가니니로 부터 '기타 연주의 거장'으로 인정받았던 작곡가의 면모를 전작보다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치오'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대표작, '36개의 카프리치오'에 버금갈 만한 인상을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8573814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 궁중의 일상 음악
레 오르디네르(연주)

내밀한 속삭임과 여유로운 멋, 루이 14세 시대 궁중의 일상 음악들
영화 '왕의 춤'과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볼 수 있듯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 당시 궁중에서 활약했던 음악가들은 오페라, 종교 음악 등 오직 왕과 왕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작곡했다. 이 중에는 집무, 무도회, 취침 등 왕의 일상과 함께 했던 음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 음반은 릴리, 마렝 마레, 쿠프랭, 몽테클레르, 오트테르가 작곡한 루이 14세 시대 궁중의 일상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테오르보와 트레바소, 비올라 다 감바의 속삭임 속에서 드러나는 궁중의 일상은 내밀하면서도 여유로운 멋을 갖추고 있다.

8573753 **[추천음반]**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소나타(Op. 13) & 24개의 전주곡(Op. 34) – '바이올린과 피아노 편곡 버전'(치가노프 & 아우어바흐 편곡)
세르게이 도가딘(바이올린), 니콜라이 토카레프(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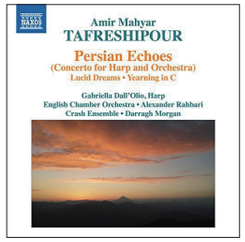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쇼스타코비치의 짜릿한 영감
쇼팽과 바흐로 부터 얻은 영감의 산물, 쇼스타코비치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24개의 전주곡'에는 두 명의 작곡가를 향한 쇼스타코비치의 헌사가 담겨 있기도 하다. 본 음반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버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작곡가의 각별한 친구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치가노프(1937년 4곡, 1961~1963년 15곡)와 레라 아우어바흐(2000년 5곡)의 작품을 합친 것이다. 오이스트라흐의 생일을 기념하는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와 더불어 쇼스타코비치의 짜릿한 영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8573804 **[추천음반]**
코어–텟 프로젝트(Core–tet Project)
에블린 글레니(퍼커션), 존 헤머삼(기타), 실라드 메자이(비올라), 마이클 제프리 스티븐스(피아노)

서로 다른 목소리들의 환상적인 어울림이 빚는 색다른 영감
런던 올림픽 개회식과 내한 공연으로도 익숙한 에블린 글레니를 중심으로 결성된 '코어–텟 프로젝트'의 첫 번째 녹음이다.
에블린 글레니를 비롯해 재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연주자들은 14개의 트랙에 걸쳐 스코틀랜드, 덴마크, 세르비아, 미국의 전통 위에 놓인 연주자들의 색채를 즉흥 연주 속에 담았다. 다른 목소리들의 환상적인 어울림, '무언의 언어'가 빚는 영감 가득한 대화는 즉흥 연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밀한 매무새를 보여주고 있어 놀라움을 더한다.
감상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8573838
코다이: 관현악 작품집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우수를 머금은 방랑자의 자유로움과 활기
스트라빈스키와 말러, 리하르트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주를 보여주었던 조앤 팔레타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보헤미아의 색채(비테츠슬라프 노바크)에 이어 헝가리 민속 음악으로 무대를 옮겼다. 민속 음악에 대한 코다이의 열정이 집약된 '갈란타의 춤',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헝가리 민요에 의한 변주곡', '마로스체크의 춤'을 대하는 지휘자와 악단은 삶의 명암, 우수를 머금은 방랑자의 자유로움과 활기를 능숙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브 클라인 블루'의 서정을 연상케 하는 여운이 압권이다. 감상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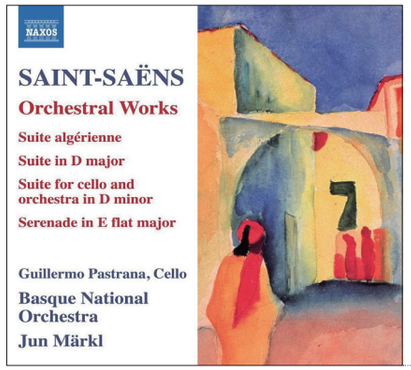


8579023
타프레시푸: 페르시아의 메아리 & 알라스 & 자각몽(Lucid Dream) & C장조의 동경
가브리엘라 달로리오(하프), 크레시 앙상블 & 잉글리시 첸버 오케스트라(연주), 다라 모건 & 알렉산더 라바리(지휘)

중동과 유럽의 인상적인 어울림
이란을 대표하는 작곡가 타프레시푸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페르시아의 메아리'(1–3번 트랙)와 '자각몽(Lucid Dream)'(6번 트랙)의 하프 선율은 언뜻 '아라비안나이트'의 한 장면을, 카비르 & 루트 사막의 인상을 표현한 '알라스'는 영화 '동사서독'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작곡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C장조의 동경'은 세월의 덧없는 흔적과 닿아있다. 유럽과 이란의 음악 요소를 몽환적인 색채로 융합하고 있는 작품의 면모. 때론 정적으로 때론 동적으로 묘사하는 이란의 역사와 풍광은 섬세하고 매혹적이기만 하다.

8559831
플루트 실내악 작품집
앨리스. K. 데이드(플루트), 스콧 유 & 에릭 아빈더(바이올린), 머우리시 베너젝(비올라), 조나 킴(첼로), 수잔 카일(콘트라베이스), 노암. D. 엘키스 & 존 노바첵(피아노)

미국에서 활동하는 4명의 작곡가가 선보이는 플루트의 화려한 매력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4명(아론 케르니스, 마이클 파인, 노암 엘키스, 제니퍼 바커, 댄 콜맨)의 플루트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을 세계 최초 녹음으로 만날 수 있는 본 음반은 플루트의 유연하고도 화려한 색채로 가득하다. 특히, 바로크, 재즈, 탱고를 연상케 하는 요소와 플루트의 현란한 기교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노암. D. 엘키스의 '플루트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E Sonata'(3–5번 트랙), 신비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댄 콜맨의 '파반느와 시메트리'(9번 트랙)는 음반의 백미이다.



8573732 **[추천음반]**

생상스: 관현악 모음곡 & 세레나데 작품집

길레르모 파스트라나(첼로), 바스크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윤 메르클(지휘)

생상스 작품 세계의 미니어처

윤 메르클은 바스크 국립 오케스트라과 함께 '교향시'(8.573745)에 이어 다시 한 번 생상스의 관현악 작품을 조명한다. 북 아프리카의 풍광이 당당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로 표현된 '알제리 모음곡', 오르간(하모늄),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에 대한 작곡가의 각별한 관심이 배어 있는 '모음곡 D장조(Op.60)', '모음곡 d단조(Op.49)', '세레나데 내림 마장조(Op.15)'는 '생상스 작품 세계의 미니어처'라 해도 좋을 법하다. 전작의 생동감과 더불어 명징한 음향과 화사한 색채감은 한층 산뜻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감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8559818

관악 협주곡 작품집

제임스 짐머만(클라리넷), 레슬리 노튼(호른), 에릭 그레튼(플루트),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카를로 게레로(지휘)

전통의 재해석 위에 펼쳐지는 새로운 지평

현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3명의 최근 작품. 그 중에서도 관악 협주곡이 수록된 음반이다. 거쉰과 코플랜드, 번스타인에 대한 음악적 헌사가 담긴 티첼리의 '클라리넷 협주곡', 종소리 모티브의 매혹적인 반향을 느낄 수 있는 바나르의 '호른 협주곡', 의식의 은밀한 흐름과 화려한 발산을 묘사한 라니바란의 '플루트 협주곡'은 작품의 구조와 색채 모두 전통의 재해석 위에서 새로운 음악 지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주자들의 뛰어난 기교와 더불어 미국 음악 특유의 분위기를 온전히 구현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모두 뛰어나다.

8573326

로렌초 팔로모: 관현악 작품집

파블로 가르시아 로페즈(테너), 하비에르 리바 & 라파엘 아귀레(기타), 아나 마리아 발데르라마(바이올린), 카스티야 & 레온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헤수스 로페즈 코보스(지휘)

스페인에 대한 짙은 향수 위에 켜켜이 쌓어올린 생동감 넘치는 서정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스페인의 작곡가 로렌초 팔로모.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생의 대부분을 베를린서 보낸 그의 음악은 모국에 대한 짙은 향수가 배어 있다. 본 음반에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눈부신 햇빛 속으로 수렴되는 ('풀고레즈', 눈부신 광채) 코르도바의 풍경 ('코르도바 신포니아' – 모스크, 과달키비르 강, 5월 축제). 스페인의 열정과 리듬 위에 켜켜이 쌓아올린 생동감 넘치는 서정은 투리나 또는 로드리고의 작품 한 대목을 연상케 할 만큼 매혹적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84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곡 48집

카를로 크란테(피아노)

헝가리에 의한, 헝가리를 위한 리스트의 음악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48번째 음반에는 리스트의 정신적, 육체적 고향인 '헝가리'의 인상을 담고 있다. 대중적으로 익숙한 '헝가리 광시곡' 중에서도 12–17번(오리지널 버전), '헝가리 민족 선율', '19개의 헝가리 멜로디', '푸스타의 비극'이 수록된 본 음반은 '헝가리에 의한, 헝가리를 위한 리스트의 음악'이라고 해도 좋을 듯싶다. 수많은 녹음을 통해 익히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카를로 그란테의 연주는 '피아노의 기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당당함과 명징함을 갖추고 있다.

8573855 **[추천음반]**

호아킨 홈즈: 독주 기타와 기타 듀오를 위한 작품 전집

알렉스 가로베 & 호세 안토니오 에스코바르(기타)

기타의 새로운 잠재력과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

스페인에서 12음 작곡 기법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호아킨 홈즈의 대표작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언뜻 그로테스크할 것만 같은 첫인상과는 달리 간결한 스타일 속에 드러나는 낭만적인 색채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드뷔시, 라벨, 페드렐, 파야에 대한 헌사가 담긴 '모음곡 헌사(오마주)', 두 대의 기타 사이 내밀한 대화가 담긴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즉흥곡',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는 '꽃의 색채'는 음반의 백미이다.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한 장의 음반으로 접할 수 있다.

8573840

오를란두스 라수스: 마태수난곡

토르스텐 닐센(복음사가, 바리톤), 라우리츠 야콥 톰슨(예수, 바리톤), 앤-크리스틴 베서 잉겔스(소프라노), 루이즈 오드가르드 & 에바 뵐링거-벵트손(알토), 요제프 함베르 & 토비아스 오뷔 담(테너), 라스무스 쿠어 톰슨(베이스-바리톤), 무지카 피카(연주), 보 홀텐(지휘)

엄숙하고도 경건한 색채, 그리스도 수난에 대한 영적인 성찰이 담긴 작품

오늘날 '수난곡'은 바흐의 작품 이외에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바흐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리는 작품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팔레스트리나와 동시대 뮌헨에서 활동한 작곡가 오를란두스 라수스의 '마태수난곡'이 수록된 본 음반은 라수스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수난곡'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코펜하겐 이사야 성당의 숙연한 반향 속에 메아리치는 작품의 엄숙하고도 경건한 색채는 그리스도 수난에 대한 영적이고도 오롯한 성찰과 닿아있다.

8573431

토니: 피아노 작품 전곡 4집

1940–44년 사이에 작곡된 카밀로 토니의 피아노 작품

12음 기법의 열렬한 추종자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작곡가 카밀로 토니. 본 음반에는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12음 기법을 구사하기 직전에 펼쳐졌던 토니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담겨있다. 온음계적 요소보다는 반음계적 기법과 음렬주의적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이 시기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르네상스와 바로크, 낭만주의 등 이전 음악 사조를 재해석하는 작곡가의 시각이 압축되어 있는 3곡의 '세레나타', 부조니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4개의 소품'은 해당 시기 작곡가의 면모를 상징할 만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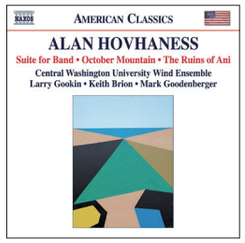
8573817–18 **[2CDs]**

J.S. 바흐: 요한 수난곡(BWV.245, 1749년 버전, 1725년 버전 추가)

게오르그 포플루츠(테너, 복음사가), 요르크 펠릭스 스피어(베이스, 예수), 율리아 클라이터 & 빅토리아 브라움(소프라노), 게르힐트 롬베르거(알토), 다니엘 산즈 (테너), 크리스티안 바그너(베이스), 마인츠 바흐 콰이어(합창), 마인츠 바흐 오케스트라(연주), 랄프 오토(지휘)

온전한 믿음으로 귀결되는 '수난'의 여정

바흐는 일생동안 5편의 수난곡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마태 수난곡'과 '요한수난곡'이다. '마태수난곡'이 그리스도 수난의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수난곡'은 이에 대한 내적 통찰을 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온전한 믿음으로 귀결되는 '수난'의 여정. 랄프 오토가 지휘하는 마인츠 바흐 오케스트라의 '요한수난곡'은 숙연한 반향과 오롯한 음성의 조화 속에서 작품 본연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1749년 버전에 이어 음반 마지막 부분에는 1725년 버전에 수록된 악장이 추가되어 있다.



8559837
호바네스: 관악 밴드를 위한 모음곡
센트럴 워싱턴 대학 관악 앙상블(연주), 키스 브라이언 & 마크 구덴버거 & 래리 구킨(지휘)

관악기의 그윽한 여운 속에 떠오르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미국의 작곡가 앨런 호바네스는 67편에 이르는 '기록적인' 교향곡이외에도 영화음악,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434편의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은 그 중에서도 관악 밴드를 위한 모음곡을 통해 호바네스 작품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있다. 이국적인 소재,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 명상적인 흐름이라는 작곡가 특유의 색채. 그 중에서도 아르메니아의 지배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아니의 폐허, 아니를 위한 탄식'(14번 트랙)은 음반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관악기의 그윽한 여운은 작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에 더할 나위없어 보인다.

8573569
베토벤: 플루트 작품 1집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코다마 미쯔오(바순), 세자키 아스카(바이올린), 코미네 코이치(비올라)

'기억의 습작', 색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 본 시절 베토벤의 작품들
'끊임없는 습작의 여정'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립하기 전까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고향인 본에서의 마지막 순간, '기억의 습작'이 담긴 베토벤의 플루트 작품들 역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이 자못 크게 느껴지는 작품의 면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토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드비엔느의 플루트 협주곡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패트릭 갈루아는 베토벤의 민요 변주곡(8.573337)에 이어 플루트에 담긴 베토벤의 풋풋한 열정을 우아한 색채로 그려내고 있다.

8573674
멕시코 기타음악 작품집
세실리오 페레라(기타)

봄의 첫 자락, 아지랑이를 연상시키는 산뜻한 연주
타마요에서부터 루나고메즈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기타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음반이다. 멕시코 전통음악과 유럽 음악의 절묘한 결합이 담긴 작품들의 면모는 '전통 음악 요소와 세고비아'로 요약되는 마누엘 풍세의 작품 세계와 닮아 있어 눈길을 끈다. 2011년 이탈리아 미켈레 피탈루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실리오 페레라는 작곡가('마리나', 9번 트랙)이자 연주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봄의 첫 자락, 아지랑이를 연상시키는 산뜻한 연주. 봄맞이 음악으로도 제격일 듯싶다.

8573631 **[추천음반]**
베네수엘라의 기타 음악 작품집
니르세 곤살레스(기타)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우수와 정열이 교차하는 서정, 베네수엘라 기타 음악의 정수
2006년도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한 니르세 곤살레스는 20세기 베네수엘라 작곡가들의 기타 음악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베네수엘라 음악계를 대표하는 비센테 소호의 작품에서부터 연주자에게 헌정된 페드로 마우리치오 곤잘레스의 '사부작'에 이르기까지 수록된 작품들은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우수와 정열이 교차하는 서정, 생동감 넘치는 리듬감, 민속 음악 요소가 세련스레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연주자가 직접 편곡에 참여한 비센테 소호의 작품들에는 모국 음악에 대한 연주자의 각별한 열정이 배어있어 눈길을 끈다.

8573722
카라예프: 교향곡 1번 & 바이올린 협주곡
잔나 갠덜맨(바이올린),키예프 비르투오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쇼스타코비치의 색채로 표현한 코카서스의 웅장한 풍광
쇼스타코비치의 제자인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작곡가 카라 카라예프는 현대 아제르바이잔 음악사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스승인 쇼스타코비치의 작법과 더불어 아제르바이잔의 민속 음악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곡가 특유의 색채는 코카서스 남부 지역의 인상을 표현한 기념비적인 작품 '교향곡 1번'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2음 기법을 활용한 '비이올린 협주곡'은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한 작곡가의 음악적 실험이 담겨 있기도 하다. 쇼스타코비치의 그늘이 드리워진 코카서스의 웅장한 풍광, 쇼스타코비치와 카라예프의 다양한 작품을 조망했던 드미트리 야블론스키만큼 작품의 색채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이도 드물듯하다.

8573839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관현악 버전 발췌)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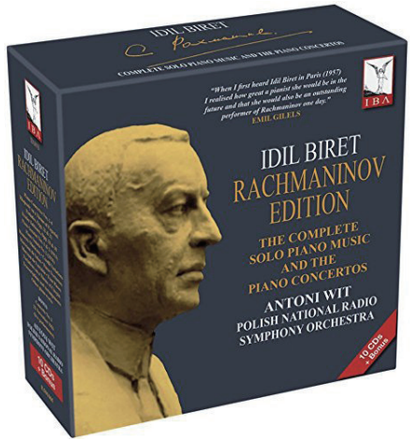
원곡의 유장하고도 넘실거리는 흐름과 너른 스케일이 집약되어 있는 편곡의 묘미
바그너 일생일대의 작품 《니벨룽의 반지》는 우주와 인간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장대한 서사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작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전곡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발퀴레의 기행' 등 《니벨룽의 반지》에 수록된 몇몇 음악들은 영화 혹은 세계사의 한 장면에 등장할 만큼 유명하다. 조앤 팔레타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니벨룽의 반지》 중 대중적으로 익숙한 작품들을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선보였다. 원곡의 유장하고도 넘실거리는 흐름과 너른 스케일이 집약되어 있는 편곡의 묘미를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만끽할 수 있다.

8573823
마르티누: 가곡 5집
야나 흐로초바(메조 소프라노), 조르지오 쿠클(피아노)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재치, 마르티누 가곡의 숨겨진 보석
2011년 1집 '카네이션 화환'(8.572588)부터 시작된 마르티누 가곡 시리즈는 작곡가에 대한 연주자의 정성어린 관심과 열정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느 때처럼 마르티누 가곡에 대한 조르지오 쿠클의 오롯한 헌사가 담겨 있는 시리즈 5번째 음반에는 2차 세계대전 시기 작곡된 '체코 민요 가사에 의한 4개의 노래들'을 비롯해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에 노래를 붙인 세 개의 가곡'등 마르티누 가곡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삶의 고통스런 순간들을 재치 있게 극복하는 마르티누의 모습은 음악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선사한다.
***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에 노래를 붙인 세 개의 가곡(H.197)'(13–15번 트랙), '야섹의 노래(H.37)'(23번 트랙), '내게 조금 더 이야기해(H.66)'(24번 트랙), '그대는 내게 편지를 쓴다(H.48)'(2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534–35 **[2CDs]**
프로코피예프: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4막 전곡, 1939년 개정판)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지휘)

선굵은 색채, 작품의 서사적인 면모에 주목한 연주
마린 알솝이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 프로코피예프 관현악 작품 시리즈는 지휘자와 악단의 음악 여정에 전기를 이룰 만큼 압도적인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자신의 또 다른 음악 동반자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본 음반) 역시 전작의 반향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만하다. 선 굵은 색채로 등장인물들을 둘러싼 작품의 서사적인 면모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주는 발레 음악의 역동성과 스토리의 조화, 작품의 구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프로코피예프의 모습과 닿아있어 각별하게 다가온다.



Naxos 8.501065

[독주곡 · 협주곡 : 10CD + 보너스CD]

낙소스 레이블을 대표하는 여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 (Idil Biret) 에디션
이딜 비렛 – 라흐마니노프 에디션
이딜 비렛(피아노), 안토니 비트(지휘),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

라흐마니노프와 전설적인 여류 피아니스트의 삶과 예술이 총집합!
1941년 터키 태생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은 IBA(Idil Biret Archive)을 통해 브람스, 쇼팽, 슈만, 베토벤, LP 오리지널 에디션 등 5~6종의 박스물을 내놓고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열 셋에 작곡했던 '4개의 피아노 소품'부터 만년의 대작까지 만날 수 있는 박스물(10CD+보너스)에는 협주곡 1~4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전주곡, 환상곡 소품집, 회화적 연습곡,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악흥의 순간, 세 개의 녹턴, 소나타 1 · 2번 등이 수록되어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편곡을 통해 바흐부터 크라이슬러까지 만날 수도 있다. 50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비렛이 가진 라흐마니노프 연주 기록과 리뷰 발췌문이 담겨 있다. 케네디가 암살되던 1963년 11월 22일의 추모사와 함께 시작된 협주곡 3번 보스톤 실황이 보너스CD에 담겨 있다. 이 박스물에는 '라흐마니노프의 삶'이자 '이딜 비렛의 예술세계'가 동봉되어 있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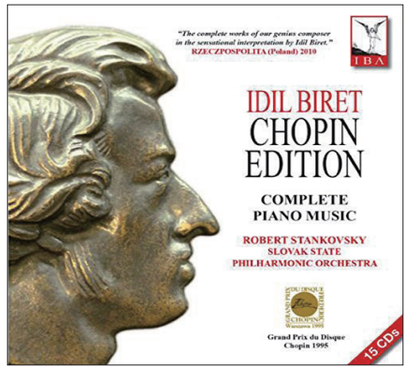
1941년 터키 태생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은 자신의 아카이브 레이블인 IBA(Idil Biret Archive)을 통해 브람스(16CD), 쇼팽(15CD), 슈만(8CD)을 비롯하여 베토벤 200주년(19CD), LP 오리지널 에디션(14CD) 등의 박스물을 내놓고 있다. 피아니즘의 정수를 갈구하는 마니아들에게 이 박스물들은 최상의 연주를 담은 보물상자와도 같다.

라흐마니노프 에디션은 10장의 CD와 보너스CD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활동했던 낙소스 레이블 발매의 앨범들을 중심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4번(CD1 · 2)과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CD1), 전주곡 Op.23과 환상곡 소품집 Op.3(CD3), 전주곡 Op.32(CD4), 회화적 연습곡 Op.33과 Op.39(CD5),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42과 '악흥의 순간' Op.16(CD7), '세 개의 녹턴' '4개의 피아노 소품' '악흥의 순간' Op.10(CD9) 등이 수록되어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열 셋에 작곡했던 '4개의 피아노 소품'부터 만년의 대작까지 만날 수 있는 이 박스물에는 소나타 1번의 1913년 버전(CD6)과 1931년 버전(CD7)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비교감상의 재미도 선사하며, 라흐마니노프의 편곡을 통해 크라이슬러(CD4), 바흐 · 슈베르트 · 멘델스존 · 리스트 · 무소륵스키 · 비제 등(CD10)도 만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박스물은 '라흐마니노프의 삶'이자 '이딜 비렛의 예술세계'가 동봉되어 있는 셈이다.

50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이딜 비렛이 젊은 날에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연주 장면, 기록 등이 들어 있다. 연주에 대한 리뷰 발췌도 함께 한다. 그렇다면 라흐마니노프의 레코딩 역사에 기념비를 세웠던 젊은 날의 이딜 비렛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너스 CD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뉴욕 보스톤 공연 실황. 1963년 11월 22일, 이 날은 미국의 존 F.케네디가 서거한 날이다. 연주회가 오르기 전, 추모사가 그날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협주곡 3번의 선율들이 현장의 공기를 전한다.

라흐마니노프, 이딜 비렛, 그리고 피아노 레코딩의 반세기가 담긴 이 음반은 전문가의 까다로운 심미안도 하나하나 만족시킨 음반이다. 어떤 CD도 그냥 허투루 넘겨들을 수 없다.



Naxos 8.501503

[독주곡 · 협주곡 : 15CD]

이딜 비렛 – 쇼팽 모음곡
이딜 비렛(피아노), 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지휘) · 슬로바키아 국립교향악단(협주곡 1 · 2번)

이 음반은 왜 그녀가 '쇼팽 스페셜리스트'인지를 알려준다
1990년부터 92년까지, 1941년 터키 태생의 여성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이 가장 매달렸던 것은 쇼팽과 그 녹음이었다. 베토벤 · 브람스 등의 고전적 형식미에 취해있던 그녀가 쇼팽에 눈뜨고, 열정의 손짓으로 빚은 쇼팽 모음집(15CD)은 그녀의 고향과도 같았던 낙소스 레이블에서 출시되었고, 1995년 쇼팽 음반 대상을 수상한다. 이로써 비렛은 쇼팽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한동안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 음반이 IBA(Idil Biret Archive)에서 재발매됐다. 과거 낙소스 판과 동일한 구성으로, 발라드 · 연습곡 · 마주르카 · 녹턴 · 소나타 · 폴로네이즈 · 전주곡 · 스케르초 · 즉흥곡 · 왈츠 · 협주곡 등으로 구성된 각 장마다 그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쇼팽의 낭만주의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빚어내는 조각 같은 소리들은 15장의 CD(종이케이스)에 담겼고, 71쪽 분량의 부클릿이 들어가 있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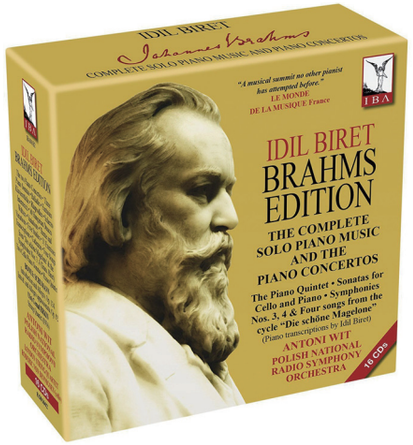
1992년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출시되었던 이딜 비렛모음 쇼팽 모음집(15CD)이 IBA 레이블에서 재출시되었다. IBA(Idil Biret Archive)는 이딜 비렛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레이블로, 브람스(13CD), 슈만(8CD), 베토벤 200주년(19CD), LP 오리지널 에디션(14CD) 등의 기념비적인 박스물을 염가에 내놓고 있다.

연주자에게나 오디오 파일러들에게나 쇼팽은 까다로운 대상이다. 만약 비렛이 내놓았던 이 전집이 세간의 호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과거와 동일한 구성의 재발매 음반을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음반은 '비렛 사운드'를 고집하는 마니아는 물론 쇼팽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음미하고 싶은 초심자, 이 모두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음반이다.

박스물은 15장의 CD(종이케이스)와 부클릿(71쪽 분량)으로 되어 있다. 주요 골자는 쇼팽의 발라드 1~4(CD1), 연습곡 Op.10 · 25(CD2), 마주르카(CD3 · 4), 녹턴(CD5 · 6), 소나타 1 · 2 · 3번(CD7), 폴로네이즈(CD8 · 9), 전주곡(CD10), 론도 · 마주르카 · 변주곡(CD11), 스케르초 · 즉흥곡(CD12), 왈츠(CD13), 협주곡 1 · 2번(CD14/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 · 슬로바키아 국립교향악단), '폴란드 노래에 의한 환상곡'과 모차르트 '돈 조반니'의 라 치 다렘라마노에 의한 변주곡(CD15) 등이다. 이외에도 쇼팽의 낭만을 음미할 수 있는 여러 소품들이 들어 있다.

부클릿에 들어가 있는 해설은 음반의 탄생 내력을 들려준다. 이딜 비렛이 이 음반들을 위한 녹음을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 당시 그녀에게 쇼팽은 주요 레퍼토리가 아니었다. 베토벤과 브람스로 대변되는 고전적 완벽성을 추구했던 그녀에게 쇼팽은 너무나도 감정을 내세워야 하는 작곡가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크랴빈 등으로 점차 레퍼토리를 넓혀가던 그녀가 쇼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바뀌었고, 낙소스 레이블의 클라우스 하이만 사장은 그때에 비렛에게 쇼팽의 녹음을 제안했다. 이후 비렛은 1990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 독일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쇼팽 녹음에 임했다. 그러면서 낙소스는 낱장의 음반들을 내놓았고, 15장의 음반이 모두 발매되었을 때는 세트로 만들어 1995년에 쇼팽음반 대상을 받았다.

이처럼 비렛이 쇼팽에 눈뜨고, 가장 치열하게 몰두할 때 만들어진 음반이다. 음반 한 장 한 장마다 그 감동이 느껴진다.



Naxos 8.501602
[독주곡 · 협주곡 : 16CD]

낙소스 레이블을 대표하는 여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 (Idil Biret) 에디션
이딜 비렛 – 브람스 에디션
이딜 비렛(피아노), 안토니 비트(지휘),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 런던 현악 4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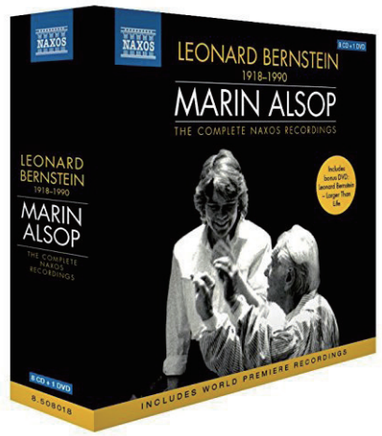
브람스 음악과 그의 일대기를 파헤친 '브람스의 음악(The music of Johannes Brahms)'의 버나드 제이콥슨이 "브람스에 관한 책의 저자로서, 나는 이딜 비렛의 브람스 전집물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음악은 브람스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사랑을 또 다르게 변화시켰다. 이 음반은 브람스의 모든 애호가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호평한 바 있다. 브람스 전문가의 까다로운 심미안도 하나하나 만족시킨 음반인 만큼 그 어떤 CD도 그냥 허투루 넘겨들을 수 없는 앨범이다.

피아노 독주로 들어보는 브람스 교향곡 3번의 3악장은 어떠할까?
이딜 비렛은 놀라운 편곡력과 연주력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1941년 태생의 이딜 비렛은 IBA(Idil Biret Archive)라는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을 만큼 명성 높은 피아니스트다. 그녀는 1990년대에 낙소스를 통하여 브람스의 피아노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녹음했었다. 이 음반은 그 음원들을 모은 16장 구성의 박스물. 종이 케이스의 뒷면에는 녹음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었으며, 발매 당시 리뷰(영문)가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영문)는 62쪽 분량. 소나타, 발라드, 소품집, 환상곡, 협주곡은 물론 슈만 · 모차르트 · 바흐 · 베토벤의 단편적인 피스도 수록되어 있다. 그 어떤 CD도 허투루 넘겨들을 수 없을만큼 값진 녹음들로 초심자와 전문 마니아를 모두 만족시킬 수작이다.

[보조자료] 피아노 독주로 들어보는 브람스 교향곡 3번의 3악장은 어떠할까? 이 궁금증에 대하여 이딜 비렛은 놀라운 편곡력과 연주력으로 감상자의 가슴을 두드린다. 이딜 비렛이라는 피아니스트와 브람스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순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1941년 태생으로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IBA(Idil Biret Archive)라는 자신의 전문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대최고의 비르투오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 터키 출신으로 그녀는 '쇼팽 스페셜리스트'라는 호칭 외에 1990년대에 낙소스에서 내놓은 브람스의 피아노 음악 시리즈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운 바 있다. IBA에서 발매된 이 음반은 브람스의 마스터피스들을 모은 앨범이다.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뿐만 아니라 교향곡 3번과 4번을 이딜 비렛이 직접 편곡한 녹음도 있다. 16장의 CD가 수록된 종이 케이스의 뒷면에는 녹음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었으며, 발매 당시 리뷰(영문)가 담겨 있다. 62쪽 분량의 해설지(영문)가 수록되어 있다. 브람스 작품 모음집이지만, 브람스로부터 뻗어나가는 음악사의 여러 갈래도 만날 수 있다. CD.10의 아홉곡의 카덴차 모음에선 바흐의 건반협주곡 BWV1052,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K453 · 466 · 491,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4번의 카덴차만을 따로 떼어 연주하거나, 슈만의 서주와 알레그로 D단조(CD11), 서주와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G장조(CD12), 터키 작곡가인 울비 메칼 에르킨의 현악 4중주(CD16)도 만날 수 있다. CD1 · 2 · 3 · 4 · 8 · 11 · 12 · 13 · 14 · 16은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에 깊이 있는 자세로 다가가기 위한 초심자들에게 감성 어린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음반들로 손꼽고 싶다.

CD1: 피아노 소나타 1~2번 (1989녹음)
CD2: 피아노 소나타 3번, 발라드 Op.10 (1989녹음)
CD3: 8개의 피아노 소품 Op.76, 두 개의 랩소디 Op.79, 환상곡 Op.116 (1989녹음)
CD4: 세 개의 간주곡 Op.117, 소품집 Op.118과 Op.119, 스케르초 Op.4 (1989녹음)
CD5: 왈츠 Op.39, 헝가리 무곡(독주곡) WoO.1 (1992녹음)
CD6: 자작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21–1과 Op.21–2, 다섯 개의 학습곡 Anh.1a/1 (쇼팽 · 베버 · 바흐) (1993녹음)
CD7: 51개의 연습곡 (1995년)
CD8: 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9,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24,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5 (1989녹음)
CD9: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변주 D 단조 Op.18b, 가보트 · 사라방드 · 캐논 외 (1992녹음)
CD10: '아름다운 메겔로네' Op.33, 왈츠 Op.39, 아홉 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카덴차(바흐 · 모차르트 · 베토벤) (1994녹음)
CD11: 피아노 협주곡 1번, 슈만 서주와 알레그로 D단조(안토니 비트/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 (1996녹음)
CD12: 피아노 협주곡 2번, 슈만 서주와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G장조(안토니 비트/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 (1996녹음)
CD13: 교향곡 4번(이딜 비렛 편곡),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5, 카프리치오 Op.76–1과 Op.76–5
CD14: 교향곡 3번(이딜 비렛 편곡), 여섯 곡의 헝가리 무곡 (1993, 1995녹음)
CD15: 소나타 1 · 2번 (2014녹음)
CD16: 브람스 피아노 5중주(런던 현악 4중주단), 울비 메칼 에르킨 현악 4중주

브람스 음악과 그의 일대기를 파헤친 '브람스의 음악(The music of Johannes Brahms)'의 브람스의 버나드 제이콥슨이 "브람스에 관한 책의 저자로서, 나는 이딜 비렛의 브람스 전집물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음악은 브람스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사랑을 또 다르게 변화시켰다. 이 음반은 브람스의 모든 애호가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호평한 바 있다. 브람스 전문가의 까다로운 심미안도 하나하나 만족시킨 음반인 만큼 그 어떤 CD도 그냥 허투루 넘겨들을 수 없는 앨범이다.



Naxos 8.508018 **[8CD + 1DVD]**

번스타인의 총애를 받았던 마린 알솝과 함께 한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번스타인 관현악작품 모음집
마린 알솝(지휘) · 볼티모어 심포니, 상 파울로 심포니, 장 이브 티보데(피아노), 켈리 나시에프(소프라노), 빌리안트 시크(바리톤) 등

구성: 8CD+1DVD
DVD: 번스타인 다큐 – Larger Than Life **[한글자막]**

번스타인 작품세계를 궤 뚫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긴 에디션
2018년은 번스타인의 탄생 100주년인 해이다. 이 박스물은 낙소스에서 발매했던 '마린 알솝의 번스타인 프로젝트'들을 모은 것으로, 번스타인이 남긴 22곡의 관현악 작품들을 담고 있다. 교향곡 1 · 2 · 3번과 대작으로 자리잡은 '미사'를 비롯하여, '종달새' '세레나데' '모사' '치체스터 시편' '펜실베니아 도로 1600번' 등의 관현악곡과 영화 '워터 프론트',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무용 '팬시프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번스타인의 총애를 받았던 마린 알솝은 스승의 신앙관과 대중적 감각이 녹아든 작품들을 명확하고 말끔한 어조로 풀어낸다. '세계 최초 레코딩'인 작품들도 만날 수 있어 소장 가치를 더욱 높인다. 번스타인의 음악관을 접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52분/한국어자막)도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2018년은 번스타인(1918~1990)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휘를 놓고 견줄 때 카라얀의 라이벌로 기억되지만, 번스타인은 지휘자 이전에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는 1942년에 첫 교향곡을 발표했고, 1944년에는 뮤지컬 '온 더 타운'으로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하기도 했다. 이 박스물은 낙소스에서 발매했던 '마린 알솝의 번스타인 프로젝트'를 하나로 모은 것으로, 8장의 CD, 1장의 DVD, 해설지(71p)로 되어 있다. 작곡가의 탄생과 서거에 때맞춰 발매되는 기념기획 음반들의 수집가라면, 이 박스물 하나로 '번스타인 100주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어렸을 때 음악에의 꿈을 막 꾸기 시작할 때 내 방엔 비틀즈 포스터와 번스타인 포스터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알솝은 볼티모어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이 박스물을 통해 우리는 번스타인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CD1의 교향곡 1번 '예레미야'(1942)과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1949 원본 · 1965 개작), CD2의 미사 브레비스(1988) 등 종교적 성향의 작품이 눈에 띄는 것. 특히, 1971년 작의 '미사'는 케네디센터 개관헌정작으로, 라틴어가 아닌 영어가사에, 뮤지컬 형식이 첨가된 파격의 작품이다. 알솝은 번스타인의 신앙과 대중적 감각이 녹아든 작품들을 명확하고 말끔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스승은 감정적이었지만, 각 음반에서 만나는 알솝의 자세는 이성적이고, 깔끔한 구조로 스승의 작품에 빛을 더한다. 알솝만의 장점이다. 각 음반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괄호의 숫자는 작곡 연도)

[음반별 수록곡] **(CD1)** 교향곡 1번 '예레미야'(1942/제니퍼 존슨 카노(메조소프라노),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1949 원본 · 1965 개작/장 이브 티보데(피아노)_알솝/볼티모어 심포니 **(CD2)** 미사 브레비스(1988), 교향곡 3번('카디시', 1963년 오리지널 버전/클레어 블룸(나레이터), 켈리 나시에프(소프라노), '종달새'(1955)_알솝/볼티모어 심포니, 상파울로 합창단, 메릴랜드 연합 합창단, 워싱턴 합창단 **(CD3)** 세레나데(1954/필리프 퀸트(바이올린), 모사(1946), 디베르티멘토_알솝/본머스 심포니 **(CD4+CD5)** '미사'(1971)_알솝/볼티모어 심포니, 유빌리안트 시크(바리톤), 모건 국립대 합창단, 피바디 어린이 합창단 **(CD6)** 영화 '워터프론트' 모음곡(1955), '치체스터 시편'(1965), '온 더 타운'의 세 가지 춤(1945)_알솝/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합창단 **(CD7)**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맘보(1957), 슬라바 서곡(1977), '펜실베니아 도로 1600번지'(1976), 'CBS뮤직'(1978★), '온 더 타운' 중 '타임 스퀘어에서의 발레'(1944), '번스타인 생일 부케'(1988★)_알솝/상파울로 심포니 **(CD8)** '캔디드' 서곡(1956), 무용 '팬시 프리'(1944), 오케스트라를 위한 기념일(1944~1989★), 뮤지컬 '원더풀 타운'(1953)–알솝/상파울로 심포니

CD7과 CD8에 수록된 3곡(★표시)은 '세계 최초 레코딩'으로서, 박스물의 소장 가치를 높인다. 특히 번스타인의 70세 생일을 맞아 작곡한 '번스타인의 생일 부케'는 베토벤부터 R.슈트라우스 등의 테마들을 패러디하여, 번스타인의 재치를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삶보다 더 큰'은 52분 분량으로 한국어 자막이 있다. 번스타인의 후예 켄트 나가노와 알솝, 뉴욕 필에 흐르는 번스타인의 전통을 이어 받은 두다멜의 인터뷰가 고인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게 한다.

(보너스 DVD) 레너드 번스타인 – Larger Than Life (한글자막)
번스타이틀의 삶과 음악에 대한 만화경
번스타인에 대한 대단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필름.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번스타인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고, 왜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그의 자식들인 제이미, 알렉산더, 니나 등의 인터뷰와 스테판 온드하임, 피터 존스, 그리스토프 에센바흐, 노먼 레브레히트 등등 음악계 인사들의 인터뷰가 번스타인의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특히 지휘자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이자 진행가, 여기에 대중의 흥미를 잡아채는 탁월한 스타적인 기질까지, 번스타인의 음악적, 그리고 음악외적 재능까지를 모두 일별하는 놀라운 다큐멘터리다. 게오르그뷔블로트 감독의 편집에 의해 번스타인의 음악과 삶이 재조명되는 이 영상물에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컨트 나가노, 마린 알솝과 같은 현대 지휘자들의 보너스 인터뷰까지 수록되어 있다.

Ondine www.ondine.net

ODE1302–2
바스크스: 라우다테 도미눔, 다 파쳄 도미네, 기도 등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 신포니에타 리가, 시그바르즈 클라바(지휘)
극적이고 따뜻한 정서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동구권의 아름다운 성가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라트비아는 세 명의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하면서 음악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들은 지휘자 마리스 얀손스,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그리고 작곡가 페테리스 바스크스이다. 바스크스는 젊은 시절 서구의 아방가르드를 연구했지만, 곧 인간의 감성으로 관심을 돌려 신낭만주의적인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은 동유럽 정교회의 전통, 서구의 전통적인 화음, 그리고 낭만적인 감수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종교적이면서도 극적이고 따뜻한 정서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다.

ODE1304–2
드뷔시: 전주곡 전곡, 어린이 차지
파발리 윰파넨(피아노)
은은하게 퍼져가는 소리의 파도와 화음에서 경험하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체험
피아니스트 파발리 윰파넨은 바젤 음악원에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으로부터 수학했으며, 특히 드뷔시의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의 드뷔시 리사이틀에 대해 보스턴 글로브는 "피아노의 깊은 공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으며, 아름다운 소리뿐만 아니라 드뷔시의 화성 언어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짚어낸다"고 평했다. 드뷔시의 전주곡 전곡과 〈어린이 차지〉를 수록한 이 음반은 이 평가에 공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은은하게 현을 공명시키는 소리의 파도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아름다운 화음이 퍼져가면서 환상적이고 신비한 체험으로 이끈다.

ODE1310–2
라우타바라: 첼로 소나타 1, 2번, 무반주 첼로 소나타, '내 마음의 노래' 등
타냐 테츨라프(첼로), 구닐라 쥐스만(피아노)
느린 템포와 중저음의 사운드로 광활한 평야를 연상시키는 핀란드의 첼로 음악
라우타바라는 시벨리우스 이후 가장 지명도 높은 핀란드 작곡가였다. 그의 음악은 현대적인 난해함보다는 핀란드의 광활한 평야를 연상시키는 느린 템포와 중저음의 사운드로 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라우타바라의 첼로 작품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러한 그의 음악 세계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바흐의 영향이 엿보이는 〈무반주 첼로 소나타〉는 기도문을 읽는 듯한 경건함마저 느껴지며, 〈첼로 소나타 1번〉은 꿈의 세계에 온 듯한 환상적인 화음이 인상적이다. 〈첼로 소나타 2번〉은 보다 과감한 표현으로 첼로의 강렬한 에너지를 전한다.

Orlando www.orlando-records.com

OR0027
MY FAVORITES
보이다라 쿠즈마노바(바이올린), 크라이슬러 트리오, 마그다 아마라(피아노), 루세 필하모닉 등
삼중주부터 관현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즐기는 독특한 소품 프로그램
보이다라 쿠즈마노바는 불가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로,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빈 음대에서 공부하고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프랑크푸르트 시의 '알로이스 코트만' 대상과 빈 음대 명예상을 수상했다. 이 음반은 그녀가 사랑하는 바이올린 소품 앨범으로, 삼중주부터 관현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다. 수록곡 또한 그녀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독특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크라이슬러 등을 비롯하여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블라디로프의 아름다운 보석도 들어있다.

Paladino www.paladino.at

paladino music

pmr0090
바흐: 세 개의 감바 소나타, 소나타 BWV964
로라 본(비올라 다 감바), 제임스 티블(하프시코드)
오세아니아의 고음악을 이끌고 있는 두 연주자의 하모니
바흐가 살던 때에 비올 족이 쇠퇴하고 바이올린 족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빠르게 나타났는데, 바흐는 세 곡의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를 통해 모음곡에 주로 사용된 이 악기를 소나타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결국 독일에서의 비올 족의 작별 인사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로라 본은 호주 출신의 연주자로, 빌란트 카위컨과 필리프 피에를로의 제자이며 현재 멜버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제인스 티블은 뉴질랜드의 건반연주자로, 봅 반 아스페렌의 제자이며 오클랜드 음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CONCERTGEBOUWORKEST
RCO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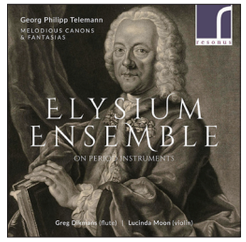
RCO17006 **[추천음반]**
말러: 교향곡 7번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우리 시대의 거장 마리스 얀손스가 완성한 또 하나의 해법
말러의 〈교향곡 7번〉은 선율 조각들과 일탈이 잦은 화음은 갈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러 거장들이 이 곡에 대한 뛰어난 해법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밤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 음악이 가진 말러의 깊은 내면의 고뇌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RCO와 말러 교향곡 전곡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거장 마리스 얀손스도 그만의 해법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끝자락에 드디어 7번을 녹음했다. 웅변을 하는 듯한 제스쳐와 내면의 무게를 다잡은 두터운 음향, 조절된 템포 등, 얀손스의 이 연주는 또 하나의 완성된 해법이다.

Resonus www.resonusclassics.com

resonus

RES10205
시벨리우스: 라카스타바, 즉흥곡, 말린코니아, 로망스, 안단테 페스티보 등
챔버 도멘, 토마스 켐프(지휘)
실내악으로 만나는 시벨리우스의 진면목
얀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최고의 작곡가로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은 몇 곡의 관현악곡 정도뿐이며, 그의 정신에 깊이 뿌리박힌 민족주의가 반영된 작품들이나 실내악곡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음반에는 우리가 놓친 시벨리우스의 진면목이 담겨있다. '칸텔레타르'라는 옛 이야기에 기초한 〈라카스타바〉는 현악의 풍부한 음향으로 그리는 극적인 이미지는 매우 인상적이며, 피아노곡 〈즉흥곡〉과 첼로곡 〈말린코니아〉는 시벨리우스의 서정성과 낭만성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플루트를 위해 편곡된 소품들은 진솔한 매력이 있다.

RES10206
르 쥔: 시편 23, 45, 76, 46, 134편, 시므온의 노래
캠브리지 세인트 캐서린 합창단, 에드워드 위컴(지휘)
르네상스 후기 폴리포니의 진수로 듣는 시편의 노래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예배 중 부르기 위해 시편에 음악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잔느캥, 스벨링크, 라수스 등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이 참여했는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클로드 구르디멜이었다. 구르디멜은 화음 진행 동기를 제시하며, 다른 작곡가들은 이에 이어 시편 전편에 곡을 붙였다. 이 음반은 특이하게도 이들에 비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르네상스 후기의 거장 클로드 르 쥔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시편 23, 45, 76, 46, 134편을 구르디멜의 제시에 이어 르 쥔이 펼치는 르네상스 폴리포니의 진수를 들을 수 있다.



RES10207
텔레만: '선율적인 캐논' 전곡, 바이올린 환상곡 7번, 플루트 환상곡 6, 12번
그렉 디크만스(플루트), 루신다 문(바이올린)
그만의 독창성과 악기에 대한 특출한 통찰력으로 빚어진 걸작
18세기 중반에 가장 높은 명성을 누렸던 작곡가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텔레만이었다. 그는 거의 모든 악기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음악에 녹여 넣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을 갖고 있었으며, 애호가와 전문가 모두에게 흥미를 끌었다. 두 대의 악기를 위한 여섯 개의 소나타 '선율적인 캐논'과 독주 악기를 위한 환상곡들 역시 그러한 작품으로, 모두 악기에 대한 특출한 통찰력으로 빚어진 걸작이다. 바로크 바이올린과 당대 최고의 플루티스트였던 크반츠 스타일의 플루트로 연주한다.

Silk Road

www.silkroad.graceapps.com

SRM042GCD [24K GOLD CD]

THE GRYPHON(그리폰) " POWER & GRACE" (1)

롤라 보베스코(바이올린), 아가테 재즈 콰르텟, 캐리 뉴코머(월드뮤직), 진잉 솔로이스츠(중국 민속음악) 등

천상의 사운드인 그리폰 사운드, 이 음반으로부터 시작되다

그리폰은 1985년 플레밍 E.라스무센에 의해 설립된 오디오브랜드이다. 초기에 화려한 금장 헤드앰프를 선보임으로써 단숨에 하이엔드브랜드의 위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출시된 포노 프리앰프나 파워앰프를 통해 강자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24K 골드 CD로 제작된 이 앨범에는 16곡의 클래식 · 재즈 · 월드뮤직 · 민속음악 등이 담겨 있다. 그리폰의 인티앰프 디아블로 시리즈나, 포세이돈 · 트라이던트 · 판테온 등 같은 대형기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리폰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음반을 못 만난 이들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줄 앨범이다. 16곡을 어떤 음반들에서 뽑았는지, 16장의 음반 재킷이 내지에 수록되어 있다.

SRM035 CD

롤라 보베스코가 연주하는 브람스, 멘델스존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 소나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롤라 보베스코(바이올린), 에드가 동뇌프 · 호세 세레브리에(지휘), 벨기에 방송교향악단

컬렉터들이 기다려온 바이올린 여신의 귀환

루마니아 태생의 롤라 보베스코(1921~2003)는 6살에 첫 콘서트를 가진 이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가 드물던 시절에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1980년대에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가졌고, 국내 팬들도 일본 킹 레코드를 통해 그녀에게 매료되곤 했다. 브람스의 협주곡과 소나타를 수록한 재발매 슈퍼LP(SRM035LP)가 2017년에 국내에 유통되었는데, 마니아들 사이에 단연 화제가 되었다. 이 앨범은 브람스에 멘델스존이 추가되어 CD로 재발매된 보베스코 시리즈의 다섯 번째 기획물로, 홍콩 실크로드뮤직 기획 · 벨기에 탈렌트(TALENT) 발매로 1980년대 실황과 녹음이다. 그녀의 음반이 왜 컬렉터들의 갈망의 대상이 되는지, 여성다운 품위와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대변해준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73

슈베르트: 교향곡 4번 '비극적', 교향곡 7번 '(미)완성'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케빈 존 에두제이(지휘)

연주자와 관객 모두를 사로잡은 투명하고 경쾌한 사운드

독일 출신의 지휘자 케빈 존 에두제이는 2007년 루체른 페스티벌 지휘 콩쿠르와 2008년 미트로풀로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4/15 시즌에 뮌헨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를 맡았다. 슈베르트의 〈비극적 교향곡〉은 날렵하게 움직이는 선율과 맑은 수정과 같은 빛나는 음색으로 한 편의 긴박한 드라마를 만들며, 〈(미)완성 교향곡〉은 저음을 강조하여 이보다 장중하다. 그럼에도 역동적인 표현에서 젊은 지휘자의 맥박이 느껴진다. 특히 지휘자로 잘 알려진 마리오 벤차고가 스케치와 〈로자문데〉를 참고하여 완성한 판본으로 연주하여 더욱 특별하다.

SM277

에네스쿠: 광시곡 1번,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버르토크: 루마니아 포크댄스 등

질 아팝(바이올린), 다이애나 케틀러(피아노), 앙상블 라로

에네스쿠와 버르토크 두 거장이 노래하는 루마니아 음악

제오르제 에네스쿠는 루마니아의 작곡가로서, 그가 태어난 도시 이름이 '에네스쿠'로 바뀌었으며, 공항도 '에네스쿠 국제공항', 수도의 관현악단도 '제오르제 에네스쿠 관현악단'으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다. 〈광시곡 1번〉은 그의 대표작으로서 피아노 사중주 편곡으로 수록했으며, 에네스쿠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은 집시 풍으로 진행되는 걸작이다. 버르토크는 헝가리인지만 루마니아 등 주변국의 음악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루마니아의 음악도 여럿 포함되었는데, 〈루마니아 포크댄스〉 등이 이 음반에 포함되어있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18

윈도우

브루스 리빙스턴(피아노)

영감의 스펙트럼, 명암과 색채의 오묘한 조화

'이 시대 가장 모험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뉴욕 타임즈》),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빙스턴의 신보. 윌러스 스티븐스의 '검은 새를 바라보는 13가지 방법들'에서 영감을 얻은 자신의 작품 '검은 새(Blackbird)'를 비롯해 뉴욕 유니온 처치 스테인드글라스(샤갈과 마티스 작품)의 오묘한 인상을 표현한 제임스 매더슨의 '창(Windows)'과 더불어 슈만의 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슈만의 음악적 영감(플로레스탄, 오이제비우스, 마이스터 라로)을 매개로 펼쳐지는 영감의 스펙트럼. 연주자의 정교하고도 세련된 손길로 재탄생하는 명암과 색채의 이상적인 조화는 황홀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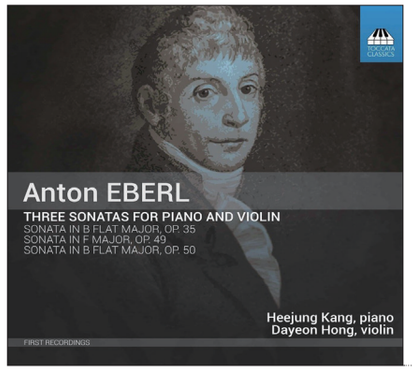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53
스타인웨이 홀에서 연주된 크리스마스 음악들
사이먼 멀리건(피아노)
스타인웨이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마리아주
예후디 메뉴인과 허비 행콕의 찬사를 받은 재능의 소유자, 영국의 피아니스트 사이먼 멀리건은 재즈와 클래식을 두루 섭렵한 자신의 색채를 크리스마스 음악에 투영했다. 뉴욕에 위치한 스타인웨이홀 두 곳(53번가 & 43번가)에서 녹음된 본 음반은 깔끔한 음향과 더불어 사이먼 멀리건의 감미로우면서도 정갈한 편곡과 연주 그리고 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스타인웨이 혁신의 상징, '스타인웨이 스피리오'가 어울려 스타인웨이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있다. 재즈와 클래식의 멋스런 만남을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음악들.
소중한 이와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마리아주'로서 부족함 없는 음반이다.

Tactus www.tactus.it

TC800008 **[세계 최초 녹음]**
보티니: 피아노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롤라: 비올라 협주곡
지아니 비키에리니(피아노), 레모 피에리(클라리넷), 토마소 발렌티(비올라), 루카 '루이지 보케리니'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안파올로 마초니(지휘)
투명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극적 진행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고전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마리아나 보티는 18세에 볼로냐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생전에 그녀의 작품들이 연주되었던 음악사에서 보기 드문 여성 작곡가였다. 하지만 20세에 결혼하고 활동을 중단하여 13~20세에 작곡한 작품들이 남아있다. 〈피아노 협주곡〉과 〈클라리넷 협주곡〉은 20세 부근의 완숙한 시기의 작품으로, 보케리니를 연상시키는 이탈리아 초기 고전의 영향을 받았으며, 보다 투명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알레산드로 롤라는 파가니니의 스승으로, 〈비올라 협주곡〉은 뛰어난 기교와 함께 표정 변화하는 극적 진행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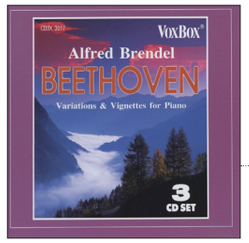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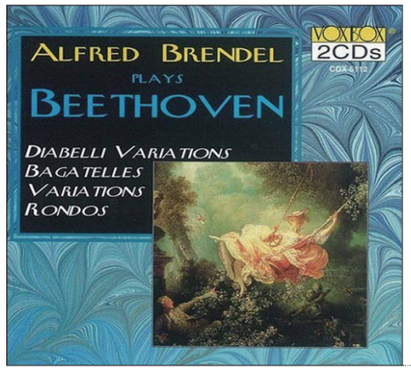
TOCC0390
에베를: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Opp. 35, 49, 50
강희정(피아노), 홍다연(바이올린)
온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밝고 우아한 하모니
안톤 에베를은 모차르트와 같은 때에 같은 곳 빈에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다. 에베를의 음악은 빈의 전형적인 구성을 따르면서 밝고 우아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당대에 그의 명성은 모차르트와 견주어 부족함이 없었고, 심지어 에베를의 작품이 모차르트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였다. 또한 베토벤보다도 인기를 얻었다. 이 음반은 에베를의 바이올린 소나타 세 곡을 수록하고 있다. 노래하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분위기를 리드하는 피아노의 따뜻한 하모니가 온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는다.

VOX www.voxcd.com

VOX 레코드는
1945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레이블 중 하나이다. 설립자 조지 멘들손은 최고의 음악가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희귀한 레퍼토리를 발굴하여 클래식 음악 산업을 부흥시키며, 새로운 녹음 기술과 새로운 매체 등 기술적인 발달에도 동참하여 최고의 카탈로그를 가진 음반사가 되었다. 최근 낙소스 뮤직 그룹으로 인수되어 전설적인 명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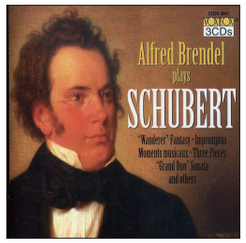


CD3X3017 **[3CDs]**
베토벤: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과 비네트
알프레트 브렌델
변주곡의 황제 베토벤의 모습
브렌델의 1960년대 초반의 음원으로 교향곡 3번의 주제로 시작하는 15개 변주곡과 푸가, 일명 '에로이카 변주곡'를 위시하여 '신이 왕을 구하셨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베토벤의 주옥같은 변주곡들과 소나타 그리고 소품들을 담고 있다. 변주곡의 대가 베토벤의 탁월한 창의성과 상상력, 초기 소나타들의 싱그러운 선율의 매혹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1960년대 초반 브렌델의 녹음을 담은 음반 박스를 '보물박스'라고 하는데, 그만큼 연주의 질과 가치가 높다. 너무도 유명한 바가텔 '엘리제를 위하여' 한곡만 들어봐도 그의 음악이 얼마나 베토벤의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음향도 상당히 좋다.



CDX5112 [2FOR1] [추천음반]
브렌델이 연주하는 베토벤
알프레트 브렌델

이곡들만은 브렌델을 따라올 연주자가 없다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과 바가텔, 안단테 파보리 등을 담고 있는 이 음반은 복스 레이블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다. 브렌델의 베토벤 피아노 음악은 초창기부터 정평이 나있었지만 디아벨리 변주곡과 바가텔 등의 소품 연주는 특히 높은 인기를 끌었다. 브렌델의 디아벨리 변주곡은 펭귄가이드에서도 최고의 연주로 꼽으며 격찬한 바 있지만 장대한 이 후기작의 아름다움을 최초로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브렌델이었다. 타건이 명료하고 선율선은 우아하고 순수하다. 베토벤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특한 세계를 펼쳐나가는데 그의 연주에는 다른 연주자들이 갖추지 못한 위트와 품격이 있다. 바가텔 등 소품들도 브렌델의 연주는 하나의 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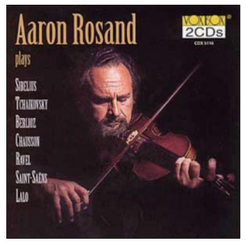


CD3X3041 [3CDs]
알프레트 브렌델이 연주하는 슈베르트
알프레트 브렌델

아주 특별한 브렌델의 젊은 시절의 기록
이제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반열에 속해있는 알프레트 브렌델의 젊은 시절 풋풋한 연주기록이다. 그의 슈베르트 음악은 항상 믿고 듣지만, 젊은 시절의 피아니즘은 특히 보물 레코딩으로 인정받았다. 두 세트의 즉흥곡과 악흥의 순간, 피아노 소품 D.946, 환상곡,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그랜드 듀오', '방랑자 환상곡' 등을 담았고, 1959년, 1962년 빈에서 녹음했다. 그는 평생 슈베르트를 연주했지만, 영원한 청춘의 표상인 슈베르트는 오히려 젊은 시절 풋풋한 감성으로 연주한 연주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브렌델의 슈베르트를 좋아하면서 그의 초기 음반이 없다면 컬렉션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CDX33502 [3CDs]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알프레트 브렌델(pf),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렌델은 평생동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꾸준히 재녹음해왔다. 중후기 녹음들이 학구적이고 보다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 초기 녹음들은 젊은 시절의 녹음이라서 풋풋한 젊음과 생기로 가득하다. 거장의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의 초기 모습은 생생하게 그려진다. 1번부터 경쾌하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듣는 내내 기쁨을 준다. 3번은 브렌델의 묵직한 타건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기교와 뉘앙스 풍부한 톤이 매력적이다. 합창 환상곡에서는 피아노 첫 음이 들릴 때부터 브렌델이 이 즉흥성이 강한 베토벤의 음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준다.



CDX5116 [2FOR1]
애어런 로잰드(Aaron Rosand) 바이올린 연주집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달콤하고 로맨틱한 낭만주의 바이올린의 전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애어런 로잰드는 낭만주의 레퍼토리에 최고의 해석을 들려줬던 연주가다. 그의 톤은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1970년 뉴욕 타임스의 저명한 평론가 해롤드 숀버그가 "지난밤 카네기 홀에서 바이올린의 로맨티시즘이 새로 태어났다"고 했던 말은 유명하다. 아우어의 제자인 짐발리스트를 사사하고 이자이의 제자인 사메티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러시아악파와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양 전통을 모두 이어받은 20세기 마지막 로맨틱 거장이다. CD1에는 시벨리우스 유모레스크를 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우울한 세레나데, 베를리오즈의 꿈과 카프리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쇼송의 시곡 등 명소품을 실었고, CD2에는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이 담겼다.

CDX8160 [추천음반]
애어런 로잰드(Aaron Rosand)가 연주하는 사라사테
애어런 로잰드(vn), 아일린 플리슬러(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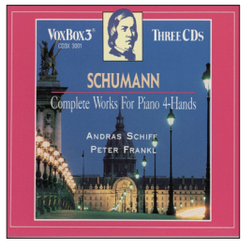
애수에 젖은 톤과 신기에 가까운 기교
불세출의 바이올린 귀재 사라사테가 쓴 명곡들로, 카르멘 환상곡, 치고이너바이젠, 그리고 스페인 무곡과 나바라(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스페인 무곡)등을 담았다. 애수 띤 감성의 선율과 스페인 춤곡의 정열을 만끽하게 한다. 로잰드는 시종 화려하고 고상한 기품이 감도는 세련된 연주를 펼친다. 완급의 완벽한 조절, 절묘한 프레이징,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 섬세하고 치밀한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다. 모두 훌륭하지만 스페인 무곡의 연주가 특히 좋다. 말라게냐를 시작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하바네라, 안달루시아의 로망스는 로맨티시즘의 극치다. 3박자의 스페인 무곡 사파테아도도 화려하고 흥이 넘친다. 절대 놓칠 수 없는 로잰드의 명반이다.

CDX25522 [2FOR1] [추천음반]
가스파르 카사도(Gaspaa Cassado)가 연주하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가르파르 카사도(vc)

기교가 아닌 깊은 정신적 깊이
카잘스의 제자로 스페인 첼로의 거목인 카사도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야노스 슈타커, 마이나르디, 푸르니에, 샤프란 등과 함께 이 명곡의 필수 아이템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9세 때 데뷔 연주회를 보고 감동한 카잘스가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사람이 카사도다. 카사도 연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면서 가장 위대한 점은 깊은 정신성이다. 그의 연주는 화려하지 않고 기교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연소하는 정열과 깊이 침잠하는 사색적인 톤은 가히 놀랍다. 그런 깊이는 로스트로포비치 등 명연주자들한테서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흐의 음악에는 춤곡이 많지만 그의 연주로 듣는 춤곡은 유희가 아니라 현란하지 않은 '영혼의 무곡'이다.

CD3X3022 [3CDs]
류트, 기타, 만돌린을 위한 음악
콘라트 라고싱, 뷔르템베르크 실내 오케스트라 외

편안하고 따스한 정서의 매혹적인 음악들
J.S.바흐의 류트 모음곡, 비발디의 실내 협주곡과 2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카룰리의 기타 협주곡, FM방송의 시그널 뮤직으로도 유명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토렐리의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베토벤의 만돌린 소나티나, 후멜의 만돌린 협주곡 등 주옥같은 명곡들로 가득하다. 모차르트가 극찬한 음악가 후멜의 작품은 아주 이 음반에서 특히 아름답다. 전체 곡들이 대체로 템포를 여유 있게 잡고 있어 아주 편안하게 들린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를 류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편곡한 작품도 이색적이고, 베버의 디베르티멘토도도 흔히 들을 수 없는 신선한 곡이다.



CD3X3001 [3CDs]
환상의 헝가리 듀오에 의한 이중주 작품들
피터 프랑클, 안드라스 쉬프

환상의 헝가리 듀오에 의한 이중주 작품들
슈만의 안단테와 변주곡 op.46(오리지널 버전)은 두 대 피아노와 두 대 첼로 그리고 호른을 위한 작품이다. 나중에 슈만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개작했는데, 이 이중주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슈만 특유의 몽환적인 서정을 보여준다. 언드라시 시프와 이중주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피터 프랑클은 헝가리 출신의 영국 피아니스트다. 화성도 흥미롭고 풍성한 텍스추어에 간결한 선율이 듣는 내내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모두 따스하고, 우아하고,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곡들이다. 폴로네즈 등은 흡사 쇼팽의 음악처럼 들리기도 한다. 흔히 들을 수 없는 슈만의 피아노 음악들이다.

CDX5000 [2FOR1]
베토벤 플루트를 위한 실내음악집
장-피에르 랑팔(플루트) , 로베르트 베이롱-라크루아(피아노)

프랑스 명콤비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플루트 음악
베토벤이 쓴 세레나데 op.41과 변주곡이 딸린 민속선율 op.105와 op.107, 유작인 피아노 3중주곡, 3개의 플루트를 위한 3중주곡, 그리고 소나타를 담은 베토벤 플루트 음악전집이다. 로베르트 베이롱-라크루아는 클라브생과 피아노의 대가로 그뤼미오와 랑팔의 반주자로 유명한 연주자. 그는 랑팔과 40년 콤비였는데, 신기에 가까운 랑팔의 플루트에 완전히 호흡을 맞춘다. 베토벤의 음악으로서는 이색적이고 전아한 분위기의 음악들인데, 흔히 들을 수 없는 신선한 음악들이다. 특히 세레나데 제4곡 '변주가 있는 안단테'는 변주곡의 대가인 베토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위대한 첼로의 여신 재클린 뒤프레의 가장 성공적인 레퍼토리 감격스런 슈만 첼로 협주곡 최초음원 발매!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슈만 가운데 가장 완벽했다." –로스트로포비치

최초로 발매된 첼로 여신의 음반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바렌보임과의 연주가 이미 명연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앨범은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BBC 교향악단과의 연주다. CD로 처음 발매된 음원이다. 1962년 12월 12일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인데, 이때 뒤프레는 슈만의 협주곡을 처음 대중 앞에서 연주했다. 콘서트를 앞두고 뒤프레는 폴 토르틀리에와 이 작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66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로스트로포비치한테 이 협주곡을 연주해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슈만 가운데 가장 완벽했다." 남성적인 힘이 넘치면서도 가슴 깊이 파고드는 정감, 그리고 아득한 낭만적 환상으로 가득한 연주다. 특히 2악장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은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음원으로 이것 역시 음반으로 처음 나왔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이후 1977년에 줄리니와 이곡의 스튜디오 녹음을 하게 된다. 아무튼 이 에든버러 콘서트 음원 역시 당시 「더 타임스」가 줄리니의 탁월한 해석과 함께 극찬했던 것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아리아를 싣고 있는데, 로스트로포비치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7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그의 부인 갈리나 비쉬네프스카야(소프라노)의 노래를 반주한다.

ICAC5149 **[추천음반]**

슈만 첼로 협주곡

재클린 뒤프레(첼로), 마르티농, BBC교향악단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로스트로포비치(첼로), 줄리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보조자료]

[위대한 낭만주의 첼로 협주곡]

슈만이 남긴 a단조 첼로 협주곡(Op.129)은 낭만주의 첼로 협주곡의 최대 걸작 가운데 하나다. 중후한 품격에 로맨틱한 우수를 머금은 악상, 심오한 정서적 깊이를 가진 작품이다. 슈만은 첼로 협주곡을 그의 나이 40세 때인 1850년에 썼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뒤셀도르프의 음악감독이 된 직후인 1850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쓴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2주 만에 탄생한 작품인데, 슈만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대작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놓을 수 있었는지, 그 작곡배경은 슈만의 놀라운 집중력과 천재성을 보여준 사건이면서 하나의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 뛰어난 작품이 당대에는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미 고전주의 시대에도 하이든, 보케리니 등 몇몇 작곡가들의 첼로 협주곡들이 있었지만, 초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당시에 여전히 첼로보다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쓰고 있었다. 더군다나 슈만의 작품은 첼로 독주자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고난도의 기교를 요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명곡은 작곡가 생존 시에는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다. 다만 슈만이 세상을 떠나고 4년 후인 1860년 4월 23일에 독일 북서부의 올덴부르크에서 초연된 적이 있을 뿐이다.

[뒤프레의 가장 성공적인 레퍼토리]

슈만의 협주곡 연주는 오랫동안 만족스런 것이 드물었다. 첼로 독주자의 비범한 기량과 특별한 상상력, 그리고 고도의 음악성을 요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늘날에도 유명세에 비해 온전히 흡족한 연주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주목할 만한 연주 몇 가지는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뒤프레의 연주다. 196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불세출의 여성 첼리스트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하나의 중요한 빛을 던져줄 때, 사람들을 최초로 가장 매혹시켰던 협주곡 레퍼토리는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었다.

재클린 뒤프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최고의 명연주 레퍼토리를 손꼽으라면, 우선 딱 세 가지가 꼽힌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그리고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다. 그만큼 그 세 가지 연주는 그 누구의 연주와 비교해도 가장 감동적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뒤프레의 가장 성공적인 레퍼토리를 꼽으라면, 단연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다. 슈만의 협주곡은 그가 데뷔 초기에 자신의 주요 무기로 들고 다니던 음악이다.

뒤프레의 공식 데뷔는 16세 때인 1961년 3월 런던의 위그모어홀에서였다. 당시 그녀는 헨델, 브람스, 드뷔시의 소나타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등을 연주했다. 협주곡으로 데뷔한 것은 이듬해 1962년 3월이다.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했다. 1962년 9월에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데뷔무대를 갖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2번을 연주했고, 이어 베를린에서는 마침내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했다. 이 음반의 음원은 1962년 12월 12일의 것인데, 바로 그녀가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대중 앞에 막 선보였을 즈음의 일이다. 그녀는 파리에서 데뷔하고 나서는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 6개월간 폴 토르틀리에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날의 콘서트를 앞두고도 뒤프레는 이미 폴 토르틀리에와 이 작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르틀리에는 그의 애제자 뒤프레가 슈만의 협주곡을 다루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해줄 말이 별로 없음을 느꼈다. 이후 1966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공부할 때 역시 자신의 선생 로스트로포비치한테도 이 협주곡을 연주해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슈만 가운데 가장 완벽했다." 남성적인 힘이 넘치면서도 가슴 깊이 파고드는 정감, 그리고 아득한 낭만적 환상으로 가득한 연주에 로스트로포비치는 그만 혀를 내둘렀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

재클린 뒤프레의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바렌보임과 결혼한 이듬해인 1968년에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것이 이미 명연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중요한 음원이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소개하는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BBC 교향악단과의 연주다. 처음 발매된 음원으로, 1962년 12월 12일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이고, 슈만 협주곡의 최초음원이다. 그러니까 바렌보임과의 명 녹음보다 4년 전의 음원인 셈이다. 물론 바렌보임과의 연주가 훨씬 음향 밸런스는 좋다. 하지만 마르티농과의 연주는 실황의 아우라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며 보다 가슴에 사무치는 연주로 들린다. 이는 보다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의미도 되겠다.

뒤프레 연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스케일이 크고 고혹적인 톤이다. 그 큰 스케일은 힘센 남성 연주자들을 압도할 정도이며, 그 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1악장 도입부 폭넓은 음역에서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유려한 보잉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반해버린다. 오케스트라와의 섬세한 교감, 완벽한 음정의 뛰어난 기교에 저절로 흡족한 미소가 지어진다.

바렌보임과의 녹음에서도 많은 비평가들이 2악장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 마르티농과의 연주에서도 안으로 연소하는 내성적 정열을 담은 2악장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풍부한 표정으로 5도 하행했다가 올라가는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 말은 데뷔 초 10대의 앳된 아가씨가 커다란 첼로를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현을 끊어버리려는 듯 그어 내릴 때 그 웅혼한 남성적인 스케일과 절절한 선율에 반한 비평가들이 즐겨 쓰던 말이다. 중간부에 나오는 더블 스토핑에서는 뒤프레만큼 가슴을 후벼 파는 연주자를 보지 못했다. 그것은 활을 세게 긋는다고 느껴지는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뒤프레는 애잔하면서도 아득한 정서로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든다.'

3악장까지 끝나자 곧바로 터져 나오는 박수소리에 이것이 실황녹음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정도로 청중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깨끗한 녹음이다. 참고로, 뒤프레는 일생동안 두 대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1673년산과 1712년산이다. 그녀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1673년산을 사용했으므로 이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1673년 스트라디바리우스다. 그러고 보니 음색 또한 참으로 고색창연하다.

[로스트로포비치 연주의 드보르자크 협주곡]

이 음반에는 뒤프레의 선생이기도 했던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하는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이 커플로 올라있다.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음원이다. 1962년 9월 6일 녹음된 것인데, 이것 역시 음반으로는 처음 나왔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이후 1977년에 줄리니와 이곡을 스튜디오 녹음으로 내놓게 된다. 아무튼 이 에든버러 콘서트 음원 역시 당시 「더 타임스」가 줄리니의 탁월한 해석과 함께 극찬했던 연주를 담고 있는 것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아리아를 싣고 있는데, 로스트로포비치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7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그의 부인 갈리나 비쉬네프스카야(소프라노)의 노래를 반주한다. 보너스 트랙은 1962년 8월 23일 녹취된 것이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19 [DVD]
Accentus ACC10419 [Blu-ray]

accentus music

2017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드보르자크 '루살카 중-아리아', '신세계' 교향곡

안드리스 넬슨스(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소프라노)

라이프치히의 새 바람이자 젊은 이정표, 안드리스 넬슨스!

2005~16년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를 이끌었던 샤이에 이어 안드리스 넬슨스는 2017/18 시즌부터 LGO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샤이의 팬들에게 넬슨스의 존재는 살짝 못 미덥겠지만, 2017년 5월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을 보면 넬슨스의 젊음과 해석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넬슨스의 부인인 오폴라이스는 니콜 키드먼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자태는 물론 그리 힘들이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뽑아내는 발성으로 '루살카'의 주요 아리아를 소화하고, 넬슨스는 '신세계' 교향곡에서 놀라운 감촉의 선율을 뽑아낸다. 라이프치히에 부는 새로운 변화!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지하는 이는 영상 속에서 열광하는 관객들이다. 한글 자막, 33쪽 부클릿에는 '신세계로부터'에 관한 해설(독 · 영 · 불어)이 수록.

[보조자료]

– 늦은 나이에 잡은 지휘봉이지만, 안드리스 넬슨스만큼 승승장구한 지휘자가 있을까? 24세에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 29세의 젊은 나이로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12대 음악감독으로 지명된 그는 2015년, 세계 최고(最古)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로부터 2005~16년에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한 리카르도 샤이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넬슨스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보스턴 심포니와 유럽에서 가장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표 오케스트라 두 곳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셈이다.

– 넬슨스는 2017/18 시즌부터 LGO와 합을 맞추고 있다. 그의 연주는 올해(2018년) 2월에 국내에도 생중계되면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O의 팬들에게 넬슨스는 샤이의 무게와 정통을 이어받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지휘자로 취급된다. 이 영상물은 넬슨스와 LGO의 미래로 다가가는 이정표와도 같다. 2017년 5월, 라이프이치 게반트하우스에 오른 LGO 실황으로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와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담은 영상물이다.

– 넬슨스는 드보르자크의 연주회용 서곡 '오텔로'로 막을 연다. 이윽고 넬슨스의 부인인 소프라노 오폴라이스가 함께 하여 오페라 '루살카' 중 '달의 노래',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른다.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자태, 그리 힘들이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뽑아내는 발성을 보여주는 그녀의 힘과 넬슨스의 지휘력이 탁월하게 맞물려 들어간다. '루살카' 중 '폴로네이즈' 연주 후에 다시 등장한 오폴라이스는 스메타나 '달리보르' 중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와 '루살카' 중 '그건 소용 없어' 등을 부른다.

– 성악가는 퇴장했지만, 2부를 장식하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에서 넬슨스는 레이어에 서려 있는 멜로디의 감촉을 자아낸다. 넬슨스의 편안한 연주가 샤이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다소 밋밋하게 다가갈테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영상 속에서 열광하는 관객들이다. 넬슨스는 드보르자크의 슬라브무곡 2번 Op.72로 관객들에게 보답한다.

– 한글 자막을 갖췄으며, 33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신세계로부터'에 관한 해설(독 · 영 · 불어)이 수록되어 있다.

Accentus ACC20427 [DVD]
Accentus ACC10427 [Blu-ray]

2017 취리히 오페라 실황 – 마스네 '베르테르'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베르테르), 애나 스테파니(샤를로트), 멜리사 프티(소피), 코넬리우스 마이스터(지휘),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취리히 오페라극장 합창단, 타티아나 귀르바카(연출), 무대미술(클라우스 그륀베르크)

진정한 베르테르, 후안 디에고의 눈물과 목소리

2017년 4월 취리히 오페라극장 실황으로 주인공은 당연히 베르테르 역의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이다. 3막 아리아 '봄의 숨겨이여, 왜 나를 깨웠는가?'는 그가 지닌 프랑스 레퍼토리 중 최고의 병기다. 애나 스테파니는 베르테르의 광기에 의해 흔들리는 샤를로트의 심정과 표정을 실감나게 그려낸다. 불안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마스크는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선사한다. 코렐리우스 마이스터의 지휘는 진중한 울림의 기둥을 세우고, 주인공들의 눈물은 그 기둥을 타고 관객석을 적신다. 귀르바카(연출)와 그륀베르크(무대미술)의 무대는 작으면서도 사랑에 관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는 슬픔의 성소가 된다. 해설지(45쪽 구성)에는 플로레스, 연출가, 무대미술가의 인터뷰(영 · 불 · 독어)가 수록.

[보조자료]

– 시인 베르테르는 약혼자 알베르가 있는 샤를로트를 사랑한다. 결국 샤를로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견디지 못한 그는 그녀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면서도 흔들리는 샤를로트. 결국 그녀는 만류하고 베르테르는 알베르의 권총으로 자결한다. '베르테르'는 1892년 빈 국립오페라극장 초연 이후, 1893년에 프랑스어로 개작되었다. 마스네의 작품에는 대개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유독 주인공이 남성인데다가, 상대역이 정숙한 여성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결말에 이르러 여주인공들이 죽는 것과 달리, 죽음이 베르테르를 향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 2017년 4월 취리히 오페라극장에 오른 이 프로덕션의 주인공은 당연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3막의 아리아 '봄의 숨겨이여, 왜 나를 깨웠는가?'는 그가 지닌 프랑스 레퍼토리 중 최고의 병기다. 이 한 곡에, 그는 사랑을 안고 죽음에 다다르는 베르테르의 복잡한 심정을 담아낸다. 메조소프라노 애나 스테파니는 베르테르의 광기에 의해 흔들리는 샤를로트의 심정과 표정을 실감나게 그려낸다. 불안과 눈물에 젖은 그녀의 마스크는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선사한다. 지휘자 코넬리우스 마이스터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며, 2010년부터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RSO)의 수석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주인공들의 비극에는 마이스터가 이끌어내는 두텁고 진중한 관현악의 울림이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는 마스네로부터 바그너적 감각과 음악적 샘물을 퍼올린다. 1774년에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를 출간했고, 1893년 마스네는 오페라 '베르테르'를 발표했다. 이 프로덕션의 연출가 타티아나 귀르바카는 작품의 소품과 배경을 20세기 감각으로 포장했다. 귀르바카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극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2007년부터 매년 역작이라 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내놓고 있다. 베르디 '아이다'(2014/취리히 오페라),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2016/앤트워프 오페라)과 '로엔그린'(2016/에센 알토 극장) 등이 최근의 대표작. 클라우스 그륀베르크(무대미술)가 디자인한 무대는 '라 보엠'의 다락방을 연상시킬 정도로 좁고도 아늑하다. 그러면서 베르테르의 광적인 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 출구 없는 좁은 방이 되어, 작품의 긴장도를 높인다. 해설지(45쪽 구성)에는 후안 디에로 플로레스, 연출가 귀르바카, 무대미술가 그륀베르크의 상세한 인터뷰(영 · 불 · 독어)가 수록되어 있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49 [DVD]
BelAir BAC449 [Blu-ray]

잉마르 베르만 탄생 100주년
안무가의 눈으로 바라본 잉마르 베르만

알렉산더 에크만, 페르 이스베리, 폰투스 리드버그, 요아킴 스테펜슨(안무)

신의 침묵을 닮은 영화감독을, 춤으로 추모하다

스웨덴의 영화 거장 잉마르 베르만(1918~2007)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웨덴을 대표하는 4명의 안무가들이 만든 오마주 작품 4개를 담은 영상물이다. 무대를 위해 태어난 무용작품들이지만, 각 장면들을 담아내는 카메라의 손길은 베르만의 손길처럼 초현실주의적이다. 각 작품들은 연극의 모놀로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경비행기와 연인, 베르만의 대표작 '페르소나'를 주요 소재와 표현도구로 삼는다. 춤을 보고 있자니 베르만 특유의 미장센이 떠오른다. 안무가들이 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영감을 얻어 작업에 임하는 다큐멘터리 '무대 뒤에서'(39분 분량)도 수록되어 있다. 무용에 삽입된 독백, 다큐멘터리의 자막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베르만과 안무가들의 예술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조자료]

– 51분 동안 이어질 영상이 시작되면 '잉마르 베르만–4인의 안무가, 베르만을 해석하다'라는 자막이 뜬다.

– '잉그마르 베르히만' '잉마르 베리만' '잉마르 베르만' 등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스웨덴의 영화 거장 베르만(1918~2007)은 청년기를 연극계에 투신했으며, 1946년 영화 '위기'로 감독 데뷔를 했다. 그의 작품 중 초기작에 속하는 '제7의 봉인'(1957)과 '산딸기'(1957)는 신학과 철학적 사유로 점철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진 후에도 베르만은 수많은 '3부작'을 남겼다.

– 베르히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필름에는 총 4개의 안무작이 들어가 있다. 무대를 위한 예술로 태어난 무용작품이지만, 그 장면들을 담아내는 카메라의 손길은 베르만의 손길처럼 초현실주의적이다. 묘한 영화적 상상력을 일으키는 연극 무대 같다.

– 영상물에는 4개의 작품이 들어 있다. (1)알렉산더 에크만의 '베르만과 춤에 대한 어떤 생각들', (2)페르 이스베리의 '연결–밴드–사라방드', (3)폰투스 리드버그의 '사전 연구', (4)요아킴 스테펜슨의 '오네퍼스'이다. (1)은 독무로, 연극의 모놀로그를 보는 것 같다. (2)는 경비행기를 실제 소품으로 등장시키고, 여행을 떠난 두 남녀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에 맞춰 미묘한 감정의 춤을 춘다. (3)은 가만히 서 있는 말을 배경으로 남성 무용수의 아크로바틱한 움직임, 여성의 독백,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몽환적인 작품이다. 두 여성무용수가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움직임과 극적 대화로 진행하는 (4)는 베르만의 대표작 '페르소나'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연상시킨다. 안무가들은 발틱해 연안의 파로 섬에 위치한 베르히만의 집을 방문하여 영감을 얻는다. 이 과정은 다큐멘터리 '무대 뒤에서'(39분 분량)에 잘 담겨 있다. 무용에 삽입된 독백, 다큐멘터리의 자막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베르만과 안무가들의 예술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함께 추천해요!] – 스웨덴 무용과 음악의 독특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
2016 스웨덴 왕립 발레단의 '한 여름밤의 꿈'(BelAir BAC 141)
알렉산더 에크만(안무), 미가엘 칼송(음악), 안나 본 하우스볼프(노래)

BelAir BAC217 [2DVDs]
BelAir BAC517 [Blu-ray]

2004 샹젤리제극장 실황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루카 피자로니(피가로), 안네트 다슈(백작부인), 로즈마리 조슈아(수잔나), 안젤리카 키르슐라거(케루비노), 르네 야콥스(지휘), 콘체르토 쾰른, 장 루이스 마르티농(연출)

2004년 르네 야콥스의 역작을 고화질로 다시 만나다!

2004년에 발매한 '피가로의 결혼'(armonia Mundi) 음반으로 그라마폰 어워드 '올해의 음반상'을 거머쥔 르네 야콥스는 2004년 6월 샹젤리제극장의 '피가로의 결혼' 실황 영상물(Bel Air Classiques)을 2007년에 내놓으며 관객과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2007년 당시 DVD로 만나볼 수밖에 없었던 '피가로의 결혼'을 이젠 고화질의 블루레이 영상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콘체르토 쾰른의 생생한 콘티누오와 시대악기의 활력 넘치는 경쾌한 템포는 눈을 감고 감상하더라도 야콥스식의 해석이 녹아 있다. 발매 당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로즈마리 조슈아(수잔나 역)와 안네트 다슈(백작부인 역)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빈 슈타츠오퍼에서 케루비노 역으로 데뷔하며 케루비노 역의 역사를 다시 썼던 메조소프라노 키르흐슐라거의 13년 전 모습은 풋풋하고 이지적으로 다가온다. 18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작품해설과 연출가노트(불 · 영 · 독어)가 수록.

[보조자료]

– 2004년에 발매한 '피가로의 결혼'(armonia Mundi) 음반으로 그라마폰 어워드 '올해의 음반상'을 거머쥔 르네 야콥스는 2004년 6월 샹젤리제극장의 '피가로의 결혼' 실황 영상물(Bel Air Classiques)을 2007년에 내놓으며 관객과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2007년 당시 DVD로 만나볼 수밖에 없었던 '피가로의 결혼'을 이젠 고화질의 블루레이 영상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샹젤리제 극장의 무대는 젊고 매력적인 가수들을 이끌고 작품을 처음부터 새롭게 파고드는 신선함으로 흘러넘치며, 실황의 열기와 활력이 더해진다. 콘체르토 쾰른의 생생한 콘티누오와 시대악기의 활력 넘치는 경쾌한 템포는 여전하다. 기악진의 속도감을 놓지 않으면서도 르네 야콥스의 지휘는 세심하고 성악진과 기악의 완벽한 균형을 추구한다.

– 무엇보다 매력은 야콥스의 섬세한 지휘와 호흡을 맞추는 성악진이다. 케루비노 역의 키르슐라거를 제외하곤 주요 배역이 아르모니아 문디의 음반과 다른데, 발매 당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로즈마리 조슈아(수잔나 역)와 안네트 다슈(백작부인 역)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반갑다. 루카 피자로니(피가로 역)와 로즈마리 조슈아의 호흡은 여느 오페라극장의 프로덕션보다 빛을 발한다.

– 무엇보다 2004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한 케루비노 역의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흐슐라거의 모습과 존재는 2017년에 다시 태어난 고화질의 영상물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빈 슈타츠오퍼에서 케루비노 역으로 데뷔하며 케루비노 역의 역사를 다시 썼던 그녀는 오늘날 '잘츠부르크의 별'로 통하는 목청의 소유자. 내한 경력은 없지만 음반을 통해 국내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그녀의 13년 전 모습은 풋풋하고 이지적이다. 연출가 장–루이스 마르티농은 실비 드 세곤작의 의상과 쿠키 샤팔롱의 무대 디자인을 통해 18세기의 시대적 감각을 무대에 녹여 넣었다. 18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작품해설과 연출가노트(불 · 영 · 독어)가 수록.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3908 [2DVDs]
C Major 744004 [Blu-ray]

2016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 실황
차이콥스키 '스페이드의 여왕'

마리스 얀손스(지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스테판 헤르하임(연출), 미샤 디디크(게르만), 라리사 디아드코바(백작부인), 스베틀라나 악세노바(리사), 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옐레츠키)

얀손스와 RCO의 '찬란한 차이콥스키'

2016년 6월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에 오른 이 작품은 얀손스의 지휘, '해석'을 넘어 '제2의 창작물'에 가깝다는 평을 들은 스테판 헤른하임의 연출로 큰 화제가 된 작품이다. 도박에 미친 게르만의 거짓된 사랑과 마지막에 환영처럼 등장한 스페이드 카드 속의 백작부인을 보고 미쳐 죽는다는 줄거리의 오페라이다. 얀손스의 지휘는 안정적인 템포와 찬란한 음색이 빛난다. 여러 프로덕션에서 게르만 역으로 명성을 날린 미샤 디디크(게르만 역)가 선사하는 러시아 드라마틱 테너의 절정, 스베틀라나 악세노바(리사 역)의 짙은 음색이 매력적이다. 헤른하임의 연출은 서막부터 동성애 코드, 권고 자살, 폰 메크 부인의 초상화를 등장시켜 차이콥스키를 연상케 한다. 콘서트 중심의 RCO가 간만에 선보인 오페라로, 얀손스 마니아라면 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역작이다.

[보조자료]

–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이하 RCO)는 콘서트 중심의 오케스트라지만, 간혹 맡는 오페라는 늘 흥행과 화제를 낳곤 한다. 2016년 6월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에 오른 이 작품은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해석'을 넘어 '제2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스테판 헤른하임의 연출로 큰 화제를 낳았던 작품이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도 이 작품을 연주하여 2016년 BR KLASSIK 레이블에서 음반으로 발매한 얀손스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유명하다. RCO와 함께 한 연주는 여유 있고 안정적인 템포로 RCO만의 찬란한 음색을 이끌어낸다. 처절한 차이콥스키가 아니라 밝고 활발한 사운드다.

– 1890년에 초연한 '스페이드의 여왕'은 1893년에 사망한 차이콥스키의 말년작이다. 주인공 게르만(미샤 디디크)은 도박에 중독된 이로, 돈을 딸 수 있는 카드의 비밀을 알고 이는 백작부인(라리사 디아드코바)에게 접근하고자 리사(스베틀라나 악세노바)를 거짓으로 사랑하고, 결국 백작부인은 이런 그를 저주하듯 미치게 하며 막을 내리는 줄거리다.

– 성악진은 BR KLASSIK 음반과 많이 겹친다. 여러 프로덕션에서 헤르만 역으로 명성을 날린 미샤 디디크(게르만 역)는 러시아 드라마틱 테너의 절정을 보여주고, 스베틀라나 악세노바(리사 역)는 짙은 음색을 자랑한다. 라리사 디아드코바(백작부인 역)는 캐릭터에 걸맞는 신비한 분위기로 일관한다. 차이콥스키와 옐레츠키(리사의 약혼자) 역의 바리톤 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는 짧은 등장을 이어가지만, 임팩트 있는 목소리로 출연마다 강한 임팩트를 남긴다.

– 헤른하임의 연출은 서막부터 동성애 코드, 권고 자살, 폰 메크 부인의 초상화를 등장시켜 차이콥스키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도입도 팬들의 논쟁을 빚는 데에 한몫했다.

[함께 추천해요!] **헤르만 역의 명수 미샤 디디크의 다른 프로덕션**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2010년 실황(OPUS ARTE OA1050)/미하엘 보더(지휘), 질베르트 드플로(연출)

C Major 743708 [DVD]
C Major 743804 [Blu-ray]

2016 라스칼라 극장 실황
마시밀리아노 볼피니의 발레 '사랑의 정원'

마시밀리아노 볼피니(안무), 라스칼라 발레, 프란체스코 마나라(바이올린) 외

모차르트의 '호두까기 인형'이라 불러도 좋을 역작!

발레 '사랑의 정원'은 모차르트 서거 225주년이던 2016년, 마시밀리아노 볼피니의 안무로 라스칼라 발레가 선보인 세계 초연작이다. 이 작품은 18세기풍 정원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연인이 오페라(피가로의 결혼 · 돈 조반니 · 코지 판 투테 · 마술피리)의 캐릭터들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난다는 줄거리다. 온 가족이 모여 관람해도 좋을 이 작품은 원색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돋보이며, '모차르트의 호두까기 인형'이라 부르고 싶을 정도로 장면마다 동화적인 상상력이 살아 있다. 플루트 4중주 · 오보에 4중주 · 클라리넷 5중주 K581 등 완성도 높은 관악실내악곡들과 균형잡힌 연주가 빛을 빛나게 하기에, 모차르트의 관악곡 마니아들에게도 좋은 영상물이 될 것이다.

[보조자료]

– '사랑의 정원'은 모차르트 서거 225주년이던 2016년, 마시밀리아노 볼피니의 안무로 라스칼라 발레가 선보인 세계 초연작으로, 모차르트의 실내악과 오페라 속의 캐릭터를 엮어 한편의 발레극으로 연출한 작품이다.

– 총 6장 구성으로, 18세기 바로크양식으로 잘 다듬어진 초록빛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장춘몽의 줄거리이다. 1장에서 연인은 정원의 미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길을 잃는다. 2장, 정원에서 남자(로베르토 볼레)는 '피가로의 결혼'의 등장인물들(알마비바 · 피가로 · 수잔나 · 로지나)을, 여자(니콜레타 만니)는 '돈 조반니'의 인물들을 만난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모차르트 음악에 맞춰 발레로 보는 듯하다. '코지 판 투테'의 인물들(피오딜리지 · 도라벨라 · 굴리엘모 · 페란도)들이 등장하는 3장을 지나 5장에 이르면 미로의 중심에 도착한 연인은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마르타 로만나)을 만나고 정원의 향연이 펼쳐진다. 그러고 나서 6장에서 두 사람은 꿈에서 깨어난다.

– 온 가족이 모여 관람해도 좋을 정도로 각 장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연두 · 빨강 · 분홍색 등의 의상을 입고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들처럼 춤을 선사한다. '모차르트의 호두까기 인형'이라 하고 싶을 정도로 장면마다 볼피니의 동화적인 상상력이 돋보이고, 남녀가 함께 하는 2인무는 모든 무용수들의 빼어난 호흡을 자랑한다.

– 이 작품은 특히 모차르트의 관악 실내악을 선호하는 마니아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독차지할 것이다. 오케스트라 피트에 위치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체스코 마나라 외 6명의 연주자들은 플루트 4중주 K285, 플루트 4중주 K.298 · K285b, 오보에 4중주 K370, 클라리넷 5중주 K581 등을 연주하고, 경쾌한 운율과 로맨틱한 느린 악장에 맞춰 춤의 향연이 진행한다. 관악 실내악에 담긴 경쾌한 리듬을 볼피니의 안무가 무대화한 것이다.

C Major 744608 [DVD]
C Major 744704 [Blu-ray]

2017년 뮌헨 필하모닉홀 브루크너 교향곡 1번(1868 린츠 버전) 실황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지하의 브루크너를 깨우는 틸레만의 놀라운 지휘!

2017년 9월, 뮌헨 필하모니 홀 실황으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1번(1868 린츠 버전)이다. 유니텔 클라시카를 통해 틸레만은 뮌헨 필과 브루크너 교향곡 4번과 7번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교향곡 4번 · 5번 · 8번 · 9번을 쏟아내고 있다. 브루크너의 세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틸레만의 자세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푸르트벵글러, 클렘페러 등의 독일계 지휘자들이 남긴 유산의 무게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후예의 브루크너가 궁금하거나, 이미 이 시리즈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에게 서슴없이 추천하고 싶은 영상물이다. 틸레만 특유의 티케일과 눈부실 정도의 폭넓은 다이내믹, 정성스러울 정도로 쏟아 붓는 부드러움 모두를 느낄 수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9월, 뮌헨 필하모니 홀 실황 영상물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연주한 브루크너(1824~1896)의 교향곡 1번(1868 린츠판본)이다.

– 1548년 창단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베버 · 바그너에 이어 20세기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67년간 음악감독을 맡은, 이른바 '살아있는 서양음악사'로 불리는 악단이다. 올해로 이다. 올해로 창단 470년을 맞은 이 악단을 2012년부터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수석지휘자로 취임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부르크너 교향곡 1번의 린츠 판본은 1865~66년에 작곡되었고, 빈 판본은 1890~91년에 완성되었다. 작곡가는 스스로 교향곡에 '건방진 부랑아(The Saucy Maid)'라는 별명을 붙여 넣었다. 초연은 린츠 구판이 1868년 5월 9일, 빈 신판이 1891년 12월 13일에 되었다. 틸레만은 1868년에 초연된 린츠 판본을 택하고 있다.

– 틸레만의 지휘봉은 1악장 알레그로에서 디테일과 민첩함으로 빛난다(13:27). 2악장 아다지오는 정성스러울 정도로 부드럽고(13:34), 3악장 스케르초는 폭넓은 다이내믹 표현으로 스케일과 장식 악절에서 눈부시게 명료한 아티큘레이션을 구사하고(8:12), 4악장 피날레는 우렁차고 균형감과 디테일을 훌륭히 완성시킨다. 음악과 영상의 조화도 일품. 특히 관악 독주의 시작을 잡아내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재빠르며 영상에 더욱더 집중하게 한다. PCM 스테레오/DTS 5.0/서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 틸레만과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뮌헨 필하모니 홀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유니텔 클라시카 발매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브루크너 시리즈]

–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4번 '로맨틱', 7번
(Cmajor DVD 701908/ Blu-ray 712304)
–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교향곡 4번(Cmajor DVD 732508/ Blu-ray 732604)
–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교향곡 5번(Cmajor DVD 717808/ Blu-ray 717904)
–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교향곡 8번(Cmajor DVD 716108/Blu-ray 716204)
–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교향곡 9번(Cmajor DVD 733308/Blu-ray 733404)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72 [DVD]
Dynamic 57772 [Blu-ray]

2015 테아틀로 카를로 펠리체 실황 조르다노 '페도라'

다니엘라 데시(페도라), 파비오 아르밀리아토(로리스), 다리아 코발렌코(올가)/발레리오 갈리(지휘), 데아트로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 · 합창단, 로제타 쿠치(연출)

비운의 프리마돈나를 위한 오마주

'안드레아 세니에'의 작곡가 조르다노(1867~1948)의 또 다른 성공작 '페도라'의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이탈리아 제노바) 2015년 실황 영상물로, 2016년에 59세로 사망하여 국내에까지 슬픈 소식을 전한 소프라노 다니엘라 데시의 1년 전 활약상을 담고 있다. 약혼자가 살해당한 뒤, 용의자로 지목된 로리스와의 오해를 풀고 그와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페도라의 이야기다. 아리아 '성실함으로 빛나는 큰 눈동자여!(2번 트랙)'와 로리스와의 이중창 '금지된 사랑(10번 트랙)'을 부르는 데시의 목소리는 슬프되 질척이지 않고, 기교적이되 중후함으로 빛난다. 해설지는 13쪽 분량으로 작품 해설(이탈리아 · 영어)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이탈리아 제노바)의 2015년 실황 영상물로, '안드레아 세니에'를 작곡한 움베르토 조르다노(1867~1948)의 또 다른 성공작 '페도라'이다.

– 앨범 재킷을 장식한 이는 타이틀롤을 맡은 소프라노 다니엘라 데시. 2016년 8월 20일 5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다아내믹 레이블은 그녀의 죽음 1년 전에 촬영된 이 영상물을 통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한다.

– 총 3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1막), 파리(2막), 스위스(3막)를 배경으로 하며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그리고 있다. 제정 러시아 말기 황실의 귀족 여인 페도라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 블라디미르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는다. 그런데 살인자로 심증이 가는 젊은 귀족 로리스는 페도라를 죽도록 사랑한다. 페도라는 그의 사랑을 이용해 자백을 받고 고발한다. 하지만 살인의 배경이 약혼자 블라디미르와 로리스의 아내 간의 간통임을 알고 로리스를 용서하고 그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자신의 고발 탓에 로리스의 형과 모친이 죽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페도라는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다.

– '페도라'가 낯선 이라도 몇 개의 아리아를 통해 조르다노의 세계와 이 작품에 금새 빠져들게 될 것인데, 페도라가 노래하는 1막의 아리아 '성실함으로 빛나는 큰 눈동자여!(2번 트랙)'와 2막에서 페도라와 로리스(파비오 아르밀리아토)의 이중창 '금지된 사랑(10번 트랙)'이 듣는 이를 감동의 세계로 안내한다. 다니엘라 데시의 목소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진 비극의 여인을 연기하는 만큼 그 풍성한 성량과 표정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진다. 2006년 내한하여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선사한 그녀를 통해 잊지 못할 기억을 새긴 이에게 이 영상물은 또 다른 감회를 선사할 것이다. 간주로 진행되는 발레리오 갈리의 지휘와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다니엘라 데시의 목소리만큼 애절하다. 해설지는 13쪽 분량으로 작품 해설(이탈리아 · 영어)이 수록되어 있다.

Dynamic 37769 [DVD]
Dynamic 57769 [Blu-ray]

2016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마르코 카리아(루나 백작), 안나 피로치(레오노라), 피에로 프리티(만리코), 프란시스코 네그린(연출), 다니엘 오렌(지휘), 마르셰 레지오날레 폰다치오네 오케스트라

연출가의 상상력 vs 베르디의 음악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 스테리오(Sferisterio) 야외극장에 2016년 7~8월에 오른 실황. 이 작품은 레오노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연인 만리코를 죽이지만 결국 친형제였음을 깨달은 루나 백작의 저주와 비극을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프란시스코 네그린(b.1963)의 공간 활용은 독특하다. 가로로 길게 설치된 테이블에는 집시들이 앉아 이 작품의 백미인 '대장간의 합창'(10번 트랙)을 부르거나, 때로는 운명의 다리가 되어 만리코와 루나 백작을 마주치게 하기도 한다. 영상 속의 묘한 공간감은 예술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온다. 마르코 카리아 · 안나 피로치 · 피에로 프리티는 신의 캐스팅이다. 2막의 피날레에서 물이 오른 세 사람은 복잡하고 난해한 성부로 점철되어 있는 3 · 4막을 매끄럽게 돌파하는 괴력을 보여준다. 13쪽 분량의 해설지(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 해설과 줄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의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출가 프란시스코 네그린(b.1963)의 독특한 무대 때문일 것이다.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 스테리오(Sferisterio) 야외극장에 2016년 7~8월에 오른 실황으로, 2013년 초연된 프로덕션의 앙코르 공연을 담고 있다. 가로로 길게 뻗은 대형무대를 독특하게 활용하고 있는 네그린의 연출적 상상력은 매력적이다.

– '일 트로바토레'의 루나 백작은 귀족 처녀 레오노라를 사랑한다. 하지만 레오노라는 시인 만리코와 사랑하는 사이. 만리코를 포로로 잡은 루나 백작에게 레오노라는 석방을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하지만 이내 자살을 선택하고, 만리코 역시 죽음을 맞는다. 그러자 만리코의 어머니 아수세나는 루나 백작과 만리코가 친형제였음을 알리는 비극의 내용이다.

– 2014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선보인 빙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네그린의 연출은 스테리오 극장의 방대한 공간을 파격적으로 활용한다. 검은색과 어두운 조명은 작품의 비극을 상징한다. 가로로 길게 설치된 테이블에는 집시들이 앉아 이 작품의 백미인 '대장간의 합창'(10번 트랙)을 부르거나, 때로는 운명의 다리가 되어 만리코와 루나 백작을 마주치게 하기도 한다. 영상 속의 묘한 공간감은 이 영상물이 예술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게 한다.

– 루나 백작 역의 바리톤 마르코 카리아, 레오노라 역의 안나 피로치, 만리코 역의 피에로 프리티는 신의 캐스팅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특히, 2막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내가 믿어도 되나요?'(21번 트랙)에서 세 사람의 놀라운 중창과 기운은 복잡하고 난해한 성부로 점철되어 있는 3막과 4막을 매끄럽게 돌파하며 보는 이를 작품 속으로 더욱더 빠져들게 만든다. 13쪽 분량의 해설지(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 해설과 줄거리가 수록되었다.

Dynamic 37676 [DVD]

2013마르티나 프란카 페스티벌 베르디 '조반나 다르코'

리카르도 프리차(지휘), 이탈리아 국립오케스트라, 페트루첼리 극장 합창단, 제시카 프랫(조반나), 장 프랑수와 보허스(카를로), 김주택(자코모), 로베르토 체르벨레라(데릴)

'팬텀싱어2' 바리톤 김주택의 노래와 활약이 돋보이는 무대

베르디의 '조반나 다르코'는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작품의 주인공은 잔 다르크를 묘사한 조반나이다. 하지만 이 프로덕션의 주인공은 그녀의 아버지 자코모 역의 바리톤 김주택(Julian Kim)이라 해도 될 것이다. 작품을 일구는 28곡의 대표 아리아 및 중창 중에 자코모가 소화하는 곡은 9곡. '팬텀싱어2'를 통해 대중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온 그가 유럽 등지에서 정명훈과 함께 하는 무대에 여러 번 올랐는데, 그 진가를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려한 볼거리보단 캐스팅과 음악에 집중하게 하는 연출과 무대 속에서 조반나 역의 제시카 프랫은 '새벽, 그리고 저녁에 언제나(7트랙)' 등의 아리아를 부르며 존재감을 뽐어낸다. 2013년 7월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란카 페스티벌 공연 실황으로, 국립오페라단과 작업하기도 했던 파비오 체레사가 연출과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보조자료]

– 베르디의 일곱 번째 작품인 '조반나 다르코'는 1845년 2월 15일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다.

– '조반나 다르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잔 다르크의 이야기다. 베르디는 쉴러의 희곡 '오를레앙의 처녀'로부터 영향을 받아 3막의 오페라로 작곡했다. 영국–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할 무렵에 오를레앙의 처녀 조반나는 간절한 기도로 적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한다. 조반나는 카를로 왕을 도와 프랑스를 승리로 이끄나, 그녀의 아버지 자코모는 이를 악마와 거래한 것으로 오해하고 딸을 마녀로 고발한다. 결국 아버지와의 오해는 풀리고, 카를로와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잔 다르크를 통해 작품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작품은 2013년 7월에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란카 페스티벌 공연 실황이다. 2016년 국립오페라단 '오를란도 핀토 파초'의 연출을 맡았던 파비오 체레사가 연출과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전쟁기의 묘사보다는 간소한 무대를 통해 음악에 집중하게 한다.

– 조반나 역의 제시카 프랫은 1979년 생으로, 로시니 · 도지제니 · 벨리니 · 베르디 등의 유명 레퍼토리로 무장한 소프라노다. 조반나를 대표하는 아리아 '새벽, 그리고 저녁에 언제나(Sempre all'alba de alla sera/7트랙)'는 단단한 드라마틱한 모습과 흔들리지 않는 음정으로 관중을 사로잡는다.

– 캐스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자코모 역의 바리톤 김주택(Julian Kim)이다. 작품을 일구는 28곡의 대표 아리아 및 중창 중에 자코모가 소화하는 곡은 9곡. '팬텀싱어2'를 통해 대중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온 그는 유럽무대에서 정명훈 등의 마에스트로와 함께 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다. 딸을 오해하는 광기에 찬 아버지를 연기하는 그의 모습은 이 작품을 이루는 선과 악의 구도에서, 제시카 프랫이 '선'의 중심을 잡는다면, 김주택은 그 반대항에서 '악'의 상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그가 유럽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는지 궁금하거나 팬인 이들에겐 이 영상물이 큰 만족을 줄 것이다.

Dynamic 37802 [DVD]

2017 페스티벌 델라 발레 디트리아 마이어베어 '앙주의 마르게리타'

파비오 루이지(지휘), 이탈리아 국립오케스트라, 알레산드로 탈레비(연출), 줄리아 데 블라시스(마르게리타), 안톤 로지스키(라바렌느 공작), 쟈 페트롱(이사우라)

숨은 명작과 연출가를 만나는 짜릿한 무대

2017년에 국립오페라단의 '리골레토'의 연출을 맡았던 알레산드로 탈레비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던 것이 제43회 페스티벌 델라 발레 디트리아에 오른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앙주의 마르게리타'였다(2017년 7월 실황). 15세기 장미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헨리 6세의 부인인 마르게리타의 고난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마이어베어의 성공작으로 1820년에 초연된 이 작품을 탈레비는 런던 패션위크의 무대를 배경으로 했으며, 성악가들의 동작과 제스터가 TV나 영화 속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한다. 파비오 루이지의 명석한 지휘가 마이어베어의 숨은 선율을 캐내고, 타이틀롤의 줄리아 데 블라시스는 비극과 희극을 오가는 천의 얼굴을 드러낸다.

[보조자료]

– '앙주의 마르게리타'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하지만 자코모 마이어베어(1791~1864)의 4번째 오페라이자 큰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1820년에 작곡되어 라스칼라에서 초연되었지만, 이후 활발히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다.

– 그러던 중 거의 150년 만에 이탈리아 제43회 페스티벌 델라 발레 디트리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1975년에 처음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주제와 작곡가를 개최하는 해마다 집중 조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는 마이어베어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다. 이 영상물은 알레산드로 탈레비가 연출을, 파비오 루이지가 이탈리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2017년 7월 공연 실황이다.

– '앙주의 마르게리타'는 15세기 장미전쟁이 배경이다. 타이틀롤인 마르게리타는 헨리 6세의 아내이다. 하지만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태어난 아들로 인해 오해를 받고 삶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에 마르게리타를 사랑한 라바렌느 공작이 나타나고, 그녀의 아내 이사우라가 등장하면서 복잡한 관계가 이뤄지지만, 결국 마르게리타가 잃어버린 땅과 사랑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이다.

– 이 프로덕션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작품보다는 탈레비의 연출이다. 그는 2017년에 국립오페라단의 '리골레토'에서 연출을 맡았었다.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그는 국내의 오페라 마니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알려졌다. 그때, 그만의 감각을 최대치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앙주의 마르게리타'이었다. 고전적인 작품이라도 늘 동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그의 연출기법은 무대 위의 성악가들의 동작이나 제스처가 TV나 영화 속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한다. 런던 패션위크의 무대를 고스란히 재현한 듯한 '앙주의 마르게리타'에서도 15세기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무대를 보는 듯한 현대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EuroArts

www.euroarts.com

Ideale Audience 3079078 [5DVDs]

베르비에 페스티벌 20주년 기념 에디션 5 DVDs (2013년 발매)

아르헤리치 · 엘렌 그뤼모 · 마롬 마르티노 · 유자 왕(피아노), 르노 카퓌송 · 조슈아 벨 · 키릴 트로소프(바이올린), 유리 바쉬메트 · 막심 라자노프(비올라), 미샤 마이스키 · 솔 가베타(첼로), 토마스 크바스토프(베이스바리톤), 수잔 그래험(메조소프라노), 가보르 타카치–나기 · 쿠르트 마주어 · 에사 페사–살로넨 외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역사적 순간을 한 손에!

1994년 스위스 베르비에 산악휴양지에서 시작한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5~2005년 공연 중 화제의 연주(4장)와 다큐멘터리(1장)에 수록한 2013년 발매 에디션이다. 페스티벌의 실황을 담아온 아이디얼 레이블에서 낱장으로 발매한 실황물 중 '베스트'를 한 박스물로 모은 것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산의 아리아'(1995)와 축제의 기초와 역사를 담은 '신비로운 산'(2003)이 본 에디션의 가치를 높인다. 아르헤리치 등의 거장과 트로소프(바이올린) · 게리에(트럼펫) 등 젊은 음악가들이 함께 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이 축제가 혁신적인 음악의 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다. 20주년 기념 콘서트 영상물(2013)을 소유한 마니아라면 곁들여야 할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스위스 발레 주에 위치한 베르비에 산악 휴양지에서 열리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1994년에 시작되어, 매년 7월과 8월에 걸쳐 자연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자 설립되었지만, 아르게리치, 키신, 미샤 마이스키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전도유망한 신진음악도들이 세대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다.

– 이 영상물은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던 공연 중 아르헤리치를 비롯하여 화제의 연주를 5장의 디스크에 담아 2013년에 발매한 에디션이다. 그동안 페스티벌의 실황을 담아온 아이디얼 오디언스(Ideale Audience) 레이블에서 낱장으로 발매되었던 실황물을 하나에 모은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1995년 촬영한 다큐멘터리 '산의 아리아'와 2003년에 촬영하여 축제의 기초와 역사를 담은 '신비로운 산'이 수록되어 본 에디션의 가치를 높인다.

– 아르헤리치, 쿠르트 마주어 등의 거장의 위엄 있는 공연도 인상적이지만, 아담 라로움(피아노), 키릴 드로소프(바이올린), 다비드 게리에(트럼펫) 등 풋풋한 음악가들이 거장들과 함께 하며 바짝 긴장이 오른 모습도 새롭게 느껴진다. 젊은 음악가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1 디스크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아르헤리치'
2 디스크 '피아노와 성악 하이라이트'
3 디스크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4 디스크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멘델스존'
5 디스크 – 다큐멘터리 '신비로운 산–오케스트라의 탄생' & '산의 노래'

EuroArts 2067488 [DVD]
EuroArts 2067484 [Blu-ray]

2017 베를린 필하모닉 송년음악회 가곡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이스 디도나토(메조 소프라노)

래틀과 베를린 필이 함께 하는 '마지막' 송년콘서트

2017년 12월 31일, 베를린 필의 송년 콘서트 실황으로, 런던 심포니로 둥지를 옮기는 래틀이 선사하는 베를린 필의 마지막 송년 콘서트이기도 하다. 베를린의 화려한 야경이 영상의 문을 열고, 드보르자크, 스트라빈스키, R.슈트라우스 가곡, 번스타인, 쇼스타코비치, 브람스의 명곡들이 차례로 연주된다. 헨델과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진 디도나토는 명확한 독일어 발음과 낭만적인 접근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번스타인을 노래할 때는 모던한 감각의 소리를 선사한다. 공연장은 신년을 맞이하는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연주를 마치고 꽃을 선물 받은 래틀은 객석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가장 뒷좌석에 위치한 메르켈 총리에게 선사하고 포옹을 나눈다.

[보조자료]

– 2017년 12월 31일, 베를린 필하모닉홀의 송년콘서트 실황이다. 베를린의 야경과 눈 덮힌 거리의 풍경이 영상물의 막을 연다.

– 런던으로 둥지를 옮기는 래틀의 마지막 송년콘서트을 보러온 관객들로 객석의 빈 좌석은 찾아볼 수 없다. 래틀은 드보르자크 카니발 서곡 Op.62, 스트라빈스키 '뮤즈를 이끄는 아폴론'으로 문을 연다.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는 R.슈트라우스의 가곡 '헌정' '자장가' '어머니의 놀이(Muttert□ndelei)' '세 사람의 동방박사'를 선사한다. 가곡 '아침'을 함께 하는 노아 벤딕스-발글레이(악장)의 바이올린선율과 디도나토의 고운 목소리는 2017년의 마지막 밤을 더욱 진하게 물들인다. 헨델과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진 디도나토는 명확한 독일어 발음과 낭만적인 접근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 2018년이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임을 의식해서인지 '온 더 타운'의 '세 춤의 에피소드'를 연주하고, 재등장한 디도나토가 '펜실베니아 도로 1600번지' 중 '집을 잘 부탁해'를 선사한다.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인상적이다. 쇼스타코비치 '황금시대' 모음곡,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72-2, 브람스 '헝가리 무곡' 1번이 이어지며 베를린은 2018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다.

– 카메라는 파란색으로 물들인 무대와 관객석을 자주 비추며 공연장에 맴도는 설렘의 기운을 포착해낸다. 연주 후 꽃을 선물 받은 래틀은 그 꽃을 들고 무대 뒤로 성큼 성큼 걸어간다. 그러고 나서 관객석 뒷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한 메르켈 총리에게 선사하고 포옹을 나눈다.

– 오디오 옵션은 PCM 스트레오/마스터 오디오 5.0으로 선택가능하며, 성악곡에는 영 · 독 · 일어와 한국어 자막이 지원된다.

EuroArts 2097058 [DVD]
EuroArts 2097054 [Blu-ray]

2016 BBC프롬스 – 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 피아노),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아르헤리치와 바렌보임, 리스트와 바그너. 거장이 연주하는 거장의 명작

2016년 8월 BBC프롬스 실황으로, 외르크 비트만(1973~) '콘 브리오'로 문을 열고,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대형홀의 열기를 확 달군다. 아르헤리치는 아바도/런던 심포니와 함께 했던 젊음을 떠올리는가 하면, 노년의 여유도 자랑한다. 앙코르로 바렌보임과 듀오로 슈베르트 론도 D951를 선보인다. 예정에도 없던 위대한 연주에 13분 동안 젖어든다. 2부는 '탄호이저' '신들의 황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로엔그린'의 서곡 · 전주곡이다. 바그너는 골수 바그네리안답게 복잡한 구조에서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전달한다. 젊은 악단도 천변만화하는 극적 전개와 지휘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고해상도 영상(1080i)과 PCM스테레오/마스터오디오 5.0의 오디오 옵션으로 만나는 현장에서 생생함이 느껴진다.

[보조자료]

– 2016년 8월, 로열 앨버트홀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바렌보임이 등장한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연주"라는 호평을 받은 공연의 막을 클라리네티스트 · 작곡가인 외르크 비트만(1973~) '콘 브리오'로 문을 연다. 바렌보임만의 실험정신이 빛을 발하는 선곡이자 연주다.

– 일생의 대부분이 전성기라 평가 받는 바렌보임과 아르헤리치는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함께 한다. 4악장 구성, 악장 간의 휴지 없이 전개된다. 아르헤리치는 아바도/런던 심포니와 함께 했던 전설적인 음반 속의 젊음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노년의 여유가 돋보인다. 바렌보임은 자신의 피아노를 다루듯 청년 악단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아르헤리치를 완벽히 보필한다. 앙코르인 슈베르트 론도 D951에서 바렌보임과 아르헤리치의 듀오 여주는 우리를 예정에도 없던 위대한 연주로 초대한다.

– 2부는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신들의 황혼' 중 '지그프리트의 장송행진곡',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1막 전주곡과 3막 전주곡, '로엔그린' 3막 전주곡이다.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바그너 연주를 강행할 만큼 바렌보임은 골수 바그네리안이자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다. 복잡한 악보에서 음악적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천재성이 그 바탕이라 할 것인데, 이 연주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천변만화하는 바그너의 극적 전개와 천재의 지휘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젊은 악단의 음악성도 돋보인다.

– BBC프롬스의 실황 영상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고해상도 영상(1080i)과 PCM스테레오/마스터 오디오 5.0의 오디오 옵션으로 만나는 영상물은 역시 남다른 감동을 준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과 달리 아나운서의 해설도 없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함께 추천해요]

– 다니엘 바렌보임의 13DVD 박스물(EURO ARTS 2064248)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 지휘), 래틀/ 베를린 필, 첼리비다케/
뮌헨 필, 시카고 필 · 부에노스 아이레스 필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등

– 아르헤리치의 다큐멘터리와 공연 실황(EURO ARTS 2063798)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스테파니 아르헤리치(다큐멘터리),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 · 찰스 그로브즈 · 앙드레 프레빈 · 유리 테미르카노프 · 가보 타카치-나기 · 리카르도 샤이(지휘), 미샤 마이스키(첼로), 조슈아 벨(바이올린)

EuroArts 2082334 **[Blu-ray]**

1996~98년 지휘자 6인의 '인 리허설'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츠 · 몬테베르디 합창단,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테르담 필, 마리스 얀손스, 오슬로 필, 주빈 메타, 이스라엘 필, 에사-페카 살로넨, LA필, 폰 도흐나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긴장 속 최종점검. 6인 6색의 리허설

유로아츠 레이블의 '인 리허설&퍼포먼스' 시리즈의 하나로, 1996~98년 여섯 거장의 리허설 현장을 총 371분 필름에 담고 있다. 학구적인 가디너는 설명과 이해를 통해 가사와 음악을 세공하고, 게르기예프는 연기자처럼 온 몸으로 음악 속 상황을 묘사해 이해시킨다. 얀손스와 메타는 차분히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살로넨은 지휘자 이전에 작곡가로서 드뷔시를 이해하려한다. 도흐나니는 각 부분의 치열한 반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각 지휘자의 영상들은 여러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 보는 이의 편의성을 높였다. 영 · 독 · 불 · 스페인어 자막이 지원된다.

[보조자료]

– 유로아츠의 '인 리허설&퍼포먼스'는 카라얀 · 노링턴 · 첼리비다케 · 뵘 · 카를로스 클라이버 등의 리허설을 다루는 시리즈다.

– 2018년에 발매한 '인 리허설' 영상물에는 1996~98년에 있었던 여섯 거장의 리허설을 담고 있다. ①존 엘리엇 가디너/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츠 · 몬테베르디 합창단–바흐 칸타타 BWV63 '그리스도인이여, 이 날을 명심하라', ②발레리 게르기예프/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프로코피예프 '스키타이' 모음곡 Op.20, ③마리스 얀손스/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버르토크 '이상한 중국 관리', ④주빈 메타/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 슈트라우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⑤에사–페카 살로넨/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드뷔시 '바다', ⑥크리스토프 도흐나니/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하이든 교향곡 88번이다.

– 공연을 앞둔 리허설에서 지휘자의 모습은 제 각각이다. 학구적인 가디너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가사 전달을 명확히 가져가고, 게르기예프는 음악 속 상황을 묘사하는 배우 같다. 얀손스와 메타는 차분한 모습으로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살로넨은 지휘자 이전에 작곡가로서 드뷔시를 이해하려는 모습이다. 도흐나니는 각 부분의 치열한 반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 국내에 번역된 톰 서비스의 '마에스트로의 리허설'에는 "리허설에서 교향곡 악보를 따라갈 때 벌어지는 일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과 지휘자를 만나 리허설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다른 일"이라며 리허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영상물 역시 이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지휘자의 영상은 여러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서, 재생과 반복이 편하다. 여섯 개의 리허설은 총 371분 분량이며, 화면은 초고해상도(1080i)와 달리 4:3이다. 사운드는 PCM 스테레오/모노, 영 · 독 · 불 · 스페인어 자막이 지원된다.

EuroArts 2064438 **[2DVDs]**

드뷔시 서거 100주년
교향시 '바다'와 '어린이의 세계', 두 편의 다큐멘터리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다니엘 바렌보임, 시카고 심포니, 유진 오르먼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코치시 졸탄(피아노)

세 거장이 그린 '바다'와 드뷔시의 예술인생을 만나다

두 장으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의 영상물이다. [1 디스크]에서 세 지휘자가 교향시 '바다'에 일으키는 음악적 물결과 무늬는 제각각이다. 아바도의 침착한 시선과 세공력, 바렌보임의 신비함, 오르먼디의 명확한 주제 부각기법을 비교해가며 감상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28분/영 · 독 · 불어 · 스페인어 자막)는 악보, 공연 실황, 바다의 풍경 등을 통해 '바다'의 비밀을 파헤친다. [2 디스크]는 다큐멘터리 '음악은 배울 수 없다'이다(74분 분량/영어해설/영 · 독 · 불어 자막). 사진과 흑백 영상,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목신의 오후',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등을 통해 드뷔시의 예술과 인생을 살펴본다. 피아니스트 코치시 졸탄(1952~2016)가 젊은 날에 남긴 드뷔시 '어린이의 세계'의 연주(1991)도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드뷔시의 서거 100주년을 맞은 2018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은 물론 신보와 기획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홍수 속에서 마니아들은 고민도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 교향시 '바다' 공연 실황과 드뷔시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한데 엮인 이 영상물은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마니아들을 위한 희소식 같은 영상물이다. 영상물은 두 장의 디스크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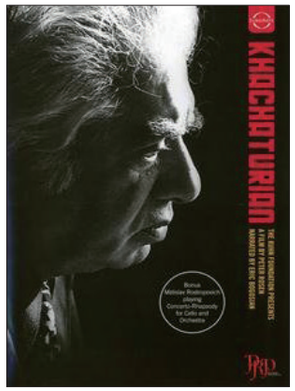
– [1 디스크]는 세 공연에 오른 교향시 '바다'를 담고 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2003년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 다니엘 바렌보임과 시카고 심포니의 2000년 퀼른 필하모니홀 실황, 유진 오르먼디(1899~1985)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1977년 실황이다. 3명의 전설적인 지휘자가 '바다'에 일으키는 음악적 물결과 무늬는 제각각이다.

– 아바도가 분열되고 거칠게 움직이는 바다의 인상을 침착한 시선으로 세공하듯 묘사한다면, 바렌보임은 신비함으로 무장시키고, 오르먼디는 곡의 구조를 명징하게 드러내며 스스로 발전되는 각 주제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포착한다.

– [1 디스크]에 수록된 다큐멘터리(28분 분량, 영 · 독 · 불어 · 스페인어 자막)는 피아니스트 · 작가인 폴 로버츠가 직접 출연하여 드뷔시의 흔적과 악보, 공연 실황, 바다의 풍경 등을 통해 작품의 비밀을 해설한다.

– [2 디스크]는 다큐멘터리 '음악은 배울 수 없다(Music Cannot Be Learned)'이다(74분 분량, 영어 나레이션, 영 · 독 · 불어 자막). 사진과 흑백 영상,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목신의 오후',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등을 통해 드뷔시의 예술과 인생을 살펴볼 수 있다.

– [2디스크]는 피아니스트 코치시 졸탄(1952~2016)이 젊은 날에 남긴 드뷔시 '어린이의 세계'의 연주(1991)로 마무리 된다. 드뷔시가 딸 슈슈에게 줄 선물로 주기 위해 작곡한 여섯 곡의 모음곡이다.



EuroArts 2058278 **[DVD]**

다큐멘터리 '하차투리안' & 보너스 트랙 '하차투리안 만들기'

페테르 로젠(감독), 하차투리안(작곡 · 지휘), 로스트로포비치(첼로), USSR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라 세르비아리안-쿤(피아노)

하차투리안의 기록과 분석을 담은 보고(寶庫) 같은 다큐멘터리

20세기 러시아의 작곡가 하차투리안(1903~1978)은 당국에 충성하면서, 그 체제에 반대했던 복잡한 삶을 산 예술가였다. 페테르 로젠의 다큐멘터리 '하차투리안'은 흑백 영상과 사진, 인터뷰와 증언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20세기 러시아 음악가들은 물론 '증언'의 작가 볼코프, 하차투리안의 아들인 카렌 등의 인터뷰가 객관적 사료에 작곡가의 이면적 삶을 증언한다(나레이션 영어, 영 · 독 · 불 · 일 · 러시아어 자막지원). 도라 세르비아리안-쿤(피아노)이 프로듀싱한 '하차투리안 만들기'는 보너스 트랙이다. 하차투리안의 음악세계를 감각적으로 들여다보고 그의 작품을 연주한다. 하차투리안 지휘, 로스트로포비치가 함께 하는 하차투리안의 협주곡 랩소디의 1963년 공연 필름도 이 영상물의 진가를 한층 높인다.

[보조자료]

– 가난한 아르메니아인 제본공의 아들로 태어난 아람 일리치 하차투리안(1903~1978)은 모스크바 그네신음악원에서 첼로와 작곡을 공부했다. 20세기 러시아의 복잡한 상황을 살아냈던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하차투리안 역시 당국에 충성하면서 가면 뒤에는 복잡한 감정과 생활을 숨겨왔다. 그는 소비에트연방에서 강력한 통제력과 검열의 힘을 발휘하던 소비에트작곡가연합의 고위직을 맡아 당국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작품 생산과 노선 결정에 힘을 발휘했는가 하면, 반체제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등에게 둘도 없는 동지였다.

– 페테르 로젠의 다큐멘터리 '하차투리안'은 하차투리안의 일생을 담고 있다. 영상을 이루는 흑백필름과 사진에서 로스트로포비치, 쇼스타코비치, 오이스트라흐 등 20세기의 위대한 음악가들의 모습이 보인다. 쇼스타코비치의 일생을 담은 '증언'의 저자 솔로몬 볼코프, 하차투리안의 아들인 카렌 등의 인터뷰가 우리가 몰랐던 작곡가의 삶과 이면을 증언한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하차투리안, 대표작인 된 발레 '스파르타쿠스'의 한 장면, 가족과 단란한 시간, 최후 죽음 등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나레이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영 · 독 · 불 · 일어 및 러시아어 자막이 지원된다.

– 보너스 트랙도 다큐멘터리만큼 흥미진진하다. 도라 세르비아리안-쿤(피아노)이 프로듀싱한 '하차투리안 만들기'는 연주자의 관점에서 감각적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다.마지막장에는 하차투리안의 피아노 협주곡(3악장) 연주 영상(로리스 체크나보리안 지휘 · 아메리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도라 세르비아리안-쿤)이 수록되었다. 미국의 활기찬 거리, 연주 장면, 생전의 하차투리안이 지휘 모습이 한편의 뮤직비디오처럼 교차편집된다. 하차투리안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랩소디(하차투리안 지휘 · USSR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 로스트로포비치)를 담은 1963년의 묵묵한 흑백 필름과는 대조된다.

– 하차투리안의 삶과 기록자료, 공연 영상, 작품 분석 등이 하나에 담긴 이 영상은 하차투리안의 삶을 담은 보고(寶庫) 같은 기록물이다.

EuroArts 2072418 **[DVD]**
EuroArts 2072414 **[Blu-ray]**

2007 뮌헨 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 세계 초연 진은숙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켄트 나가노(지휘),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 · 합창단, 샐리 매튜스(앨리스), 리아 컴시 · 줄리아 렘프(체셔 고양이), 아힘 프라이어(연출 · 무대디자인), 니나 바이츠너(의상 · 가면 · 인형) 외

진은숙의 역작을 고해상도와 묘한 영상기법으로 만나다

2007년 6월, 뮌헨 오페라페스티벌 개막을 장식한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계초연 실황이다. 2008년 DVD버전의 화질을 업스케일링한 2013년 블루레이판이다.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는 45도 경사 무대와 그곳에 난 9개의 구멍, 와이어 공중 액션, 프라이어의 시그니쳐 같은 과도한 분장을 한 인형과 가면 등으로 역사 깊은 보수적인 극장을 아방가르드예술의 진격지로 만들어버린다. 촬영은 작곡가 · 비디오아티스트 엘렌 펄먼이 맡았는데, 무대 전체보다는 배우들 각각의 얼굴을 확대하여 담아냄으로써 작품이 지닌 묘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영상 기법을 즐기고 싶어 하는 현대예술 마니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보조자료]

– 2007년 6월, 뮌헨 오페라페스티벌의 개막을 장식한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계 초연 실황이다. 초연 이듬해인 2008년에 발매한 DVD버전의 화질을 업스케일링한 2013년 블루레이 버전이다.

– 이 작품은 루이스 캐롤의 원작을 데이비드 헨리 황이 각색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앨리스는 꿈에서 토끼를 만나 이상한 나라에 다다른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이상한 체험을 한다는 줄거리이다.

– 성악가들이 하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배우들은 앨리스, 토끼 등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방식이다. 연출과 무대 디자인을 맡은 아힘 프라이어는 동화 속의 판타지를 무대 위에 고스란히 재현하는 듯하다. 45도 경사무대와 9개의 구멍, 와이어 공중 액션, 프라이어의 시그니쳐라 할 수 있는 과도한 분장의 인형과 가면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상한 나라'에 와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 의상 · 가면 · 인형을 맡은 니나 바이츠너는 이 작품으로 인해 독일 음악전문지 '오퍼른벨트(Opernwelt)'이 선정한 '올해의 의상 디자이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 작품은 오페라로 태어났지만, 이 영상물은 영화를 능가한다. 작곡가 · 비디오아티스트인 엘렌 펄먼이 감독을 맡았다. 아힘 프라이어식의 과도한 화장을 입은 배우들 및 가면과 인형은 묘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영상에 잡힌다. 카메라는 무대 전체보다는 배우들의 얼굴을 확대함으로써 묘한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킨다. 그들이 사람인지, 인형인지는 중요치 않다. 그저 한편의 예술영화를 보는 재미를 느끼면 될 뿐이다. 그래서 영상물로 오페라를 즐기는 가운데 보편적인 각도와 촬영기법과 다른 영상물을 접하고 싶어 하는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영상물이다.

EuroArts 2064248 **[13DVDs]**

다니엘 바렌보임 13DVD 박스물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 지휘), 래틀/ 베를린 필, 첼리비다케/ 뮌헨 필, 시카고 필 · 부에노스 아이레스 필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등

13DVD는 그의 음악적 넓이를 보여주는 13개의 우주와도 같다

13장의 DVD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유로아츠에서 발매한 것을 모은 재발매 박스물로 1983/84년에 녹음한 베토벤 소나타(DVD1)를 시작으로 2014년 아르헤리치와 함께 한 듀오 리사이틀 실황(DVD13)을 통해 다니엘 바렌보임(1942~)의 음악세계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유로아츠에서 앞서 나온 14DVD 박스물(EUROARTS 2063698)이 그의 전매특허인 모차르트 · 베토벤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박스물은 모차르트 · 베토벤 외에 슈만 · 차이콥스키 · 브람의 피아노 협주곡, 바그너 · 리스트 · 불레즈 · 드뷔시 등의 관현악곡은 물론 탱고의 주요 레퍼토리도 만날 수 있다. 앞서 말한 전작물이 바렌보임이 특정 작곡가로 파고든 깊이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럿 작품을 연주하는 그의 넓이와 반경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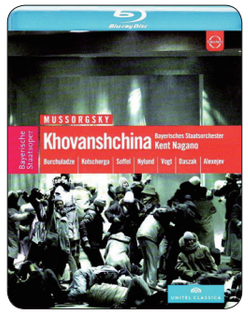
[보조자료]

– 13장의 DVD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유로아츠에서 발매한 것을 모은 재발매 박스물이지만, '바렌보임의 재발견'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영상속의 그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 1983/84년에 녹음한 베토벤 소나타(DVD1)를 시작으로 2014년 아르헤리치와 함께 한 듀오 리사이틀 실황(DVD13)을 통해 다니엘 바렌보임(1942~)의 음악세계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 바렌보임이 펼쳐내는 고전주의는 건반 앞에서든, 지휘봉을 든 순간이든 견고한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연주자로서 펼쳐내는 유연한 맛이 배어 있다. 베토벤(DVD1 · 2 · 4 · 10)과 모차르트(DVD8 · 13)를 통해 그 음악을 음미할 수 있다.

– 유로아츠에서 앞서 나온 14DVD 박스물(EUROARTS 2063698)이 그의 전매특허인 모차르트 · 베토벤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박스물은 여러 작품들을 섭렵하는 거장의 면모를 만날 수 있다. 슈만 ·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DVD3), 바그너 · 리스트의 관현악곡(DVD4), 불레즈 · 드뷔시 · 파야의 관현악곡(DVD5), 드보르자크 · 브람스 · 차이콥스키 · 슈트라우스 2세 · 코다이의 무곡들(DVD6),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DVD7), 부에노스 아이레스 현지 실황으로 만나는 탱고음악들(DVD11), 니콜랑 · 엘가 · 차이콥스키의 관현악곡(DVD12), 아르헤리치와의 듀오로 선보이는 슈베르트 · 스트라빈스키(DVD13) 등 바렌보임의 '음악적 넓이'를 만날 수 있다. 앞서 말한 전작물이 그가 특정 작곡가로 파고든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 박스물은 다양한 작곡가와 만나는 그의 넓이와 반경을 접할 수 있다.



EuroArts 2072424 **[Blu-ray]**

무소르그스키: 호반시치나

아나톨리 코체르가, 나가노 (Kent Nag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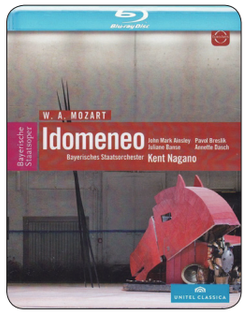
무소르그스키의 미완성 역사오페라,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획득하다

러시아의 동토(凍土)를 연상시키는 '위대한 아마추어'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호반시치나〉는 5막 6장의 거대한 오페라로서, 9년간의 작업에도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하여 친구 림스키코르사코프가 마무리했다. 줄거리의 골격은 표트르 대제 시대를 배경으로 세 파벌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하나는 표트르 황제와 황후를 섬기는 서구주의자 개혁파로서 그 중요인물은 골리친 왕자다. 또 하나는 개혁에 반대하는 슬라브를 편드는 일파로서 이반과 안드레이 호반스키 부자가 지도한다. 마지막은 러시아 정교도 분리파 파벌인데, 그들의 눈에는 표트르가 반 그리스도로 비쳐 개혁에 반대한다. 사제 도시페이가 이들을 지도하며, 안드레이 호반스키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버림받은 마르파도 분리파에 속해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은 것은 무소르그스키 오페라의 일반적 특징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연출가로 서구에서도 환영받고 있는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는 이 작품을 그리스 연극이나 셰익스피어의 극과 같은 보편적 고전으로 파악했다. 열정에 따라 움직이면서 권력을 쫓는 인간군상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를 맡은 2007년 여름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 가극장 실황이며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가 개정한 판본을 사용했다.

[보조자료]

– 켄트 나가노(1951~)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 지휘자다. 근현대 음악의 탁월한 해석자이자 1988년부터 10년간 프랑스 리용 오페라를 이끌면서 오페라에도 탁월한 식견을 과시했다. 특히 난해한 오페라를 명료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있다. 2006년부터 각각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바이에른 국립 가극장과 계약되어있는데, 특히 바이에른과는 다른 오페라 극장의 지휘를 허락하지 않는 배타적인 계약이다.

– 연출을 맡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는 황금마스크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연출가이자 볼쇼이 극장 역사에서 '조용한 스캔들 메이커'로 기록된 인물이다. 무대와 의상도 직접 디자인하는 그는 이제 서구 오페라 극장에서도 가장 많은 부름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베를린 국립 가극장에서 바렌보임 지휘로 공연된 〈보리스 고두노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공연된 프로코피에프의 〈도박사〉가 대표작이었고, 여기 뮌헨 국립가극장의 〈호반시치나〉가 추가되었다. 그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호반시치나〉의 경우도 시공을 초월한 현대적 해석이다. 특히 실제로 오페라에 나오지 않지만 배후의 상징적 인물인 표트르 황제와 황후를 공간분할을 통해 드러낸 점이 독창적이다.



EuroArts 2072444 [Blu-ray]

모차르트: 이도메네오

존 마크 애인즐리(이도메네오), 파볼 브레슬릭(이다만테), 율리안 반제(일리아), 아네트 다슈(엘레트라), 켄트 나가노,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역사적인 초연무대의 재개관 기념작으로 펼쳐진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

〈이도메네오〉는 모차르트가 25세 되던 해인 1781년에 완성한 3막의 오페라세리아다. 바이에른의 선제후 카를 테오도르의 요청에 의한 작품으로 그해 1월 29일 뮌헨의 쿠빌리에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신과의 경솔한 약속으로 아들을 희생시켜야하는 크레테의 왕 이도메네오와 그 아들 이다만테 사이의 갈등과 이다만테를 둘러싼 두 여인, 일리아와 엘레트라의 갈등이 이 오페라의 중심 내용을 이루며, 특히 3막에 등장하는 엘레트라의 광란의 아리아 'D'Oreste, d'Aiace'가 유명하다. 2008년 6월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가 바로 이 오페라의 초연장소였던 쿠빌리에 극장의 재개관 기념으로 펼쳤던 화제의 공연실황을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노래와 연기 모두에 특출한 존 마크 애인즐리가 아들을 희생시켜야하는 이도메네오의 괴로움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고, 파국으로 치닫는 광란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연기한 아네트 다슈와 가련한 여인상을 단아하게 드러낸 율리안 반제의 열연도 눈길을 끈다. 위르겐 로제의 미니멀하면서도 적절한 상징성을 갖춘 무대미술과 중세일본풍을 차용한 의상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보조자료]

–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뒤 트로이 공주 일리아를 전리품으로 얻어서 귀향길에 오른다. 하지만 배가 난파되어 이도메네오는 행방불명이 되고 가까스로 구조된 일리아는 이도메네오의 아들 이다만테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크레타에 몸을 피해있던 미케네 공주 엘레트라도 이다만테를 짝사랑한다. 이도메네오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로 넵튠에게 약속하고 목숨을 건지는데, 하필 제일 먼저 만난 이가 바로 아들 이다만테.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이도메네오의 괴로움과 이다만테를 사이에 둔 일리아와 엘레트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오페라는 점차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

– 본 실황이 펼쳐진 쿠빌리에 극장(Cuvillies Theatre)은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3세 요제프의 명을 받아 건축가 프랑스와 드 쿠빌리에가 건축한 건물로, 1751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753년에 완공된 아름다운 로코코 풍의 극장이다. 바이에른 영주의 주거지인 레지덴츠 내에 위치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와 베버의 〈아부하산〉이 바로 이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들이다. 2차 대전 중 파괴되었지만 50년대에 재건되었고, 2004년부터 4년간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친 뒤, 지난 2008년 6월 바로 본 영상물에 수록된 〈이도메네오〉를 무대에 올리면서 재개관 하였다.

– 일본계 미국 지휘자 켄트 나가노는 래틀, 얀손스 등과 함께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지휘자의 한 사람이다. 리용 국립 오페라를 통해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였으며,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로스앤젤레스 오페라를 거쳐, 현재는 몬트리올 심포니와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음악감독으로 대서양 양단을 누비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몬트리올 심포니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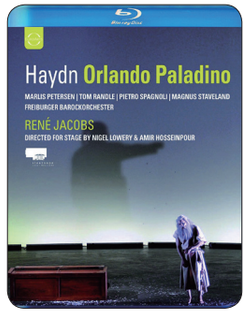
EuroArts 2072524 [Blu-ray]

피츠너: 팔레스트리나

바이에른 주 오케스트라, 뢰젤, 피츠너, 볼레, 영, 벤트리스

강렬한 색채와 감각적인 연출로 부활한 후기낭만 오페라의 마지막 걸작

한스 피츠너는 쇤베르크 그룹의 새로운 음악기조가 유럽 음악계를 강타했던 시절에도 독일 후기낭만주의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했던 보수성향의 작곡가였다. 작곡가 스스로 '음악적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던 오페라 〈팔레스트리나〉는 바그너가 추구했던 종합예술의 이상을 충실히 좇았던 작품인 동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선배 작곡가의 일화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을 확실히 드러내었던 일생의 역작이었다. 본 BD는 2009년 7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에서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무려 38명의 독창자와 합창단, 그리고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하는 이 대작의 위용을 우수한 화질과 음향으로 담아내었다. 유럽 오페라 계를 호령하고 있는 마에스트라 시몬 영의 호방한 지휘, 크리슈티안 슈튁클의 강렬한 색채의 무대미술과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진 이 프로덕션은 이 위대한 걸작에 대한 오페라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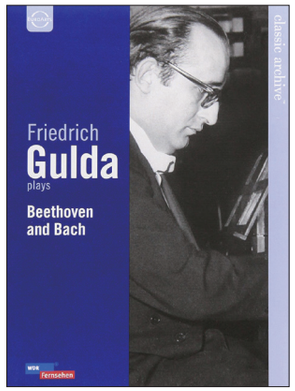
EuroArts 2057784 [Blu-ray]

하이든: 성기사 오를란도

마를리스 페테르센(안젤리카), 톰 란들(오를란도), 피에트로 스파뇰리(로도몬테), 임선혜(유릴라), 알렉산드리나 페다찬스카(알치나), 르네 야콥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고 임선혜가 출연한 하이든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였던 2009년의 5월,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있었던 화제의 공연실황. 여러 모차르트의 걸작들을통해 고전 오페라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당대 연주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르네 야콥스가 지금껏 과소평가되고 있는 하이든의 오페라들도 모차르트의 작품들 못지않은 빼어난 매력을 머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1782년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초연되었던 3막 오페라 '성기사 오를란도'는 하이든이 남긴 14편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비발디, 스카를라티, 륄리, 헨델 등이 오페라를 남겼던 아리오스토의 유명한 서사시 '광포한 오를란도'(Orlando Furioso)에서 내용을 빌려왔다. 르네 야콥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 임선혜가 비중있는 배역인 유릴라로 상큼한 매력을 과시하며, 여주인공 안젤리카를 노래한 미모의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 타이틀 롤의 미치광이 캐릭터를 열연한 톰 랜들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연기와 노래 양쪽 모두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준다. 작품의 코믹한 분위기를 잘 살려낸 니이젤 로우리의 연출도 맛깔스럽다.



EuroArts 2058698 [DVD]

1970 베토벤 페스티벌 실황
프리드리히 굴다의 베토벤과 바흐

프리드리히 굴다(피아노)

탄생 200주년의 베토벤, 불혹에 접어든 굴다의 피아노

역사적 순간을 발굴하는 유로아츠의 '클래식 아카이브' 시리즈로, 베토벤의 고향 본에서 열린 1970년 베토벤페스티벌 중 프리드리히 굴다(1930~2000)의 연주실황이다. 이 해는 베토벤탄생 200주년이자 굴다가 불혹에 접어든 해이다. 바두라 스코다, 데무스와 함께 '빈의 삼총사'로 불린 굴다는 바흐 '영국 모음곡', 베토벤 '에로이카 변주곡'과 소나타 29번 '하머클라비어'를 연주한다. 유력 매체인 '뮤직웹 인터내셔널'은 이 영상에 대해 "화질은 선명하진 않지만 카메라의 각도는 그의 특색을 명확히 잡아낸다. 바흐의 연주는 리드미컬하고, 예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평한 바 있다. 흑백영상 속의 굴다는 만화경 같은 환상으로 바흐를 채색하고, 베토벤의 작품에는 자유로움을 불어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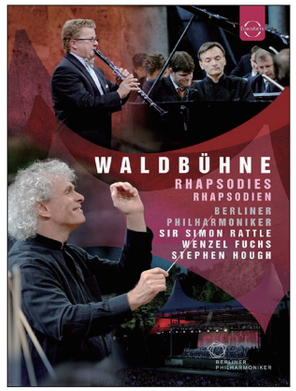
[보조자료]

– 유로아츠의 '클래식 아카이브' 시리즈는 20세기를 풍미한 피아니스트들의 역사적 순간과 연주를 담은 자료를 발굴하여 내놓고 있다. [피아노 비르투오소]와 [프랑스 피아노 학파](3078578)는 물론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1929~2012)와 아르투르 루빈스타인(1887~1982)의 영상물 등이 이 시리즈의 진가를 높이고 있다.

– 12세에 빈 음악원에 입학했고, 1946년 16세의 나이로 제네바 콩쿠르를 석권한 프리드리히 굴다(1930~2000는 파울 바두라 스코다, 외르크 데무스와 함께 '빈의 삼총사'였다. 젊은 시절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명수로 인정받았으며, 두 번에 걸쳐 베토벤 전집을 녹음하기도 했다. 연미복이 아닌 티셔츠와 모자를 즐겨 착용했고, 보수적인 빈의 클래식계에 재즈를 연주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었다는 보도문을 낸 뒤에 유유히 나타나 부활 콘서트를 열었고, 만년에는 재즈와 즉흥음악에 심취하기도 했다.

– 이 영상물은 베토벤의 고향 본에서 개최된 1970년 베토벤페스티벌에 오른 프리드리히 굴다의 연주실황이다. 1970년은 베토벤(1770~1827)의 탄생 200주년이자 굴다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해이다.

– 굴다는 바흐의 '영국 모음곡', 베토벤 '에로이카 변주곡' Op.35, 소나타 29번 '하머클라비어'를 연주한다. 유력 매체인 '뮤직웹 인터내셔널'은 이 영상물에 대해 "화질은 선명하진 않지만 훌륭한 점이 너무 많다. 카메라의 각도는 그의 특색을 명확히 잡아낸다. 바흐의 연주는 리드미컬하고, 예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평했다. 흑백 영상 속에서 굴다는 만화경 같은 환상으로 바흐를 채색하고, 베토벤의 작품에는 자유로움을 불어 넣는다. 해설지(11쪽 분량)에는 '굴다: 베토벤과 바흐'라는 글이 수록(영 · 독 · 불어)되어 있다.



EuroArts 2056238 [DVD]

베를린 필 2007 발트뷔네 콘서트 '랩소디'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티븐 허프(피아노), 벤첼 푹스(클라리넷)

'랩소디'를 수놓는, 래틀과 베를린 필의 여름밤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를 뜻하는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시즌 마지막에 개최되는 베를린 필만의 콘서트이다. 오케스트라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콘서트는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하는데, 래틀이 지휘봉을 잡은 공연(2007년 6월 17일)의 테마는 '랩소디'이다. 전반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협연하는 스티븐 허프의 정통적인 해석을 지나 후반부는 '랩소디'의 향연이 펼쳐진다. 드보르자크 '슬라브 랩소디' 1번, 드뷔시의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프리미어 랩소디'(협연 수석 벤첼 푹수), 에네스쿠 '루마니아 랩소디' 1번 등에 이르며 '숲의 무대'는 여름밤의 낭만과 열기로 가득 찬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라는 의미를 지닌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여름의 콘서트다. 연례 시즌 마지막에 오르는 이 콘서트는 베를린 필의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베를린 필의 대표적인 콘서트로 자리 잡았다. 매년 샤이, 네메 예르비, 세이지 오자와, 마리스 얀손스,켄트 나가노, 제임스 레바인,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세계적이 거장들이 '숲의 무대'의 지휘봉을 잡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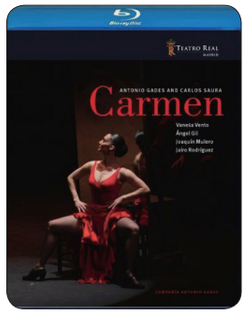
– 이 콘서트는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해왔다. 사이먼 래틀이 지휘봉을 잡은 2007년 6월 17일 베를린 발트뷔네 공연의 테마는 '랩소디'. 특정한 형식과 음악적 원칙이 없는 것이 '원칙'인 랩소디는 작곡가들의 자유롭고 시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장르다.

– 에마뉘엘 샤브리에 '에스파냐'의 서막을 열고, 프레더릭 딜리어스 '브리그 박람회'을 지나 본 공연의 주인공 격인 라흐마니노프가 나온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하는 스티븐 허프는 감각적인 연주 스타일을 일부러 기피하며 공연이나 레코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면을 고수하고, 실황 특유의 긴장감과 완벽할 정도의 설득력이 청중을 압도한다. 앙코르로 몸포우 '정원의 소녀들'에선 허프만의 로맨티시즘이 느껴진다.

– 다시, 드보르자크 '슬라브 랩소디' 1번을 지나, 드뷔시의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프리미어 랩소디'에 이르면 '숲의 무대'는 어느새 여름밤의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고, 베를린 필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벤첼 푹스는 몽롱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여름 밤을 수놓는다. 이어지는 에네스쿠 '루마니아 랩소디' 1번과 프로코피예프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중 '왕자와 공주'은 한여름밤의 로맨스가 무엇인지를 음악으로 느끼게 해준다.

– 어둠에 쌓인 발트뷔네 무대를 하늘에서 조망하는 영상미도 압도적이다. 관객들의 환호와 함성은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중 '행진곡'과 파울 링케 '베를린의 공기'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 콘서트의 마지막에 늘 연주하는 '베를린의 공기'에서 래틀은 피콜로 연주자에게 지휘봉을 장난스럽게 넘기는데, 거장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진다. 발트뷔네 콘서트의 영상물 중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0개 콘서트를 선별한 박스물이 유로아츠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EPC www.teatro-real.com



TR97004 [Blu-ray]

플라멩코 무용극 〈카르멘〉

안토니오 가데스, 안무/ 콤파냐 안토니오 가데스

정통 플라멩코의 선율 위로 펼쳐지는 카르멘의 치명적인 매력

자유분방한 집시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을 다룬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은 비제의 오페라를 통해 너무나 유명해졌다. 열정과 관능, 그리고 스페인 고유의 향토색으로 점철된 이 이야기는 무용계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러시아 작곡가 슈체드린이 비제의 선율을 편곡하여 완성한 동명 발레가 유명하지만, 본 DVD에 수록된 플라멩코 무용극 '카르멘'은 스페인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이국적인 향취를 더 한층 충실하게 표현해내었다. 스페인의 국보급 무용가인 안토니오 가데스가 스페인 고유의 전통 춤사위로 표현한 이 무용극은 1983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후 가데스의 대표 안무작의 하나로 호평을 받아왔는데, 본 DVD에는 그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테아트로 레알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이 수록되었다. 콤파냐 안토니오 가데스의 대표 무용수인 바네사 벤토가 팜므 파탈의 신비한 매력을 관능적으로 표현하였고, 두 명의 기타리스트와 관록의 플라멩코 가수들이 들려주는 스페인 집시 음악의 독특한 매력도 각별하다.

TR97006 [Blu-ray]

푸엔테오베후나

안토니오 가데스, 안무/ 콤파냐 안토니오 가데스

열정적인 플라멩코 무용극으로 탈바꿈한 스페인 국민연극의 대표작

르네상스 후반 합스부르크가 지배하던 스페인은 유럽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연극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로페 데 베가와 칼데론 데 라 바르카 두 거물 극작가가 등장했던 16세기 후반부터 스페인 연극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2,300여 편의 희곡을 완성했던 로페 데 베가는 스페인 국민연극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큰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지방 토호의 압제에 맞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의 실화를 다룬 '푸엔토오베후나'이다. 스페인의 국보급 무용가인 안토니오 가데스는 이 연극을 토대로 독특한 무용극을 완성하였다. 1994년에 초연되었던 이 무용극은 스페인 전통 무용극의 정수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본 DVD는 가데스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테아트로 레알에서 펼쳐졌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스페인 고유의 이국적인 선율 위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플라멩코의 열정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572 [DVD]
Naxos NBD0073V [Blu-ray]

뮌헨 필하모닉 2016 로열 앨버트 홀 BBC 프롬스 라벨 '볼레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외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조드 압두라이모프(피아노), 알렉세이 페트렌토(낭송)

게르기예프와 압두라이모프, 런던의 중심을 장악하다

2016년 로열 앨버트 홀의 BBC프롬스 실황으로, 게르기예프/뮌헨 필이 벌이는 풍성한 음악만찬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함께 하는 1990년생의 베조드 압두라이모프는 런던콩쿠르 우승자이다. 2017년 내한하여 서울시향(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 협연 및 금호아트홀 리사이틀을 갖기도 했다. 그의 주특기는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이다. 스포츠세단의 액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스릴감과 박진감을 선사한다. 우스트볼스카야(1919~2006)의 교향곡 3번 '예수, 구원하소서'는 배우 페트렌코의 낭송이 함께 한다. 종교적 진정성을 현대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다. 2014년부터 영상사업에 뛰어든 낙소스가 가격, 화질, 음질을 다 잡고자 하는 욕심이 녹아 있는 영상물이다. 게르기예프/뮌헨 필은 2018년 11월에 내한하는데,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을 선우예권과 함께 할 예정이다.

[보조자료]

– 2016년 로열 앨버트 홀의 BBC프롬스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낙소스 레이블은 2014년부터 영상제작에 뛰어들었는데, 이 레이블은 오늘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같다. 이 영상물의 저렴한 가격에 눈길이 가고, 높은 화질과 현장감이 보는 이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2015년부터 이끌고 있는 뮌헨 필하모닉이 출연하는 이 콘서트에는 라벨 '볼레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갈리나 우스트볼스카야 교향곡 3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베를리오즈 헝가리 행진곡과 '라코찌 행진곡'으로 풍성한 성찬을 선보인다.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은 베조드 압두라이모프가 함께 한다. 게르기예프의 '이쑤시개 지휘봉'만큼 눈에 띄는 그는 1990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런던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데뷔를 했다. 특히, 우승 직후 3일 만에 아르헤리치의 갑작스런 연주 취소로 뒤투아/로열 필과 함께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을 대타로 뛰었는데, 그날의 성공적인 연주는 그의 명성을 더욱 멀리 퍼뜨렸다. 2017년 3월에 내한하여 서울시향(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과의 협연 및 금호아트홀에서의 리사이틀을 갖기도 했다. 프로코피예프와 차이콥스키 등 러시아 작품에 강세를 보이는 그는 이 공연에서 게르기예프의 지휘와 함께 스릴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젊은 피와 만난 게르기예프의 지휘봉 역시 신나게 춤춘다.

– 러시아의 여성작곡가 우스트볼스카야(1919~2006)의 교향곡 3번은 '예수, 구원하소서'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이다. 러시아 영화배우 알렉세이 페트렌코의 낭송이 함께 한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뭉크의 '절규'가 떠오를 정도로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다.

– 영상물의 화질은 16:9의 HD, 사운드 옵션은 PCM 2.0과 DTS 5.1이다. 낙소스 레이블의 블루레이 출시가 드문 경우라 스펙을 궁금해 하는 마니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영상물이다.

– 게르기예프/뮌헨 필은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공연으로 2018년 11월 22일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2017년 반 클라이번콩쿠르 우승자 선우예권과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을 선보일 무대인데, 이 영상을 통해 게르기예프의 장기인 이 협주곡을 미리 맛볼 수 있다.

Naxos 2.110397 [DVD]
Naxos NBD0068V [Blu-ray]

NAXOS

'코플랜드가 지휘한 코플랜드'

코플랜드(작곡 · 지휘),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니 굿맨(클라리넷)

자신의 대표작을 직접 지휘한 코플랜드를 만나다

1976년 LA의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언 음악센터의 실황으로, 코플랜드(1900~1990)의 대표작 5곡을 코플랜드가 직접 지휘하는 기념비적인 영상물이다. 이른바 코플랜드가 '지휘'한 의미도 있지만, 작곡가가 직접 '선곡'한 의미 역시 져버릴 수 없는 영상물이다. 코플랜드는 런던 심포니 · 보스턴 심포니를 직접 지휘한 음반을 발매한 적이 있으나, 이 영상물은 노장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평생이 전성기였던 굿맨은 '20세기 클래식'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로 자신에게 헌정된 코플랜드의 협주곡을 완성시킨다. 마스터링을 거친 사운드는 현장의 생생한 감흥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보조자료]

– 아론 코플랜드(1900~1990)의 대표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지휘봉을 든 이도 그 곡들을 만든 코플랜드이다. 여기에 베니 굿맨(1909~1986)까지 가세하여 자신에게 헌정된 클라리넷 협주곡을 함께 한다. 일석이조가 아니다. 작곡가의 대표작, 지휘 모습, 최고의 협연자까지 만날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영상물이다.

– 영상은 1976년 LA의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언 음악센터의 실황이다. 코플런드는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자신의 작품인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1942), '엘 살롱 멕시코'(1936), 클라리넷 협주곡(1948), '로데오'(1942), '텐더랜드' 모음곡(1954/1958)을 들려준다(*괄호는 작곡/편곡 연도). 평생이 전성기였던 굿맨은 우리에게 영상보단 음반으로 친숙한 연주자. 그런 그는 재즈곡을 연주할 때와 달리 20세기 클래식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굿맨 특유의 유머와 모던함이 느껴진다.

– 코플랜드는 직접 지휘를 한 음반을 발매한 적이 있다. 런던 심포니나 보스턴 심포니과 함께 한 작업들이었는데, 헤리티지(Heritage) 레이블, 레지스(Regis)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이러한 그의 지휘와 해석을 음반이 아닌 영상으로 접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물은 충분한 소장 가치를 지닌다.

– 이 필름을 마스터링하여 재발매한 낙소스 레이블은 2014년 말부터 영상물 제작과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각지대의 음악가나 자료를 발굴하는 낙소스의 기존 전략이, 이 영상물에서도 돋보인다. 화질은 1976년의 화질이지만, 4대의 카메라들이 음악의 흐름과 지휘에 따라 입체적으로 현장을 담고 있다. 음질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추천 영상] **코플런드의 음악 세계에 더 다가가려 한다면.**
제러드 슈워츠(지휘),
올스타 오케스트라 'ALL STAR ORCHESTRA–PROGRAMS 9&10 GERSHWIN/ COPLAND'(NAXOS 2110370)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57D [DVD]
OpusArte OABD7234 [Blu-ray]

OPUS ARTE

2017 로열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프레드릭 애쉬톤 · 안토니 도웰 · 크리스토퍼 윌던(보조안무), 코엔 케슬리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마리아넬라 누에즈(오로라 공주), 크리스텐 맥날리(카라보스), 클레어 칼버트(라일락), 바딤 문타기로프(플로리문트 왕자)

기교와 아름다움, 재미와 판타지를 모두 갖춘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티파(1818~1910)가 안무한 명작이자, 차이콥스키(1840~1893)가 음악을 맡은 대작이다. 2017년 2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로열발레의 수석으로 귀여운 마스크의 소유자 마리아넬라 누에즈의 오로라 공주 역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보여주며, 플로리문트 왕자 역의 바딤 문타기로프와 빼어난 호흡을 자랑하는 프로덕션이다. 3막(37~53트랙)은 화려한 볼거리가 이어지는 장대한 결혼식의 디베르티스망으로 로열발레의 명성과 다양한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오케스트라는 135분이라는 장시간 동안 지치지 않는 기색과 경쾌한 춤곡조로 스피커를 울린다. 오디오 감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작품 소개(5분), 역사(3분 30초), 연습장면(3분 30초)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가 안무하여 1890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697년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동화를 원작으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왕국에 오로라 공주(마리아넬라 누에즈)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왕은 잔치를 벌이는데, 초대 받지 못한 마녀 카라보스(크리스텐 맥날리)는 오로라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지만 요정 라일락(클레어 칼버트)은 언젠가 왕자의 사랑에 의해 눈을 뜰 것이라는 마법을 걸어주고, 100년 후에 플로리문트 왕자(바딤 문타기로프)에 의해 공주는 마법에서 깨어난다.

– 프티파가 치밀한 구성으로 각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오리지널 판본에 손을 댄 것은 '위험한 명작'으로 평가된다.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2006년에 초연된 로열발레 버전은 영국발레의 전통을 상징하는 프레데릭 애쉬튼(1904~1988)과 아토니 도웰 · 크리스토퍼 윌던이 약간의 수정을 가한, 정통을 중시하는 버전이다. 이 공연은 2017년 2월 공연 실황이다.

–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롤로그와 3막 구성이지만, 프롤로그(1~13트랙)가 30여 분에 달하여 사실상 4막에 해당하는 대작이다. 또한 3막(37~53트랙)은 화려한 볼거리가 이어지는 장대한 결혼식의 디베르티스망(여러 춤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부분)으로 로열발레의 명성과 다양한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이 대목에는 파랑새, 장화신은 고양이 같은 동화속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며, 오로라 공주와 플로리문트 왕자의 그랑 파드되가 하이라이트를 찍는다.

– 로열발레의 수석으로 귀여운 마스크를 지닌 마리아넬라 누에즈의 오로라 공주 역은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우아한 폴드브라(팔동작)로 품위있는 춤을 선사한다.

– 이 영상물은 차이콥스키의 대작이자 명작을 담고 있는 만큼 연주와 음질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코엔 케슬리스의 지휘로,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는 135분이라는 장시간 동안 지치지 않는 기색과 경쾌한 춤곡조로 스피커를 울린다. 오디오 감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작품 소개(5분), 역사(3분 30초), 연습장면(3분 30초)이 수록되어 있다.

[함께 추천해요] **고전보다 파격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궁금하다면?**
나초 두아토(안무), 베를린 오페라극장 발레단, 이안나 살레코 · 마리안 발터 출연 (BELAIR BAC431)

OpusArte OA1118D [DVD]
OpusArte OABD7130 [Blu-ray]

OPUS ARTE

로열발레 '파드되'

로열 발레 남녀무용수 23명(사라 램브, 마라 갈레아치, 타마라 로요, 카를로스 아코스타, 알리나 코조카루, 나탈리아 오시포바, 매튜 골딩, 로베르타 마르퀴즈, 최유희, 세르게이 폴루닌 등)

'아름다움'과 '미적 파격'으로 엄선한 파드되의 베스트 컬렉션!

영국 로열발레의 독창적인 컬렉션으로, 2006년부터 선보인 15개의 실황영상에서 엄선한 15개 작품 속 파드되를 모아 놓은 영상물이다. 영국발레를 상징하는 프레드릭 애쉬톤의 작품(2개), 케네스 맥밀란의 작품(5개), 모던발레(3개), 19세기 고전발레(5개)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초심자 · 마니아 · 남녀노소를 전체적으로 만족시켜줄 '베스트 컬렉션'이다. 각 공연을 빛낸 로열 발레의 간판 스타급 남녀 주인공들을 하나의 영상물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 영상만의 큰 매력이다. 동양인 최유희부터 흑인무용수 카를로스 아코스타, 최연소 수석무용수이자 영화로 유명세를 떨친 세루게이 폴루닌, 간판스타 나탈리아 오시포바 등 23명의 발레스타들을 133분 동안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영국 로열발레가 내놓은 독창적인 컬렉션으로, 명작의 파드되(2인무)만 모아놓은 영상물이다. '파드되'란 남녀무용수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품의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많다. 관객들도 파드되를 통해 작품과 주역의 팬이 되기도 한다.

– 이 영상물은 로열 발레가 2006년부터 선보인 15개의 실황영상에서 엄선한 15개 작품 속 파드되를 모아 놓았다. 영국발레를 상징하는 프레드릭 애쉬톤(1904~1988)과 캐네스 맥밀란(1929~1992)의 안무작이 영상물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모던발레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과, 발레사에 명작으로 남은 19세기 낭만발레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초심자부터 마니아는 물론 남녀노소를 두루 충족시키는 흥미로운 구성물이라 할 수 있겠다.

– 각 공연을 빛낸 로열 발레의 간판 스타급 남녀 주인공들을 하나의 영상물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 영상만의 큰 매력. 특히, 동양인 최유희, 흑인무용수 카를로스 아코스타 등 주역의 다국적화를 통해 작품과 무대에 다양한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로열 발레의 변화와, 그 속에서도 다져가고 있는 전통을 23명의 주역들을 통해 느낄 수 있다.

– 시대와 안무가를 기준으로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별 안무가 · 실황연도 · 출연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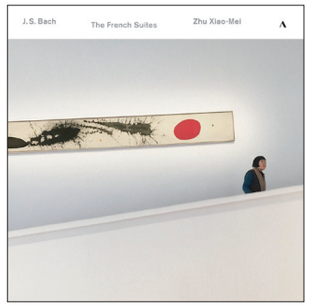
***프레데리크 애쉬톤:** '봄의 소리'(2013/최유희 · 알렉산더 캠벨), '고집쟁이 딸'(2012/로베르타 마르퀴즈 · 스티븐 맥레이)

***케네스 맥밀란:** '마농'(2008/타마라 로요 · 카를로스 아코스타), '마이얼링'(2009/마라 갈레아치 · 에드워드 왓슨),
'엘리트 싱코페이션'(2010/사라 램브 · 발레리 흐리스토프), '콘서트'(2010/마리아넬라 누에즈 · 루퍼트 페네파더),
'로미오와 줄리엣'(2012/로렌 커스버트슨 · 페데리코 보넬리)

***모던 발레:** '겨울 이야기'(2014/사라 램브 · 스티븐 맥레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1로렌 커스버트슨 · 세르게이 폴루닌),
'리멘'(2009/사라 램브 · 에릭 언더우드)

***19세기 클래식:** '백조의 호수(2막)'(2009/마리아넬라 누에즈 · 티아고 소아리즈), '백조의 호수(3막)'(2015/나탈리아 오시포바 · 매튜 골딩),
'호두까기인형'(2009/미야코 요시다 · 스티븐 맥레이), '돈키호테'(2013/마리아넬라 누에즈 · 카를로 아코스타),
'지젤'(알리나 코조카루 · 요한 코보르크)

Accentus LP www.accentus.com



accentus music

ACC40404 [2LPs]
[180g 독일제작]

바흐 스페셜니스트 주 샤오 메이 – 프랑스모음곡 전곡

주 샤오–메이(피아노)

아이의 순수함으로

주 샤오–메이는 더 이상 변방의 바흐 연주자가 아니다. 바흐의 건반 작품들은 나지막한 나선형을 그리며 무한 동력처럼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녀가 좋아한다는 음반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후앙 미로의 작품세계처럼 샤오–메이가 그려내고자 하는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에는 아이 같은 천진함, 야수의 난폭함, 단순함으로 얻어낸 자유가 느껴진다. 특히 피아노의 소릿결을 잘 잡아내는 악상투스의 녹음팀은 2016년 5월 게반트하우스의 멘델스존–잘에서의 녹음을 진행했으며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모델 D274의 묵직한 질감도 연주를 더욱 빛나게 한다. 최근 녹음된 프랑스 모음곡 음반들 중 최상의 연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Aurora LP www.aurora.ws

AURORA

KING 1002LP [2LPs]
[180g 독일제작]

게리 카가 연주하는 일본 노래들 1 GARY KARR plays Japanese songs

깊고 풍성한 아마티 더블베이스로 연주하는 일본 가요들

독특한 음악계에서 느껴지는 일본 분위기가 사뭇 야릇하기도 하다. 2번 '폐허가 된 성 위에 뜬 달', 4번 '푸른잎 피리', 7번 '헛된 기다림', 8번 '중국 지방의 자장가', 15번 '해변의 노래', 16번 '비파호수의 항해', 23번 '지난 여름날의 추억'.

[수록곡] **Side A** 1. Bloom/ 2. Moon over the ruined castle/ 3. Long and stern mountain path of Hakone/ 4. A flute of green leaf/ 5. A night with hazy moon **Side B** 6. Rainning joga-shima island/ 7. Waiting in vain/ 8. Lullaby of Chugku region/ 9. Cherry blossoms/ 10. A red dragonfly/ 11. Kosaku Yamada **Side C** 12. The path/ 13. An eveing promrose/ 14. A dessert under the moon/ 15. Song for strand/ 16. Sailing through the Biwako Lake/ 17. The hourbour of Habu **Side D** 18. Sail from a poat/ 19. A coconut/ 20. Nara, the ancient city/ 21. Boneze at a mountain temple/ 22. Lullaby of Itsuki/ 23. Remembrance of last summer

KKV LP

www.kkv.no

FXLP216 [2LPs]

이태리 – 와인과 음악으로의 여행

Aage Kvalbein _ Cello

'Wine 음악과 함께 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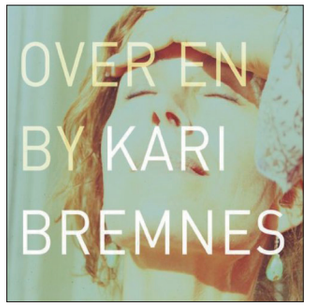
KKV를 통해 발매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와인과 음악여행 시리즈 중 이태리 와인과 음악으로의 여행은 이태리 클래식과 영화음악 작곡가들의 유명한 클래식, 영화음악 19곡으로 구성된 베스트 음반이다. 이 음반은 KKV 베스트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성악가, 어코디언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선곡과 함께 KKV가 자랑하는 최고의 퀄리티 LP로 발매되었다.

FXLP379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Villa Nordraak

노르웨이의 음유시인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천사가 있다면 그룹 예스의 보컬 존 앤더슨이나 노르웨이의 음유시인 시그바르트 닥스란드의 목소리로 노래하리라.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데 토르 랑 티'는 이 음반의 백미. 닥스란드는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북유럽의 가수. 여덟 명의 반주자로 구성된 밴드 이름도 독특. '결혼식과 장례식 오케스트라'. 닥스란드가 그들과 함께한 이 신보는 북유럽권 베스트셀러. 바이올린, 만돌린, 트럼펫과 비브라폰, 위대한 하모니카 연주자인 지그문트 그로븐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협연도 담겼다. 기타, 철금, 켈틱 하프, 전통 민속악기를 비롯 타악기들이 요소요소 숨을 쉬고 있다. 오슬로 외곽의 오래된 집을 구한 KKV는 닥스란드에게 절대 권한을 주어 이 음반을 세밀히 준비하도록 배려하였다. 노랫말은 노르웨이 시인들이 함께하고, 동료 캐롤라인은 멜로디를 얹어주기도 했다. '우울', '솔로', '목자의 탱고', '계속되는 인생' 등의 노래들은 푸른 초장과 풀물이 든 강과 북구의 싱그런 바람냄새로 꽉 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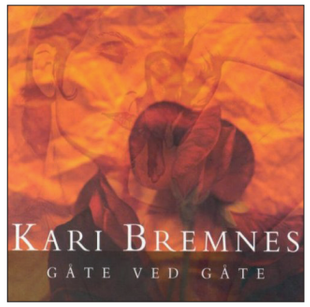


FXLP293 [2LPs]

카리 브렘네스: 도시 너머로 (OVER EN BY)

스칸디나비아의 '노래하는 여류 시인'

노르웨이 가수 특유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미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히르켈리히에서 모두 8장의 CD를 냈던 매혹적인 가수 카리 브렘네스가 내놓은 9번째 앨범. 노래하는 가수이자 작곡가인 그녀는 이 앨범에서도 자신이 직접 모든 음악을 썼고 시 수준의 가사까지도 만들었다. 이 앨범에서 그녀의 노래는 이전 음반보다 기교적인 면이나 음악적 영감 면에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그녀의 밴드는 새벽안개처럼 혹은 저녁의 노을처럼 깔리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완벽하게 반주한다. 무심코 그녀의 음반을 집어 들었다가 완전히 매료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음반도 그럴 것이다. 한곡 한 곡이 시를 읊는 것 같고, 그윽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강력 추천한다!



FXLP143

카리 브렘네스: GATE VED GATE

고테 베드 고테 (수수께끼 같은 수수께끼): 실력과 관록을 함께 겸비한 카리 브렘네스의 '94년작.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보컬에선 세월의 향기가 느껴진다. 시류의 흐름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는 카리 브렘네스의 고급스런 음악이 담겨있다.

FXLP200

카리 브렘네스: Svarta Bjorn

북유럽의 서정을 카리 브렘네스만의 분위기로 구성하여 발매한 앨범.노르웨이에서 전래되는 음악으로 많은 아티스트에 의해 재구성되어 불려졌던 5번 'Byssan Lull'이 카리 브렘네스에 의해 녹음되어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강력 추천!!**

Silkroad LP

www.silkroad.graceapps.com

Silk Road CDS195LP

[180g 오디오파일 LP]

Audiophile 애호가와 현악애호가들에게 적극추천.
오디오파일 음반 마스터링의 명스튜디오
독일 Pauler Acoustics studio에서 re-mastering, Germany – LP, SACD 제작

현악사중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

피터 하이드리히의 '생일축하 변주곡'(Happy Birthday Variations)

베네치아 현악사중주단(연주)

익숙한 선율, 거듭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멋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작곡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일축하노래'를 들려준다면 어떤 느낌일까. 피터 하이드리히의 '생일축하 변주곡'('생일 축하 합니다'의 주제에 의한 15개의 변주곡)은 상상만으로도 특별한 순간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 모방과 창조의

절묘한 조화, 부담 없고 익숙한 선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멋. 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가 아니라고 했다. 세월의 흐름에 빛바래지 않는 소중한 만남(또는 순간)의 배경 음악이 된다면 한층 각별한 기억으로 남을 듯싶다.

[수록곡]

Side A
1. Werner Thomas-Mifune: Comic string quartet based on Beethoven's 5th Symphony
2. Charlie Chaplin: Theme form Limelight
3. Dimitri Schostakovich: Allegretto from the ballet 〈The Golden Age〉 Op.22
4. Rachmaninoff: Vocalise (arr: Thorp)
5-19. Peter heidrich: Happy Birthday Variations for string quartet

Side B
20. Gershwin: Lullaby
21. Pachebel: Canon (transcription for three violins and bass)
22. A.Razek: Katzenstandchen: Cats' Serenade (transcr.thomas-Mifune)
23. Werner Thomas -Mifune: Chromatic Syncopations
24. Jerome Kern: Smoke gets in your eyes
25. Cole Porter: Anything goes (arr.Thorp)
26. Edward Elgar: Salut d'amour (arr.Donald Faser)

Silk Road CDS260LP **[2LP]**
[180g 오디오파일 LP]

파가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음악 LP (2LP)
오리지널 악기와 오리지널 조성으로 연주된 바이올린 협주곡 1.2번
콰르타 (Massimo Quarta)

오리지널 악기와 오리지널 조성으로 연주된 바이올린 협주곡 1.2번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1742년산 과르네리로 연주한 LP. 또한 스코어도 파가니니 자신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협주곡 1번의 경우 흔히 D장조로 연주해왔으나 이 음반에서는 최초로 원래 필사본 조성인 E플랫 장조로 연주했다. 2번도 1악장의 카덴차를 연주자가 만들었을 뿐 원본에 충실한 해석이다. 연주자 마시모 콰르타는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제자이며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다. 그야말로 3박자가 다 들어맞아 작곡가의 정신을 해석해낸다.

[수록곡]

Concerto No.1	Side A	1. Allegro maestoso
	Side B	2. Adagio espressivo
		3. Rondo: Allegretto spiritoso
Concerto No.2	Side C	4. Allegro masestoso
	Side D	5. Adagio
		6. Rondo

EUROARTS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역사적 순간을 한 손에!

베르비에 페스티벌 20주년 기념 에디션

5DVDs

아르헤리치 · 엘렌 그뤼모 · 마롬 마르티노 · 유자 왕(피아노), 르노 카퓌송 · 조슈아 벨 · 키릴 트로소프(바이올린), 유리 바쉬메트 · 막심 라자노프(비올라), 미샤 마이스키 · 솔 가베타(첼로), 토마스 크바스토프(베이스바리톤), 수잔 그래험(메조소프라노), 가보르 타카치-나기 · 쿠르트 마주어 · 에사 페사-살로넨 외

[LP] Ideale Audience 3079078 (5DVDs)

1 디스크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아르헤리치'
2 디스크 '피아노와 성악 하이라이트'
3 디스크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4 디스크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멘델스존'
5 디스크 다큐멘터리 '신비로운 산 – 오케스트라의 탄생' & '산의 노래'

1994년 스위스 베르비에 산악휴양지에서 시작한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5~2005년 공연 중 화제의 연주(4장)와 다큐멘터리(1장)에 수록한 2013년 발매 에디션이다.
페스티벌의 실황을 담아온 아이디얼 레이블에서 낱장으로 발매한 실황물 중 '베스트'를 한 박스물로 모은 것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산의 아리아'(1995)와 축제의 기초와 역사를 담은 '신비로운 산'(2003)이 본 에디션의 가치를 높인다.
아르헤리치 등의 거장과 트로소프(바이올린) · 게리에(트럼펫) 등 젊은 음악가들이 함께 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이 축제가 혁신적인 음악의 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다.
20주년 기념 콘서트 영상물(2013)을 소유한 마니아라면 곁들여야 할 영상물이다.

표지사진
2017 취리히 오페라 실황
마스네 '베르테르' DVD, Blu-ray

〈아울로스뉴스〉 2018년 4월호
통권 제 75호 발행 2018년 4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